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건축사



칼럼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를 위하여!
시론 건축사 - 사회의 지도자, 역사의 창조자
건축문화행사 통합 연구'에 붙여

 **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89

<http://www.kira.or.kr>

201001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를 위하여! - 국운 융성과 더불어 건축사의 희망이 솟아오르기를…

For the sake of Architecture! For the sake of Architects!
- Expecting to rise up architects' hope with prosperity of nation

201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운 융성의 하늘이 친환경하게 떠올랐습니다.

2010년은 구한말 세계 강대국의 각축 속에서 나온지를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이념의 대립 속에서 한반도를 다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만든 6.25가 빨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모두 역사적으로 스스로 변화하면서 발전시키거나 힘을 기르면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멀당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깊이 새겨주고 있는 가슴 아픈 사건입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세기가 정말 다사다난했던 시대였음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100년의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의 100년으로 만들어 이제 무한한 미래로 도약하려는 백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건축사법과 건축사가 탄생한지는 45년이 되었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근 5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건축사는 범허에서 자격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국가 간에 상호 인정해야 하는 국제자격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의 입장은 오히려 희망적이라고 하기에는 현실이 너무 어둡고, 지나치게 공급과잉이 되고 있고, 사회적 위상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치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라할 때일수록 사롭게 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09년 한 해 동안 건축사의 살길을 위해 두 가지를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녹색성장시대 친환경건축사로 다시 태어나자. 새 일을 준비하자. 건축사단체들을 일원화하자. 건축문화시대를 맞이하여 국토해양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동시에 복속하여 건축창작단체로서 권위를 회복하자. 사회적으로는 이익단체에서 전문가 단체로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변신하고 호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는 길만이 시대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복합적이면서도 간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안이자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환경건축사교육은 새해에도 계획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협회의 목표는 전 건축물이 친환경건축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는 것이고 전 건축사가 친환경전문가로 자격을 갖춘과 동시에 협회가 친환경건축인증기관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이 장기목표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며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순회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건축사단체통합문제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3일 임시총회에서 60% 대의원이 찬성해 주셨지만 의견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여 정관개정이 그만 부결되었습니다. 2, 3개월 동안 전국순회간담회까지 하면서 통합의 의지를 설명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회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는 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회원님들의 합의를 더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자신이 몽담고 있는 조직이 일원화되고 서성이 배가될 수 있다며 기존 회원님들께 손해가 나는 일일까요? 지금 협회재산에 죽이 나겠습니까? 교회의 예를 들면 선배신도들이 고생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새 신자들이 끌밀 듯이 넘쳐 들어와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인가? 성전건축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문턱을 높여 새 신자들의 발길을 끌리게 한다면 얼마가지 않아 그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협회 우리회원님들이 보다 넓은 마음으로 단체통합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며 단체일원화와 회원비가 운동에 앞장선다면 분명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고 회원들의 진정성과 희망사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면, 결코 단체통합이 건축사들의 미래에 불이익을 주거나 협회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님들의 바른 이해와 침묵하는 다수의 참가율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새해에는 회장이나 집행부의 주장이 아니라 회원님들의 뜻에 따라 진행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모두 목소리를 내어주시고 합의를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자체답례 준비를 하며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분야에서 건축사업부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대상황에 따라 건축문화시대 건축사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법과 제도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축사권익과 생존을 위해 계속 누ialect 할 것입니다. 협회를 통해 능력을 합쳐주시고 단결하여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십시오. 비단이나 비판보다는 신뢰와 단결을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나무젓가락이 여러 개 끙치면 악한 것가락도 부러뜨리기 어렵습니다. 건축사 하나는 악하더라도 뭉친 건축사는 악하지 않게 합쳐주시오. 우리의 숙원이었던 공제조합 문제도 계획대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어렵더라도 언제나 희망을 잃지 말고 후배건축사들에게 보다 좋은 전통과 터전을 넘겨줍시다.

건축을 위하여! 건축사를 위하여! 계속 정진해 나갑시다.

새해 하시는 일마다 만사亨通하시길 바랍니다! 헛내십시오! 감사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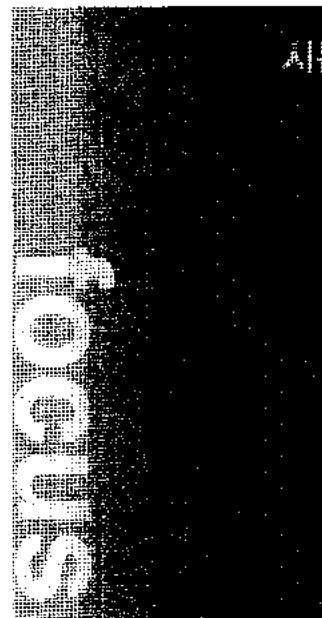
최영철 / Cha, Young-jeep, KIRA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축문화의 해(1999) 기획위원장, 사업위원장
- 서울건축사회 부회장· 회장
- 한양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특별시 산의위원
- 현 (주)종합건축사사무소 탄 대표
국가보훈처 산의위원

건축사 - 사회의 지도자, 역사의 창조자

Architects- community leaders, the creator of history



건축사는 사회의 지도자이며 역사의 창조자이다.

고(故) 김중업 선생이 28년 전 「건축문화」지와의 인터뷰에서 건축계의 숙제에 대한 건축사들은 어떤 노력이 필요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강조하신 말이다. 선생은 건축사들이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하고 피눈물 나는 노력을 안 해왔음을 질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건축 단체의 위상도 중요함을 역설한다.

외국의 경우 큰 역할을 하는 건축 단체는 대개 하나이고, 이 단체가 국내적으론 법령의 개정이나 입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도 한국 건축계의 위상을 높인다는 점도 바랄 나위가 없을 것이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말이지 않은가? 또한 얼마 전에 부결된 어느 제안이 생각나진 않는가?

취재차 많은 곳을 다니며 귀동냥을 하다보면 외환위기 시절보다 어려운 상황이 읽힌다. 승자 독식 사회란 말이 구구절절이 와 닿는 곳이 건축계만큼 인 곳은 없다. 과거 작가 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던 많은 건축사들이 학교나 대형 건축사사무소에 들어가 안이하게 지낸다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듣는다. 아틀리에 형태의 건축사사무소에서는 인력난도 심하다 한다. 갓 졸업한 학생들이 설계 사무소를 선택할 때 대형 사무소만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의 이면에는 보다 불확실해진 경제 상황에 대한 여파일 수도, 또는 본능적으로 인정을 선호하는 인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건축 저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쪽에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자책감을 지울 수 없다. 언제부턴가 건축 잡지에 외국 작가를 앞다투어싣고 있음을 기억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앞선 선진국(?)의 선진 건축사(?)를 소개하여 우리 건축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륵한 맘이 조금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영어를 작품 설명이고 사진 설명 그리고 도면명에 이르기까지 가리지 않고 썼다. 이 작가가 왜 소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배경도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행태가 미래의 건축사인 학생들에게 일정 정도의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까? 또는 이 땅의 건축사들에게 부정적인 자괴감을 심어준 것은 아닐까?

예전에 모시던 전 플러스 발행인인 원대연 씨도 필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형식이나 겉보기로만 흐르는 저널의 양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내용이 있어야 해. 그의 강조점이 아직도 귓가에 남는다. 건축사 승효상도 이 땅의 건축사들을 세계에 제대로 소개하는 것이 저널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주문했다. 이 나라에서 20년간 자신의 이름을 걸고 노력한 건축사 승효상. 그도 지난 몇 년간 국내 건축 잡지에 작품 게재를 안 해 왔다. 하지만 보 잡지 편집장의 노력으로 그의 작품 몇 개가 실린다고 한다. 승효상뿐 아니라 이 땅에서 노력하는 건축사들을 우리가 먼저 귀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 저널은 건축사가 사회의 지도자이며 역사의 창조자가 되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 또한 건축계가 활성화 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관련 되는 이들의 의견 모음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광식 있는 이들의 질정을 기대한다. ■■■



이경길 / Lee, Kyung-il
월간 건축문화 편집장
(건축문화, 인테리어 전문지
b2b, 격월간 디테일스, 격월간
설계경기 출판 편집장)

의학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과
· 전 공간지, 플러스지, 피드,
건축인 peer 기자

‘건축문화행사 통합 연구’에 붙여

A comment about combination of cultural events for architecture

국토해양부는 ‘건축문화행사 관련 통합방안 연구’ 용역을 작년 12월 발주하여 금년 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용역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실시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보면서 우려와 함께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건축문화행사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상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써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문화제가 국전의 전통을 이어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고, 국토해양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이 예산과 시상 등의 규모와 권위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다. 이 밖에 매일경제신문의 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이 있는 정도이다. 이 3개는 시상식과 함께 며칠간의 전시회를 열고 있으나 관람객은 수상 관련자와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 뿐, 일반 국민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건축가협회의 대한민국건축문화제만이 전체의 매스컴을 탈뿐 나머지 둘은 언론사가 끼어 있는 관계로 대중매체를 통한 뉴스도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탈피하여 진정 권위를 찾으려면 첫째, 주최를 작품을 만드는 건축사단체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예산과 상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하나는 건축문화제를 개최하는 경우이다. 대한건축사협회의 경우 본 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회가 대부분 건축문화제를 열고 있다. 본 협회는 한국건축신업대전, 교육세미나, 서울국제건축영화제, 건축사미술동호회 작품전 등을 열어 연인원 4만여 명이 축제에 참여하였고, 각 시·도는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또는 자체와 더불어 건축사작품 시상, 대학생작품 공모 시상, 대학생 졸업작품 공동 전시, 어린이 건축교실, 그림그리기, 글짓기, 레고, 과자 등을 이용한 집 짓기, 불우이웃 집 지어주기, 건축문화대학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건축제’를 열고 있다. 또한 부산국제건축문화제, 광주의 ‘건축제’도 관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축이 되는 건축단체 등과 합심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설문서를 보면 “우리의 건축문화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국가 브랜드가 제고되고 국격이 증진되는지” “행사를 통합, 세계적 건축문화행사로 추진해야 하는지” “정부의 건축문화 진흥정책을 알고 있는지” “한국문화 경쟁력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전문가 그룹 FGI의 구성을 보면 건축사 2명, 기자 3명, 건축과 교수 5명으로 되어 있는바, 이는 건축사가 주축이 되고 있는 한국건축문화제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아래가지고 어떻게 현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미국건축사협회(AIA)는 매년 유치도시에서 건축사대회를 개최하며 이 기간 중 작품에 대한 시상, 명예회원 추대, 건축자재 전시회, 세미나 교육 등을 개최하여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건축사들이 모이는 건축 축제가 되며, 각주는 각주대로 그와 유사한 지역대회를 열고 있다.

우리도 각 시·도의 건축문화제에 국가의 경비지원을 극대화하여 예산부족으로 못하거나 축소된 부문을 활성화하고, 대한건축사협회를 통한 유기적 정보교환으로 더욱 일차계 육성하여야 하며, 국가차원에서는 기존의 건축문화시상제도에서도 정부와 언론사가 후원만 하고 주최는 건축사단체에게 맡겨야 할 것이다. 10월 문화의 달 중 건축주간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의 건축축제를 연다면 대단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격도 자연히 높아질 것이다. ■



장양순 / Chang, Yang-soon, KIRA
건축사사무소 참건축

·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본지 및 건축문화신문 편집인
· 한서대학교 건축과 겸임교수

제8회 경상남도건축대상제 대상 수상작

더 시티 세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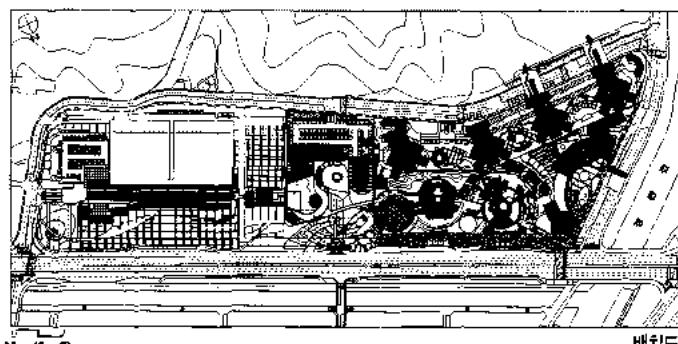
The City 7

아인관 / 정회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그룹

by Lee, Min-kwan, KIRA

조태근 / 정회원, (주)신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by Cho, Tae-geun, KIRA



배치도

제작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동 121-12번지	면적	모 면적 43,450m ²
지역구분	일반산업단지(오피스, 상업시설)	층수	창업시설 지상 3층, 지하 5층
재료	재료 및 구조자재(목재)	트레이드	트레이드 센터, 지하 4층, 지상 22층
주제물	오피스텔, 호텔, 상업시설	호텔	호텔 지하 3층, 지상 15층
내부면적	오피스텔, 상업시설 43,000m ²	구조	모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면적	호텔 14,700m ²	외부마감	Sand Stone, Al Cuitain Wall,
면적	창업시설 6,000m ² , 상업시설 25,110m ²	내부마감	Al Panel, Blue Stainless ips Wood
면적	호텔 14,700m ²	내부마감	Gypsum Dry Wall
면적	창업시설 6,000m ² , 상업시설 25,110m ²	설비설계	㈜용보엔지니어링
면적	호텔 14,700m ²	구조설계	(주)C-S 구조엔지니어링, (주)한국구조
면적	창업시설 6,000m ² , 상업시설 25,110m ²	전기설계	(주)나리기술
면적	호텔 14,700m ²	시공사	㈜에스간행주, (주)KCC건설
면적	창업시설 6,000m ² , 상업시설 25,110m ²	현대건설주	
면적	호텔 14,700m ²	설비설计	에이그룹, 홍준영, 윤설총
면적	창업시설 6,000m ² , 상업시설 25,110m ²	신화건축, 김진식, 신재근, 빙민준	
면적	호텔 14,700m ²		

창원 '더 시티 세븐'은 창원 컨벤션센터 옆에 건설되어 컨벤션센터와 지원기능을 위주로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필수시설인 특급호텔과 상업 및 업무시설,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이 거대한 복합체는 낙후된 옛 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부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계획된 프로젝트이다.

창원 더 시티 세븐의 키워드는 '장소성'이다. 건축은 단순히 보여 지는 것 이 아니라 사람들의 뇌리에 지워지지 않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색다 르고 좋은 느낌의 경험은 사람들을 불러들이며 가보고 싶거나 또 오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더 시티 세븐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주거, 쇼핑, 업무, 엔터테인먼트,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독특한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배치계획_배치계획 및 조형계획에서는 원래의 경시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주안점이었다. 가로 및 도시 축에서의 대응성을 갖기 위해 상업시설을 가로변에 배치하고 오피스텔 타워와 주차장은 후면에 놓아 오피스텔의 진입은 후면의 높은 레벨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건물의 느낌은 지형이 그대로 레벨을 따라 흘러내리게 하고, 태초의 분화구를 연상시키는 원추형 매스를 위치시키며 빙속을 향해 혹은 하늘을 향해 펴고 들어가도록 하였다. 거대한 호가 원추형 매스들을 관통하며 지나가고 사람들은 원추형 매스를 따라 둘며 아래로 흘러내린다. 사람들은 건물의 입구에서 본인이 여행을 마칠 때까지 예측하지 못한 공간감과 모두 다른 경험을 하게된다. 또한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입체적으로 다가오도록 계획하였다.

상업시설_30,000평 규모의 상업시설 부분은 스트리트 블, 할인매장,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 여러가지 상업 문화요소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도시속의 복합문화 워릭단지로 구상하였다. Canal은 연계시설 부지를 관통하여 흐르도록 하였고, 배후 오피스텔 시설과 상업시설을 자연스럽게 분





주경

상업시설 전경



롯데월드 타워

전경

리시키며, 옥외공간의 중심적 친환경 공간으로 단지 전체에 활력을 넣어주는 동시에 창원 시민들의 휴식 및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축물은 단순한 보여지는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체험의 대상이 되며 공간체험에서 얻어진 인상은 방문객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있게 된다. 특히 상업시설 공간은 이러한 방문객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간체험을 통해 장소성을 창조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형태적으로 일련의 원주형 매스들은 보행자 통로에 의해 관통되어지며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갖도록 구성되었다.

상업시설 옥상지붕에 단겨진 '볼'은 호수처럼 진잔하다가 보행자 램프의 벽면을 타고 훌러내려 각 Cone의 외부를 따라 둘며 입체적으로 훌러내린다. 쇼핑 객들은 열려진 공간과 닫혀진 공간의 변화를 체험하며 발열을 흐르는 수공간과 함께 유기적이며 시연스러운 흐름으로 이동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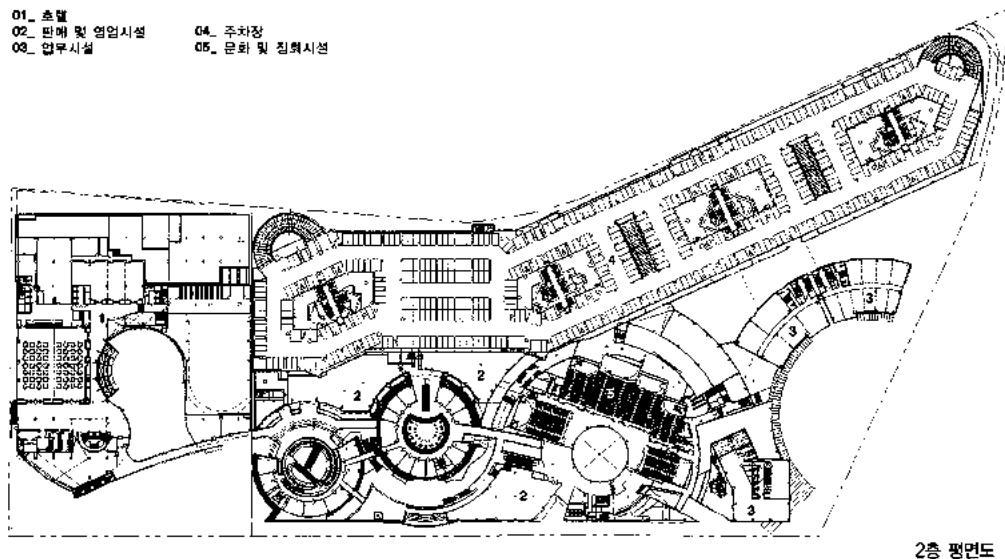
호텔 300실 규모의 호텔 및 부대시설은 컨벤션센터 연계시설의 중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시설로 전면도에서 인자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였고, 도로에 면하여 대형 공개공지를 제공하여 컨벤션센터와의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객실은 충마다 다른 인테리어 설계를 적용하여 같은 스탠다드 객실이라도 나약한 공간의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호텔이 단순한 숙박의 기능만

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다양한 공간 및 문화 체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부대시설로는 회원전용 스포츠센터와 600명의 수용이 가능한 연회장 및 소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컨벤션센터의 보조적인 기능을 하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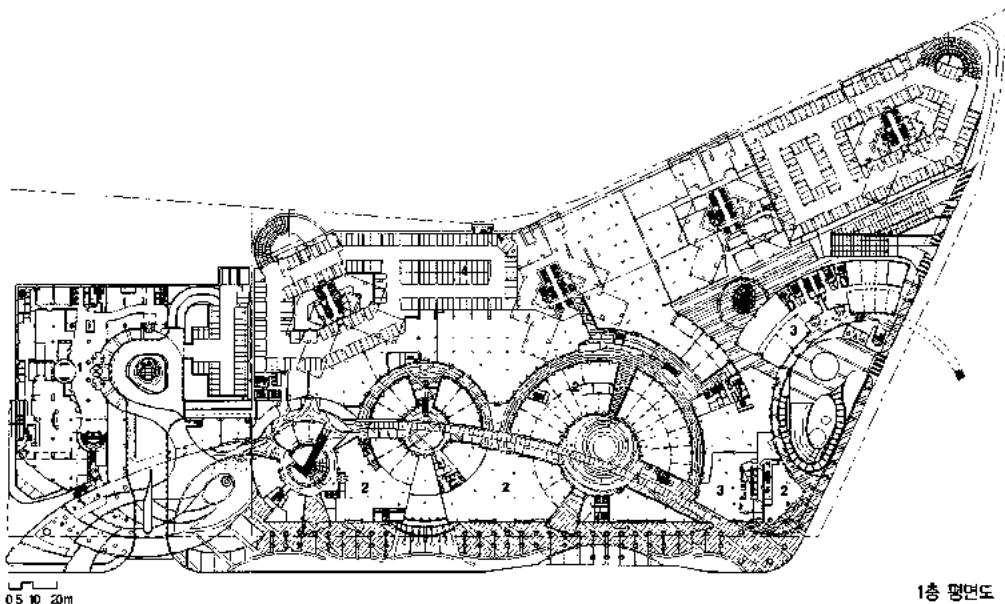
오피스텔 오피스텔 타워는 4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타워는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위치한다. 모든 Unit은 남향으로 배치되었고, 탁 트인 조망과 충분한 일조를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었다. Unit의 전면은 대상공원을 향하며 후면은 창원천 및 단독주택지를 연하고 있어 어디서나 열린 조망을 가질 수 있다.

1층 로비는 높은 층고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호텔 로비를 연상시키며 각 동마다 부대시설을 가지고 있다. 최상층에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스카이라운지에서의 휴식이 가능하다. 특히 옥탑부 디자인은 크리스탈을 다듬어 놓은 것 같은 형태이며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계획하였고, 유리로 마감해 내부의 조명이 외부로 새어나와 인근에서 보면 등대와 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의도하였다. 오피스텔은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의 질, 품위있는 부대시설, 다이나믹한 탑상형 외관 등 창원 지역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선택의 경험을 제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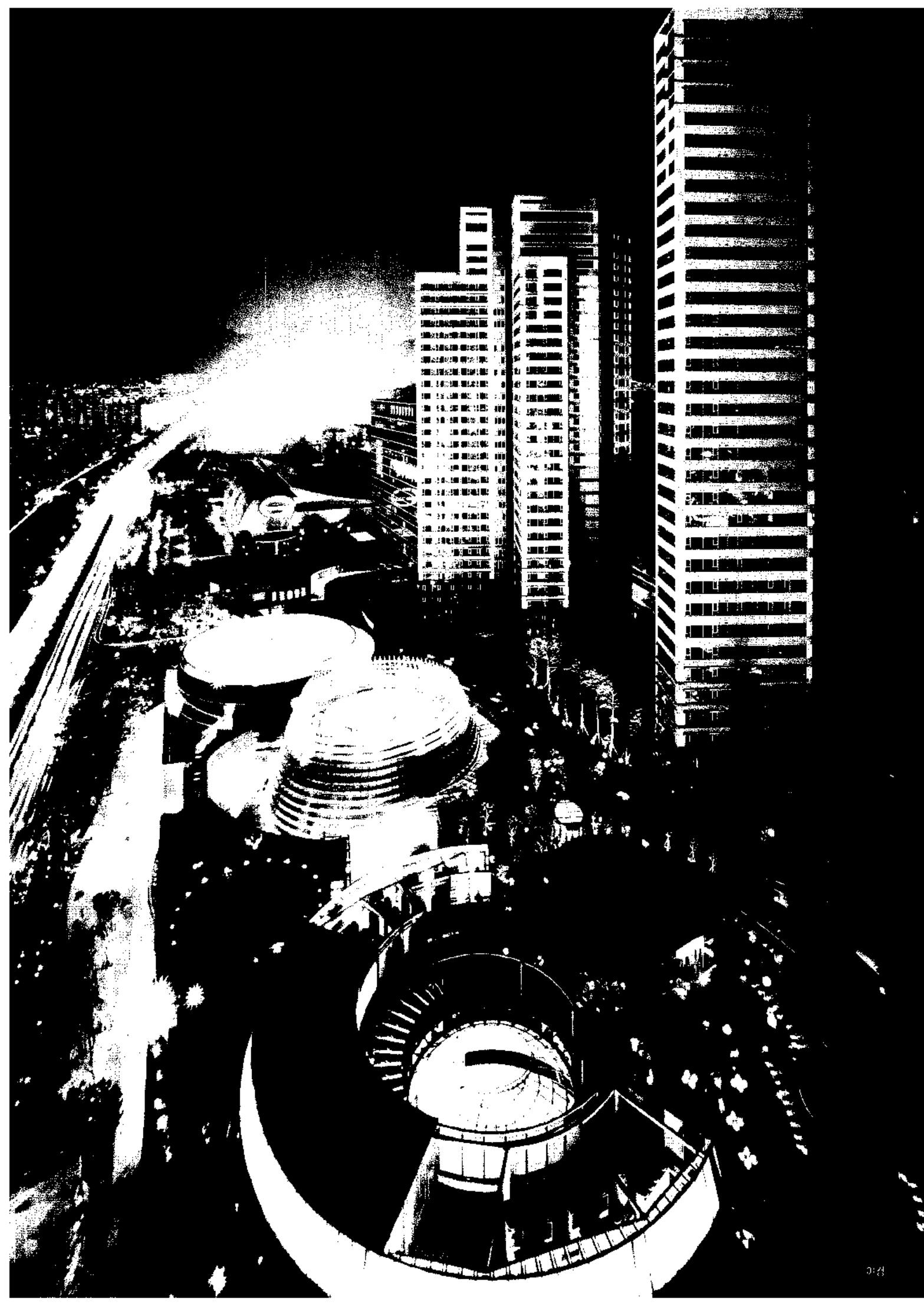
01_초발
02_민예 및 영업시설
03_업무시설
04_주차장
05_문화 및 친화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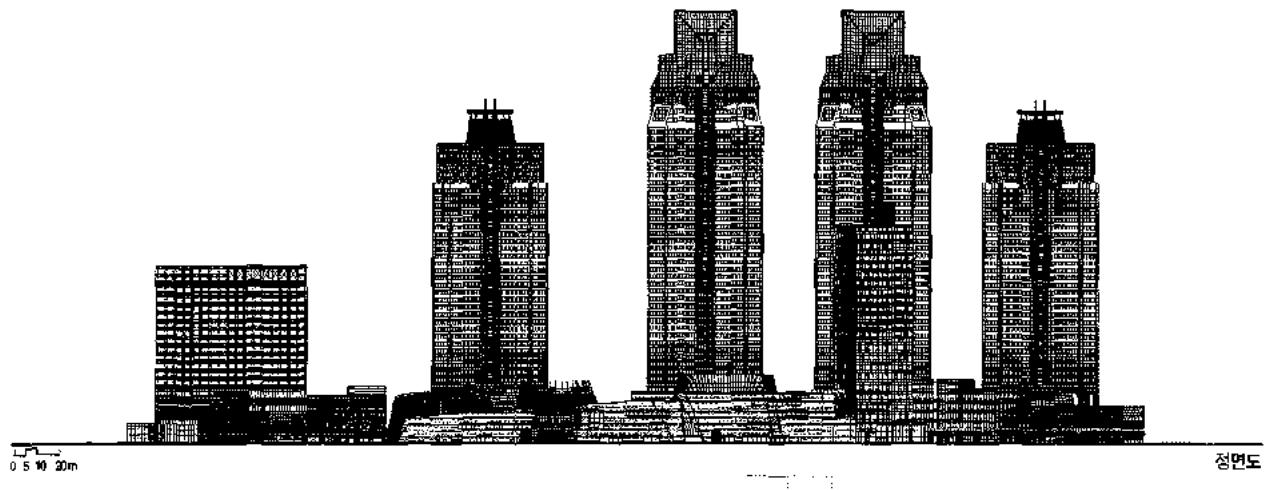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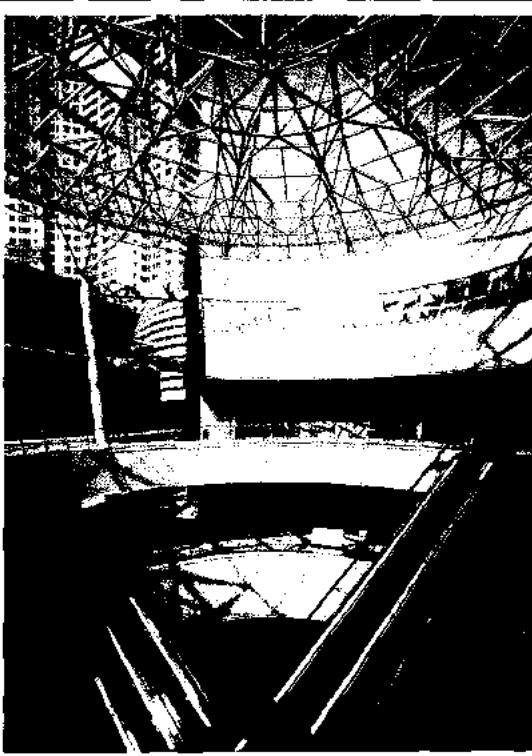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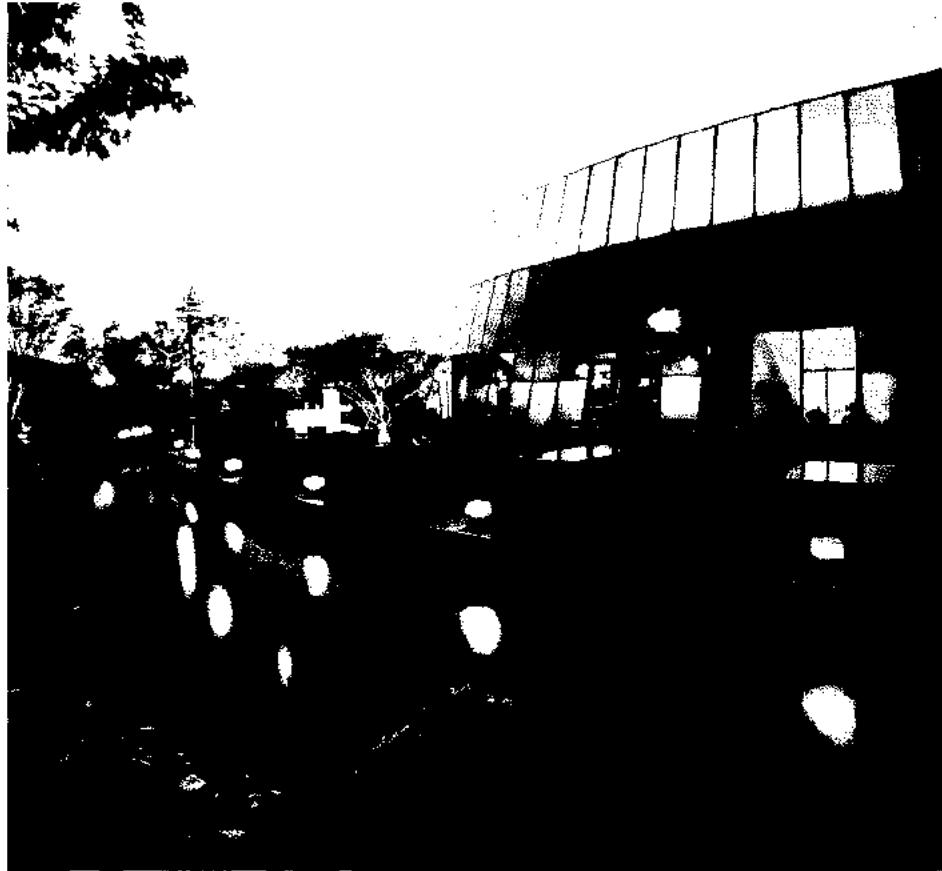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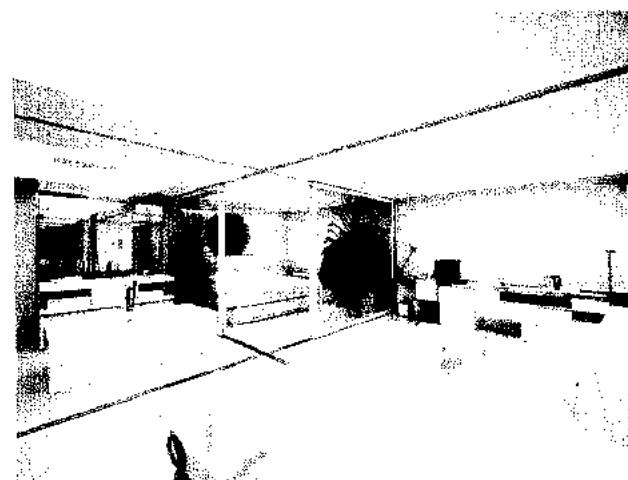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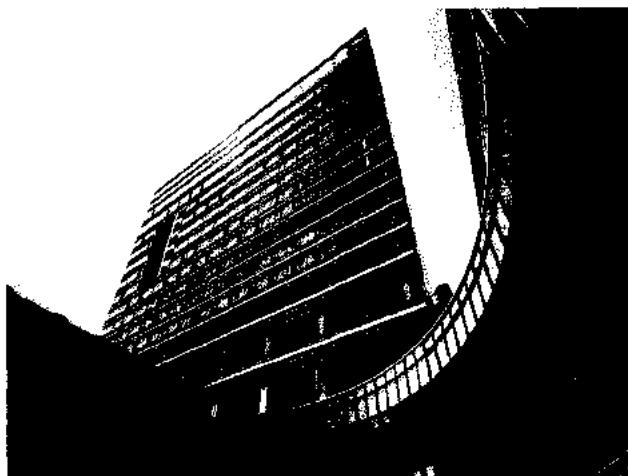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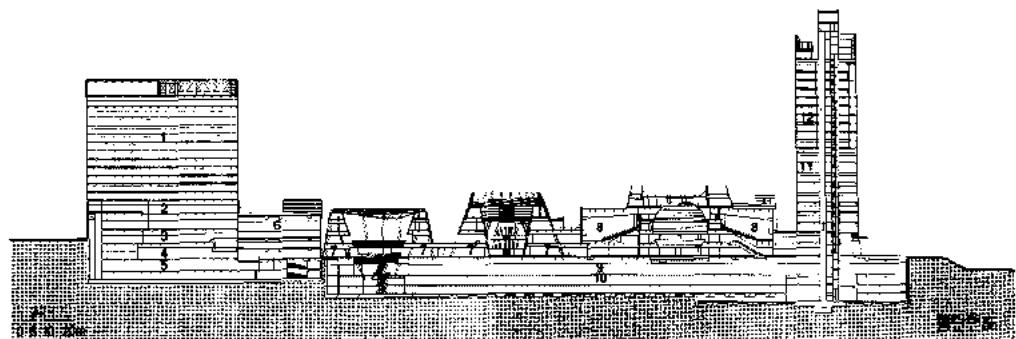


1. 상업시설 어스본
2. 상업시설 유아문 유통 수공간
3. 상업시설 어스본
4. 상업시설 스키아운
5. 상업시설 유아문
6. 환별 전경

7. 초월 뷰비
8. 상업시설 내부 수공간
9. 초월개설 내부



- 01_ 개설홀
 02_ 스포츠 로비
 03_ 연회장 출입
 04_ 호텔 로비
 05_ 주차장
 06_ 스포츠연습장
 07_ 판매시설
 08_ 연회관
 09_ 할인매장
 10_ 자하주자 창
 11_ 오피스
 12_ 숙박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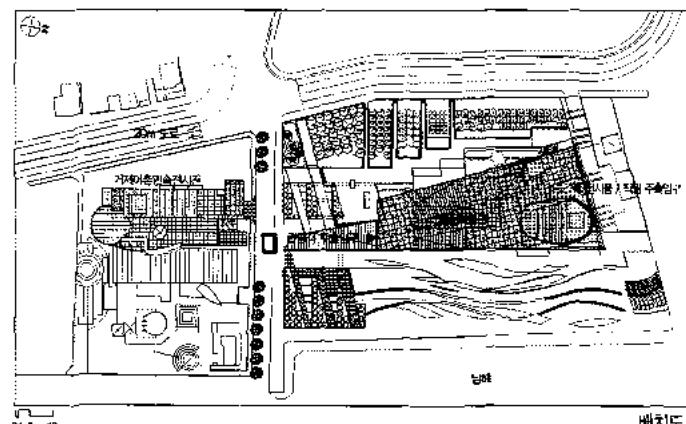
제8회 경상남도건축대상제 금상 수상작

거제 조선 테마파크

Geoje Shipbuilding Theme Park

김용미 / 정희원,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Yong-mi, KIRA



면적 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일원면 자세포리 1동에	주	조	침공구조, 철골침구조크리트조
면적	부지면적	외부마감	내부마감	타타늄아연판, 알루미늄침강풀판
면적/지목	면적/지목: 시설보호지구	외부마감	내부마감	알루미늄쉬트, 투명복층유리
주요용도	문화 및 휴식시설	외부마감	내부마감	화강석, 인조디리석, 목재초토랑 등
내부면적	15,289.94m ²	외부마감	내부마감	설비설계: 삼우설비
기축면적	2,436.42m ²	구조설계	구조설계	단구조
전 면적	15,842.97m ²	구조설계	구조설계	경기현자(나라한주)
건 배 율	15.89%(법정70%)	전시설계	전시설계	(주)시공데코
총 적 량	27.80%(법정300%)	사 공 사	사 공 사	(주)대재로건
규	도 지하 1층, 지상 5층			
도				

거제 조선 테마공원은 우리나라 최대 조선 산업도시로 성장한 거제사를 성장하고 해양조선의 역사성과 문화부각을 위한 조선박물관 건립 프로젝트이다.

첨단 조선 산업과 거제시의 이미지를 표방하며 자세포의 랜드마크로 자리하게 될 조선박물관은 접근이 용이할 것과 바다로 틱 트인 조망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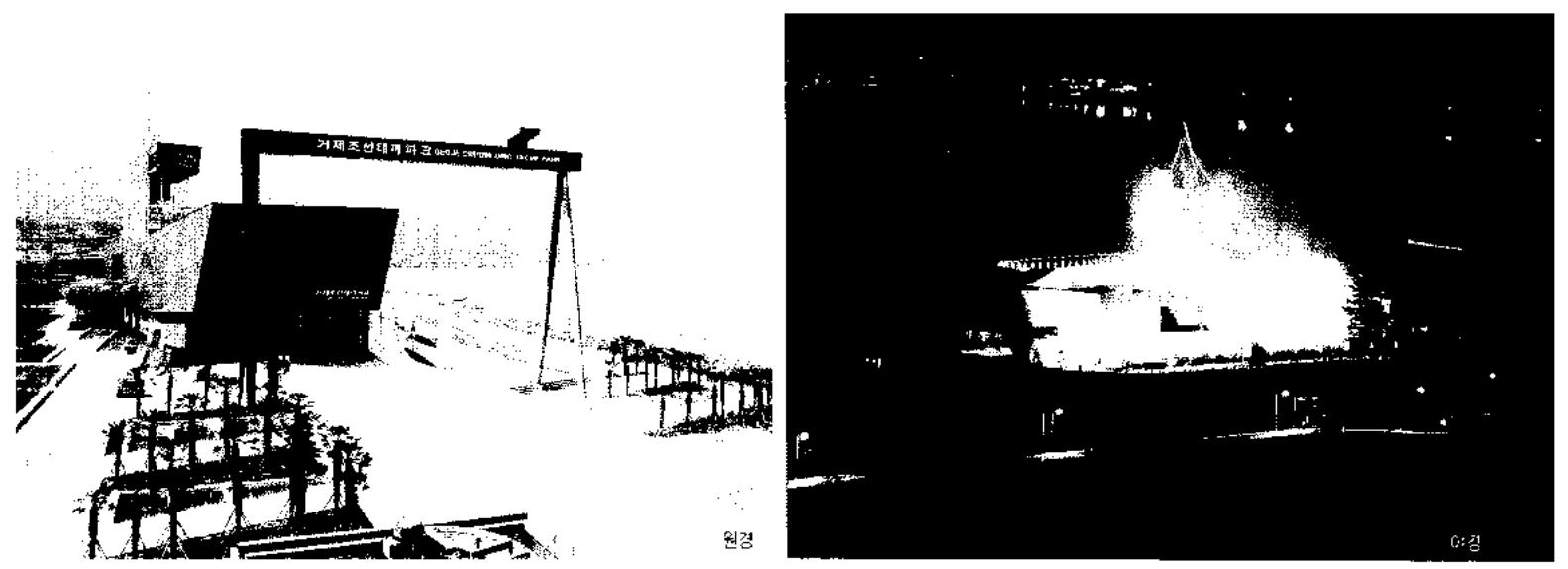
거제의 지역성을 부각하고 조선박물관 고유의 독창적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건물 전체를 자연위로 띄워 항해하는 배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내외부 곳곳에서 선박을 연상시키는 공간적 장치를 하였다.

최첨단 조선산업 중심지 / 전진하는 선박이미지 떠있는 선박의 육중한 불룩감, 날렵한 형태, 전망함 수직 요소, 갑판의 수평 요소, 둑내 등 바다로 전진하는 듯한 동적 조형물들의 조합은 내후성강판, 투명유리 등의 재료적 표현과 더불어 첨단 조선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 아울러 골리앗 크레인을 통해 들어올려진 벗머리 하부로의 침입(승선), 갑판, 조타실(전망대) 등이 조선소와 연계되어진 선상 공간체험에 사실적 상상력을 더하며, 자세포 해안과 어우러진 거제의 선세는 조선박물관을 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물로 완성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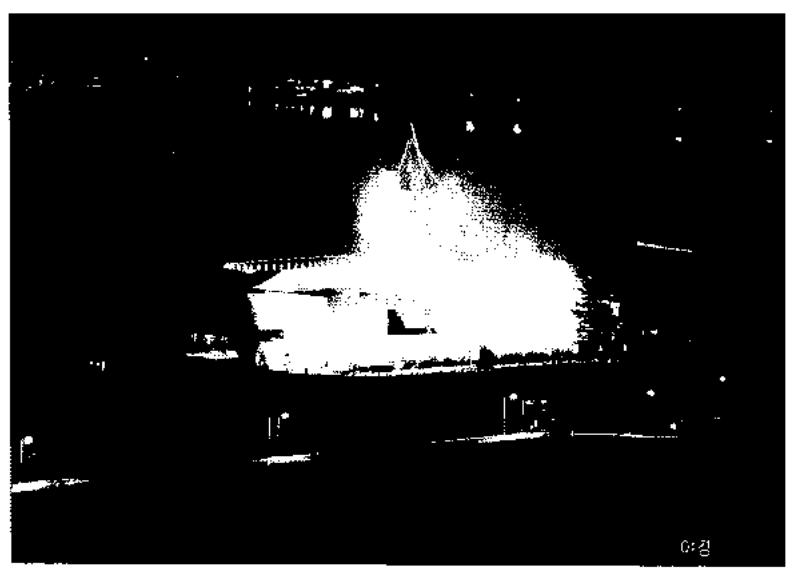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땅 / 바다를 향해 열린 배치 기존의 거제 어촌민속전시관과 조선박물관 부지간의 효과적인 공간배분을 통해 각 시설간 연계성을 도모하고 관리운영의 효율적 제고로 상호 상승효과를 높이도록 하며, 2개의 전시관이 한 단지 내의 해양공원을 형성하도록 공간을 배분했다. 사이의 보행로는 해변에 일직선으로 위치하여 바다 쪽으로 닥트인 조망을 확보하고 송립은 잔디와 해송 등으로 자연친화적인 조경요소를 도입하여 야외전시, 향후 계획될 매점 등의 편의시설과 함께 관람객에게 휴게 및 전망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첨단 조선산업의 이미지 부각_정박해 있는 듯한 선박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금속재, 투명한 유리, 석재 등 재료의 조합으로 조선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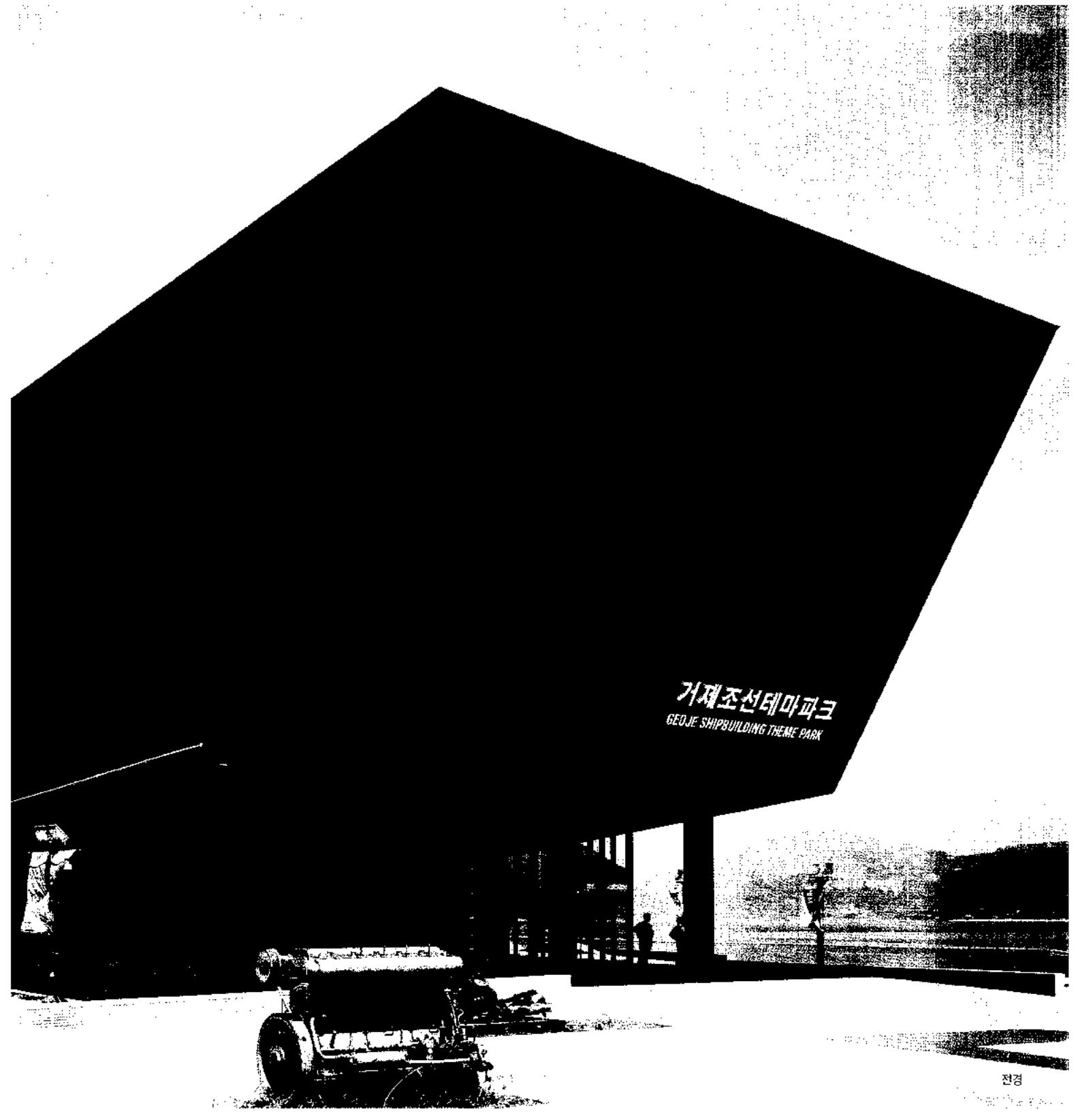




원경



여경



거제조선테마파크
GEOJE SHIPBUILDING THEME PARK

전경

를 표현한다. 떠 있는 선박의 육중한 매스, 날렵한 형태, 사선 요소, 수평적 요소, 둑대 등 현대적 조형 요소를 강조하여 바다로 전진하는 듯한 동적 조형물로 계획한다. 전진할 듯한 날렵한 형태에 거제의 산, 전망탑(엘리베이터 탑) 등을 더하여 선박 이미지가 한껏 강조되고, 조선박물관은 하나의 조형물로서 지역의 특색 있는 건축물로 완성된다.

관람순서에 따른 공간 분할 및 연계_진입은 벗어머리 하부로 계획된 경사로를 통해 내부 출로 들어서게 되고, 출은 바다 쪽으로 조망을 충분히 확보하여 승선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전시홀은 로비 기능과 함께 기획전시, 각종 행사 등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긴어 킨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열린 전시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웠다.

전시 동선의 마지막에 안내된 2층 출은 바다로 틱 트인 조망을 확보하고, 전망대로의 연결을 엘리베이터로 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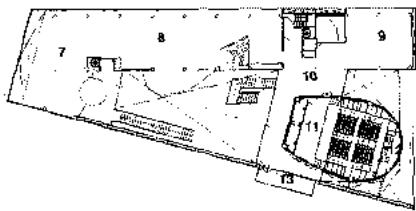
전망대는 선박의 조타실 이미지로 조선박물관 전체 대지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야외 휴게데크에는 노천카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관람객 휴게시설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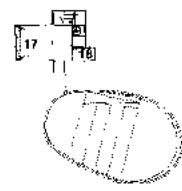
남해에서 바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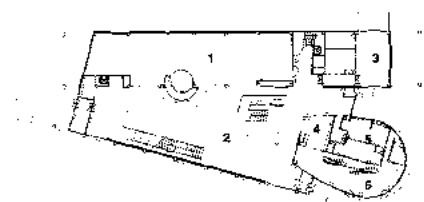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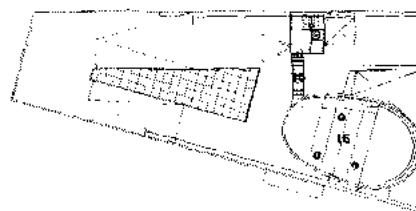
2층 평면도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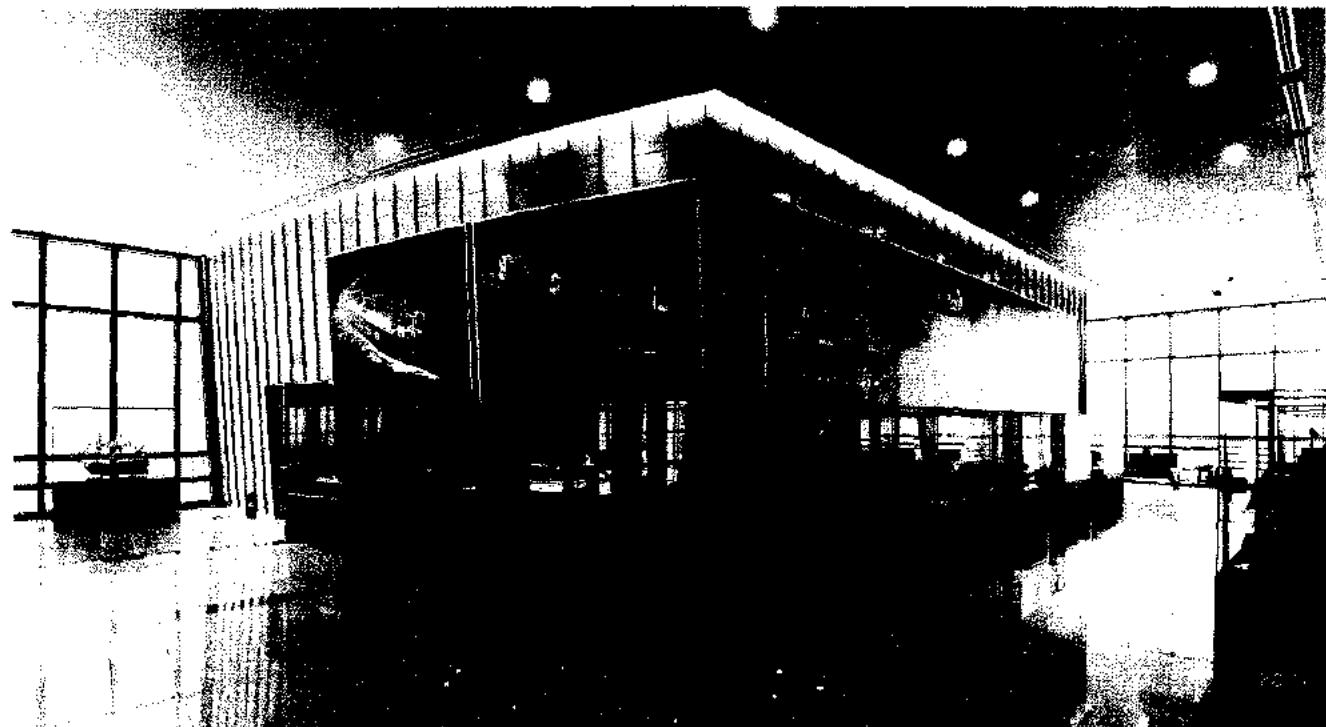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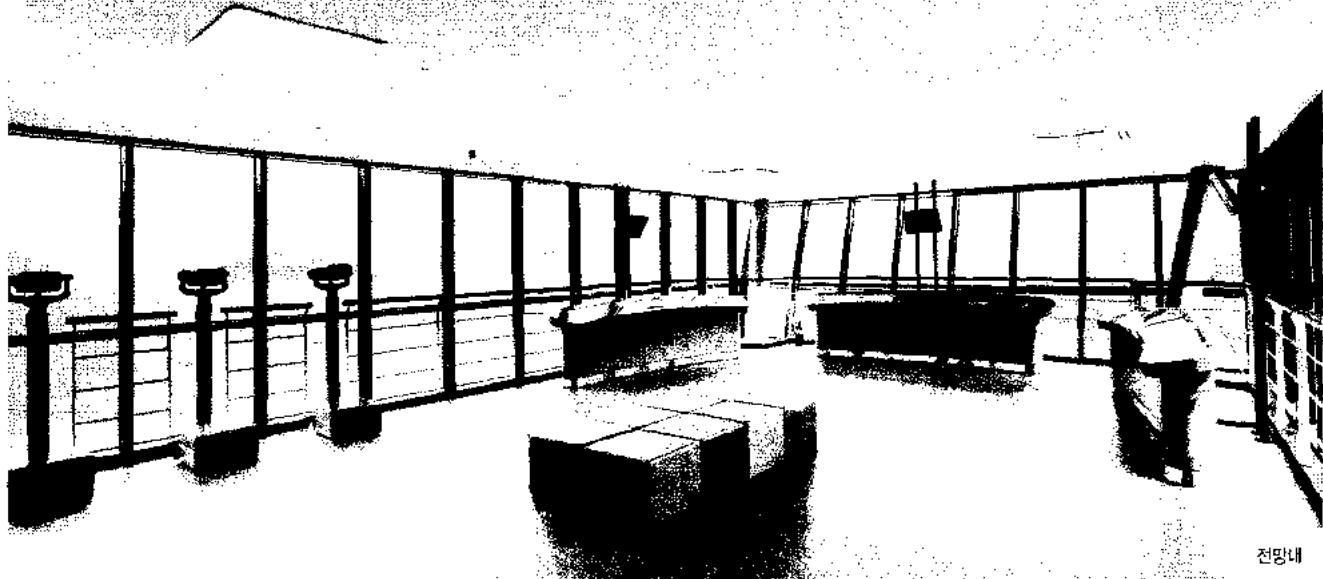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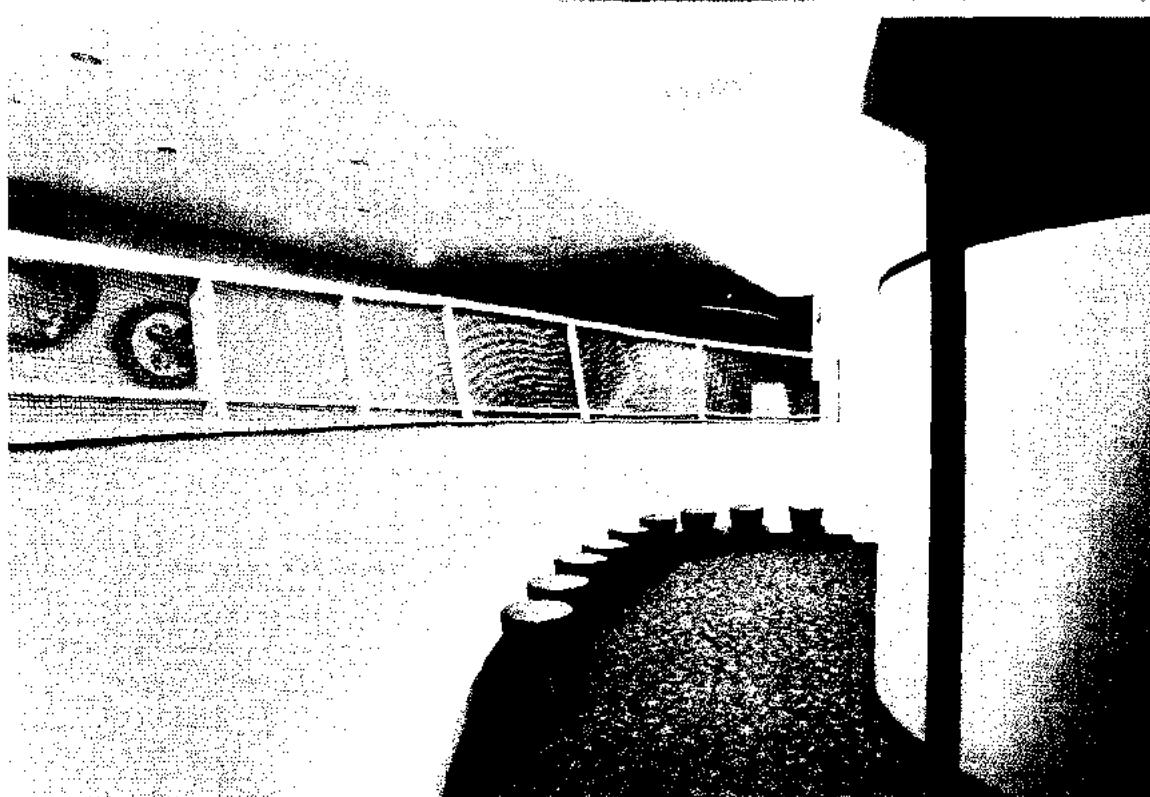
4층 평면도

- 01_ 어린이조선소
- 02_ 흙, 르비
- 03_ 사우실
- 04_ 뮤지엄숍
- 05_ 화장실
- 06_ 카페테리아
- 07_ 제2도크 조선역사
- 08_ 제2도크 조선기술
- 09_ 제3도크 해양미래
- 10_ 흙, 보도
- 11_ 영상관(80석)
- 12_ 열상관 조정실
- 13_ 발코니
- 14_ 연결브리저
- 15_ 아외후게, 전망
- 16_ 전망대
- 17_ 아와전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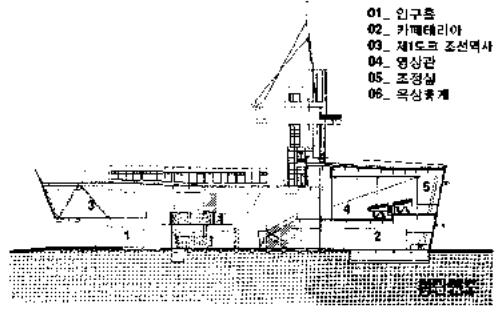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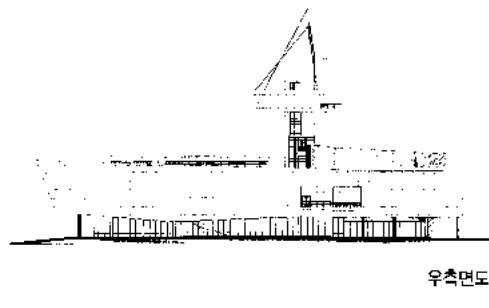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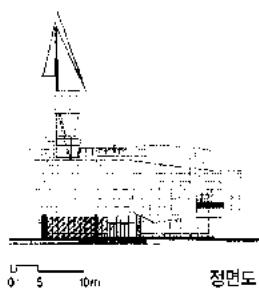
전망대



2도크 조선기술관 앞



세3도크 해양비래관



페리아



영상관

제8회 경상남도건축대상제 은상 수상작

창원 YMCA 친환경 생태체험 정보센터

Chang-won YMCA

신삼호 / 정희원, (주)유엔에이 건축사사무소

by Shin, Sam-ho, KIRA

임학만 / 정희원, (주)유엔에이 건축사사무소

by Lim, Hack-man, KIRA



설계의 목표가 획기적이었다.

이 건물은 설계의 목적부터 달랐다.

YMCA회관 건립의 첫 번째 목표는 친환경건축물의 표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다. 기본적인 기능조건만 충족하고 그 외에 디자인을 결정하는 요소는 친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해달라는 요구였다. 설계조건이 너무 심플해서 건축사로서는 반갑기도, 다소 황당하기도(?) 한 주문이었다. 작업의 진행과정도 달랐다.

이 건축은 시작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지역의 환경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참여에 의해 건축적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공사는 유치원생의 코 묻은 돈에서부터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체들의 기부금에 의해 지원된 건물이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정성이 들어간 결과물이다.

이번 설계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취합하는 과정을 통해 친환경 건축의 의미를 모두가 공감하며, 학습할 수 있는 과정이 되었다.

이 건물의 주된 기능은 창원 YMCA 사무기능과 함께 부수적인 기능으로 지역의 초중등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친환경 생태건축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설계의 기준은 친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구비하는 것이 우선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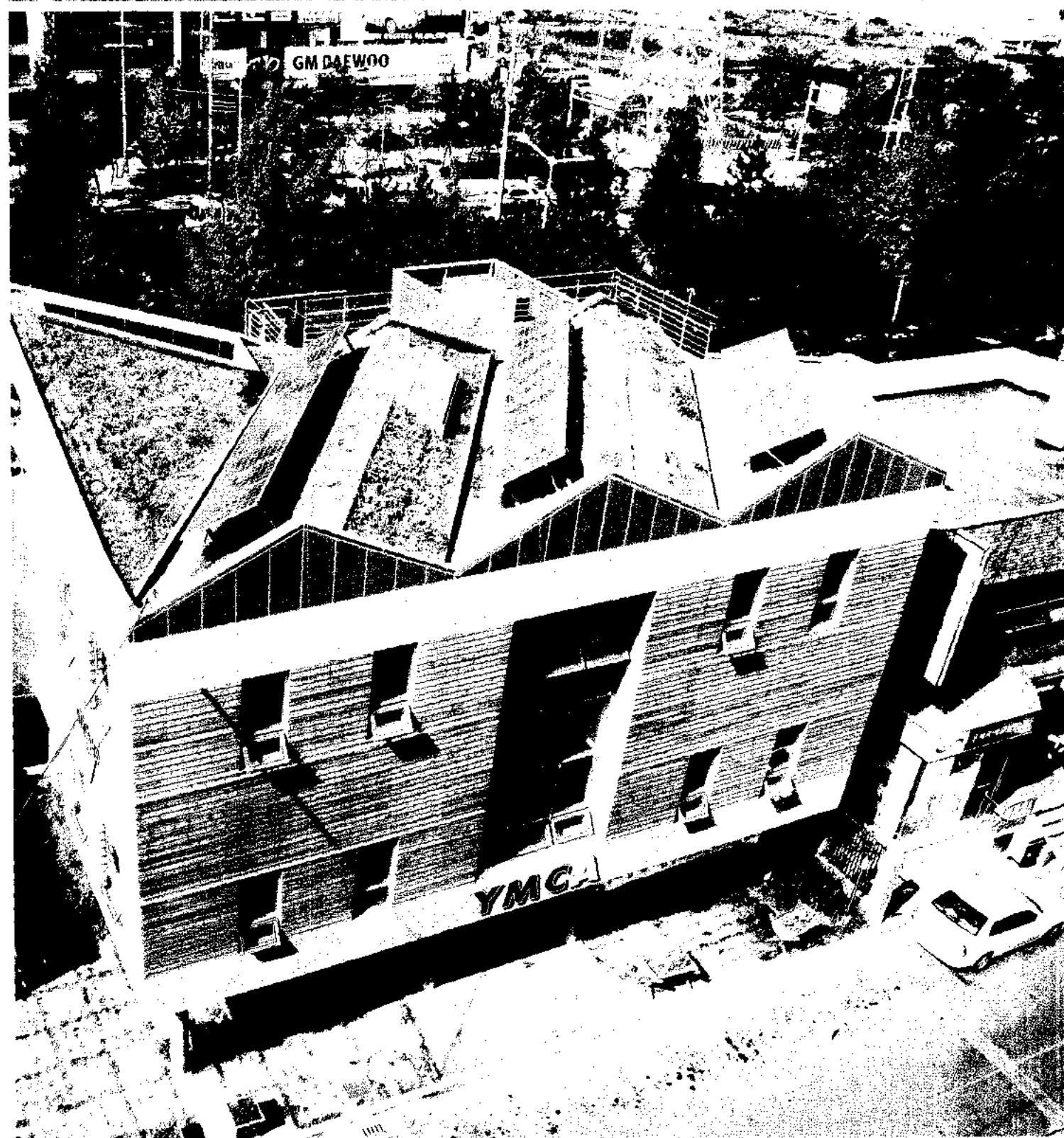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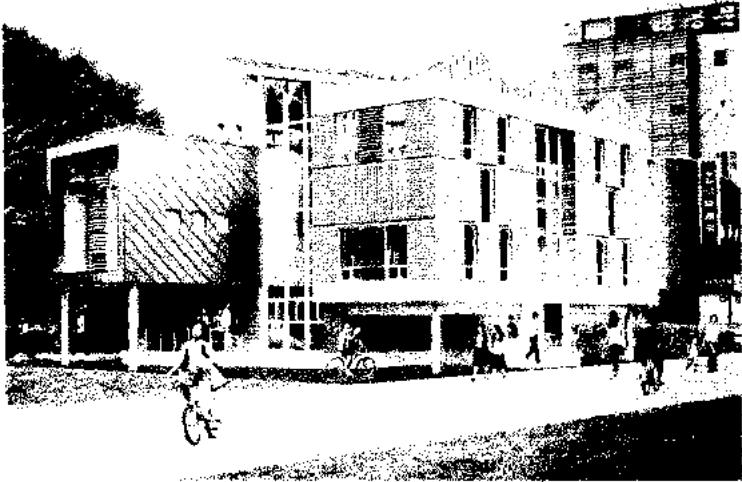
설계의 조건도 이에 부응하였다.

작업은 친환경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대지축 방향에 어긋나는 정남향으로 경사지붕을 두어 태양광판(Solar-cell)을 설치하고, 내부에 오픈된 부분은 태양광의 유입사 계절과 고도와 시간대에 따라 가장 유용한 상황을 고려하여 절곡형태의 지붕구조가 생기게 되었다.

중앙홀 부분에서 상·하로 열려진 공간은 채광 및 환기를 위한 기능적인 역할과 함께 실내 커튼월을 통한 상·하층 사무공간에 개방감을 주도록 하였다.

내, 외부 재료의 선정기준은 원자재와 석유관련재의 사용을 금하고, 재생재료나, 재생 가능한 재료를 우선으로 선택하였다. 내부는 아예 천정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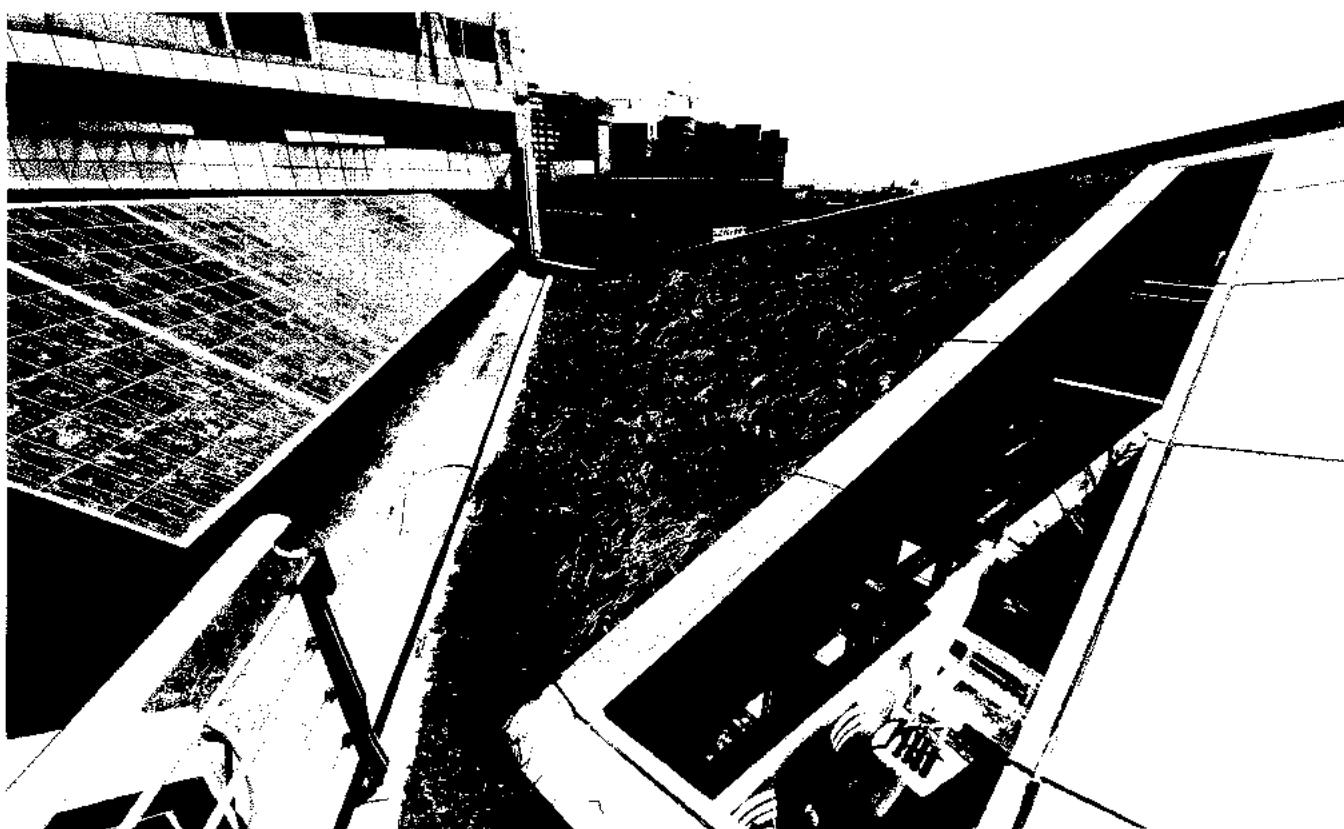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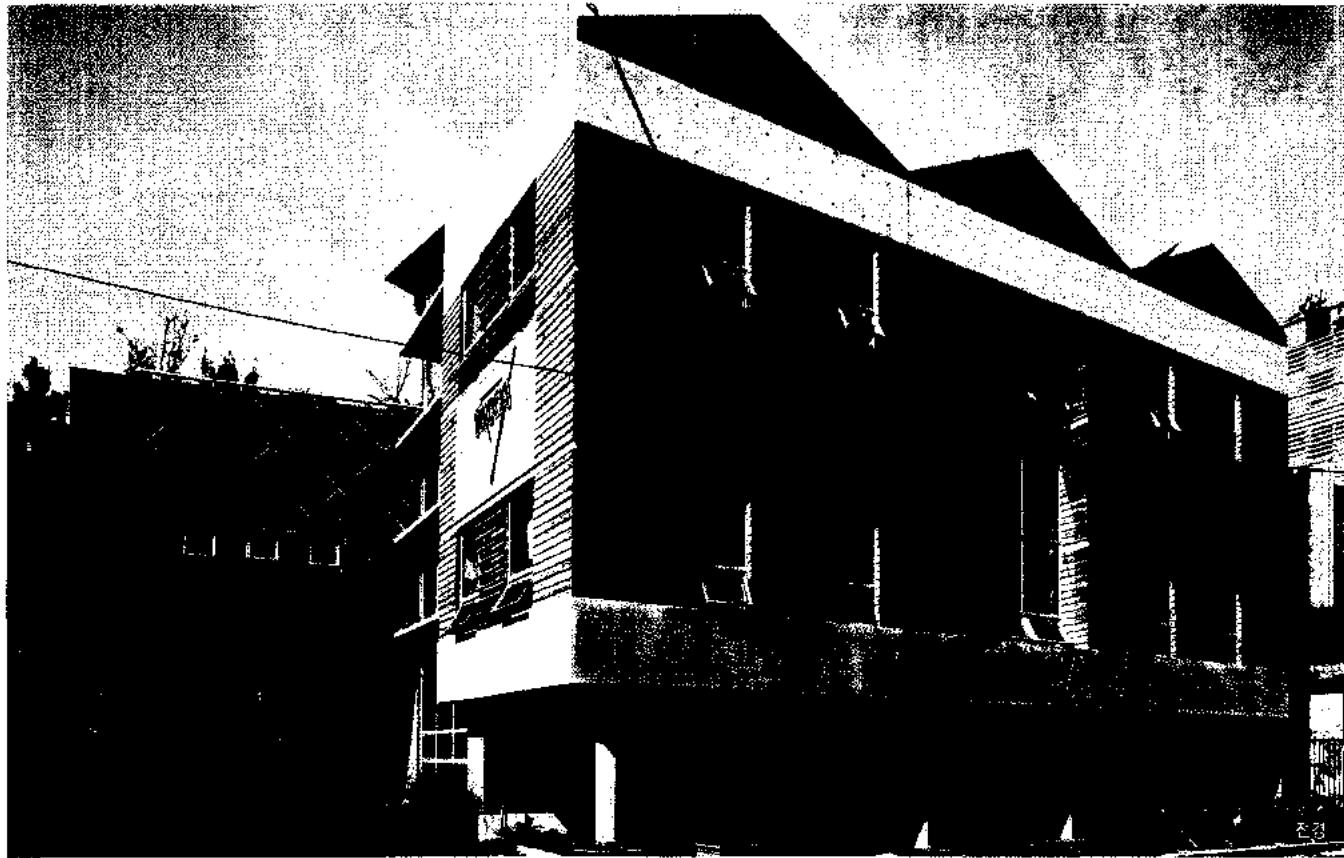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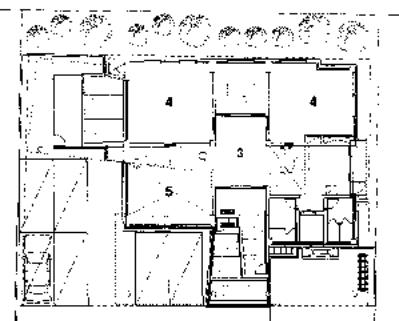
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마감재는 재생나무합판(OSB 보드)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내부 마감재로 잘 안 쓰이는 재료이지만, YMCA의 소박함과 친환경자재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건물 내, 외부를 견학하면서 '해를 담는 집, 바람이 머무는 집, 나무가 숨 쉬는 집, 비가 쉬어가는 집'의 개념을 체험할 수 있도록 19가지 요소들을 건물 내, 외부에서 보물찾기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건물의 구석구석에 친환경요소를 설명하는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 1층 외부공간에서 옥상정원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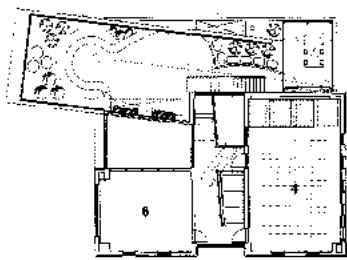
낱낱이 살펴야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시민단체에서 운영 프로그램으로 그간에 많은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견학을 다녀갔었다. 그리고 이번 건축과정을 통해 빗물재활용 시설을 설치시 창원시에서 상수요금에 혜택을 주는 법령개정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옥상녹화와 벽면녹화, 그리고 잔디블록, 태양광 발전 요소들에 의해 잘생긴 건물이 아니라 건강한 건물로 주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일조 하였으면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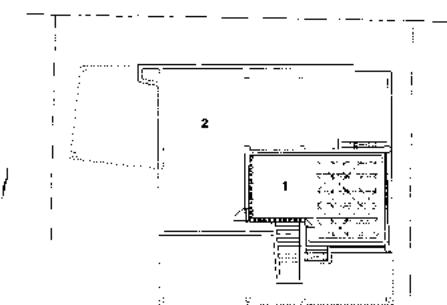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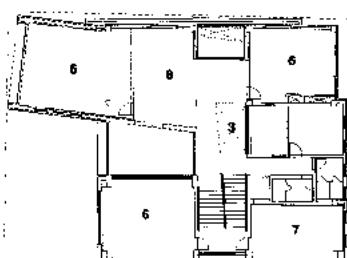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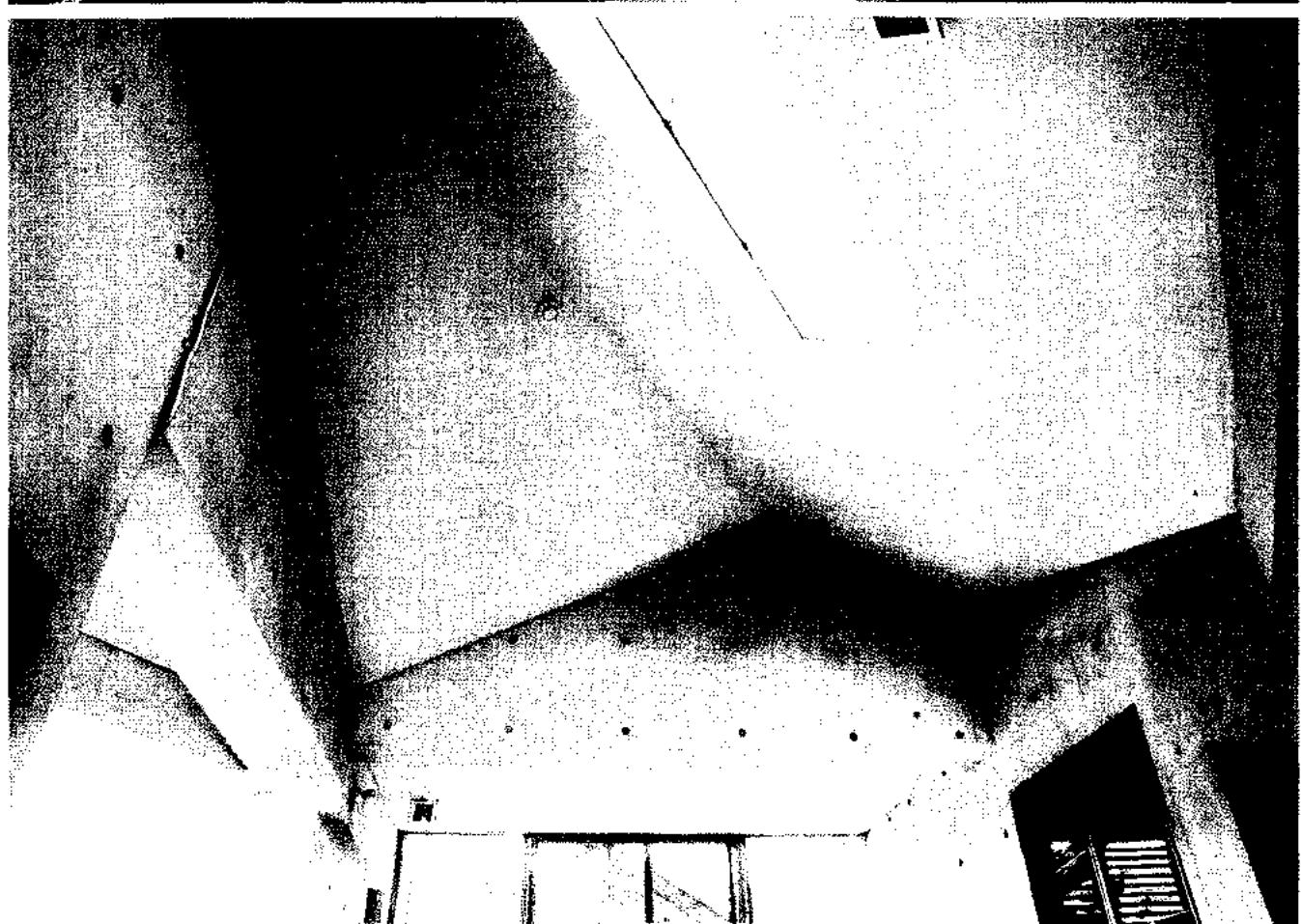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0 1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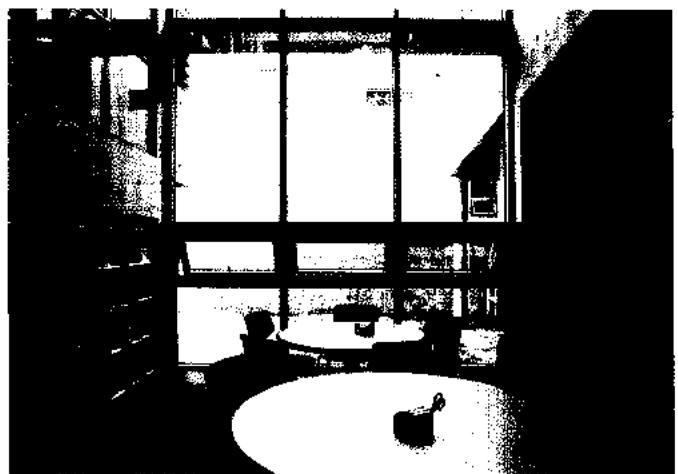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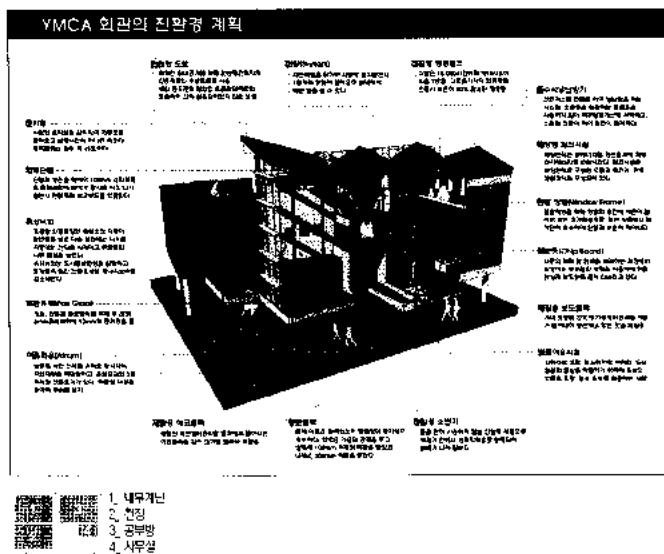
- | | |
|-------------|-----------|
| 01_ 풍텐브실 | 05_ 사우실 |
| 02_ 치즈 저장시설 | 06_ 고육실 |
| 03_ 올 | 07_ 시민증거실 |
| 04_ 접단지도실 | 08_ 생태교실 |







YMCA 회관의 진환경 계획



01_ 빗물 저정시설 04_ 시민증개설
02_ 물탱크실 05_ 교육실
03_ 종부방 06_ 디록적강당
07_ 음
08_ 지도자실
09_ 창고



제8회 경상남도건축대상제 동상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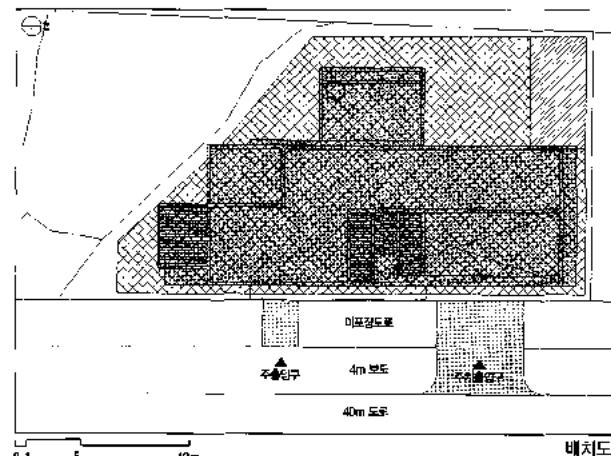
진해 예인여성병원

Yein Women's hospital

안용대 / 정희원, 가기 건축사사무소

by Ahn, Yong-dae, KIRA

대지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지곡동 813-1번지와 2길지 규	도	지하 1층, 지상 7층
지역구	일반주거지역, 제3종미관지구	구	철근콘크리트조
주요층도	의료시설(신부인과)	층	외부마감 라임스톤, 고발도록재페인
대지면적	955.00m ²	구조설계	우진구조
건축면적	504.87m ²	전기설계	광경도팀엔지니어링
연면적	3,066.31m ²	시공사	진경증합건설(주)
건폐율	52.67%	건축주	예인여성병원
총적률	246.92%	설계담당	김동준, 곽순한



진해는 진해항이 조용한 바다와 병풍처럼 둘러싼 불모산의 힘이 느껴지는 도시이다. 계획부지 주변은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다. 부지는 도로전면의 폭이 넓은 비정형의 마름모 형상이다. 부지 남, 서쪽으로 진해항의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고, 서쪽에서 동쪽으로는 해발 400m의 불모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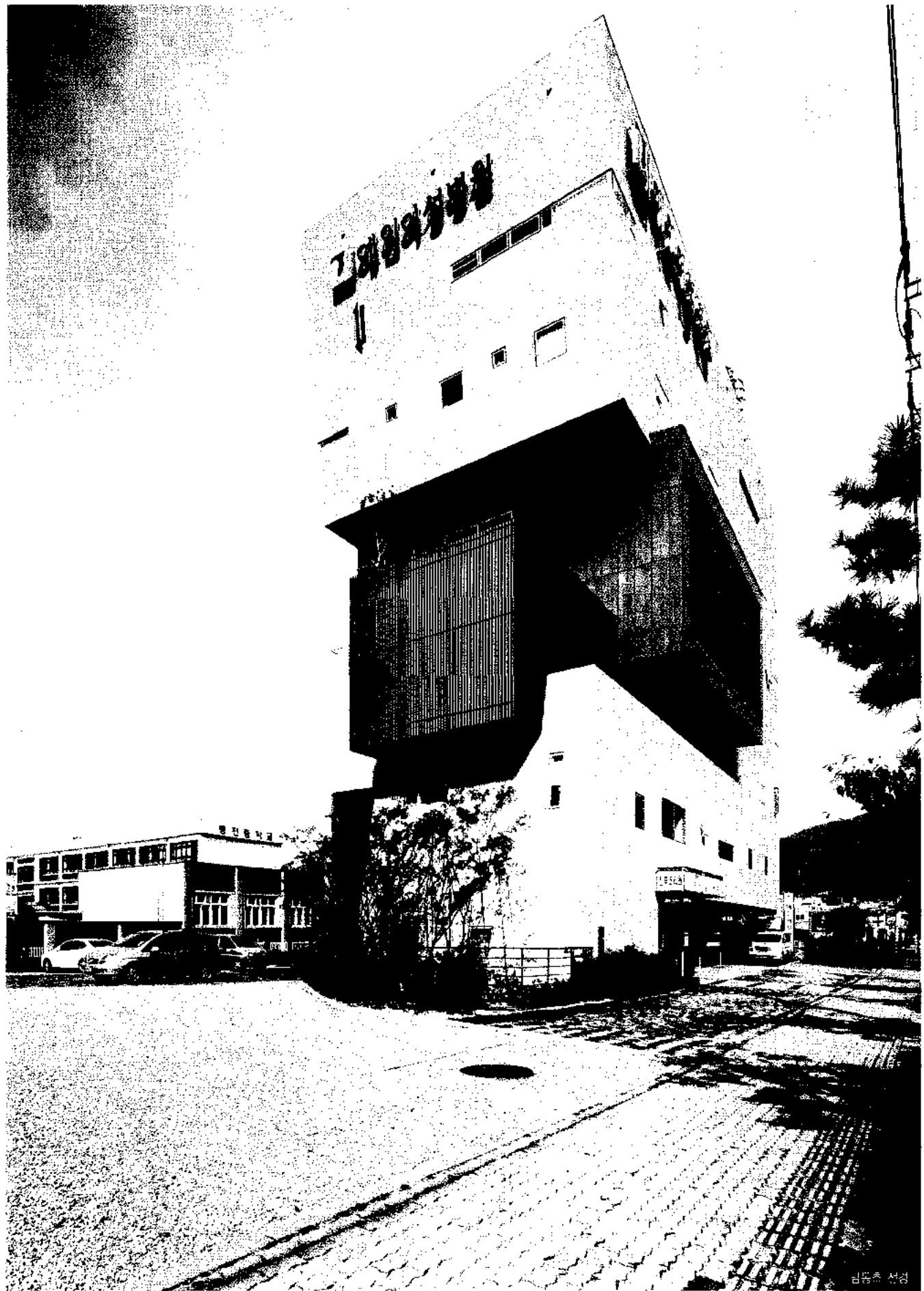
이미지는 진해의 모습을 담고자 한다. 불모산의 덩어리는 꼬리를 튼 석재 마감의 선형메스로 표현되고, 도시와 바다는 그 사이에서 담아둔다. 관입되는 매스의 재료는 목재매달과 알루미늄 루버로 마감된다. 각기 다른 재료가 만나는 접합부는 내, 외부 공간으로 남겨지고, 병원의 휴게 기능을 담당한다.

병원은 대외적으로 병원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능적으로는 병원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부인과라는 단일기능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복합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소아과, 피부관리(지하 1층), 산부인과 외래진료(2층), 분만(3층), 병실(4, 5층), 산후조리원(6층), 부속시설(7층)의 각기 다른 기능은 건물의 매스와 재료를 달리하면서 표현된다.

내부공간의 주된 포인트는 부지 남서쪽으로 열려 있는 바다와 산으로의 조망확보, 낮은 용적률은 지하공간의 활용이 요구되고, 지하와 지상을 연결하는 내외부의 중정은 건물의 표정을 부여한다. 2층 외래부의 내부를 외부 공간으로 연장하는 데크, 병실층 중복도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한 성원과 발코니, 식당층의 분위기 연출을 위한 옥상정원, 층을 달리하면서 나타나는 오픈스페이스는 내부공간과 외부 풍경을 담아내는 그릇이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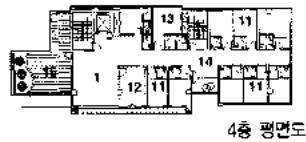






김동주 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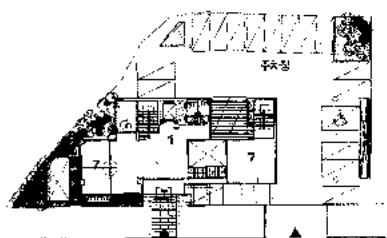
01_ 층
 02_ 권무과
 03_ 소아과
 04_ 경사실
 05_ 전기실
 06_ 기계실
 07_ 근민정을시설
 08_ 전발실
 09_ 예진실
 10_ 일반외과
 11_ 병실
 12_ 펜트도방
 13_ 토실
 14_ 허게그간
 15_ 허게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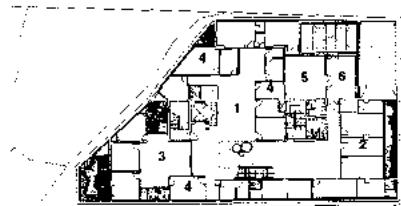
4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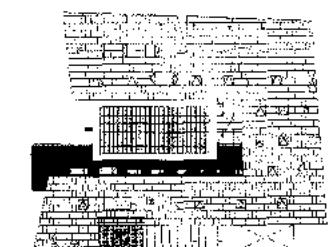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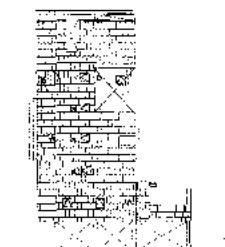
0 1 5 10m



수영장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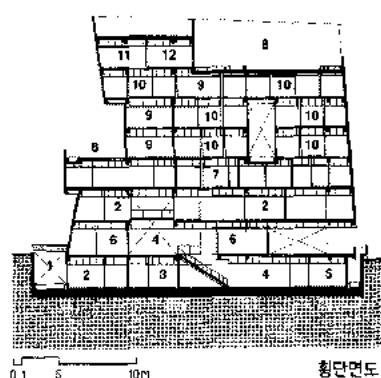


우측면도

01_ 선관
 02_ 전로실
 03_ 검사실
 04_ 층
 05_ 애스 래픽
 06_ 근민정을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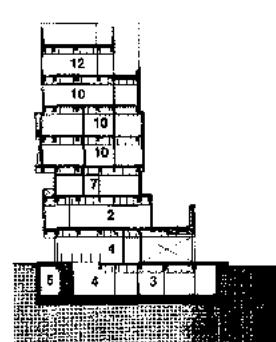
07_ 수술실
 08_ 허게정원
 09_ 허게홀

10_ 병실
 11_ 주방
 12_ 식당



0 1 5 10m

횡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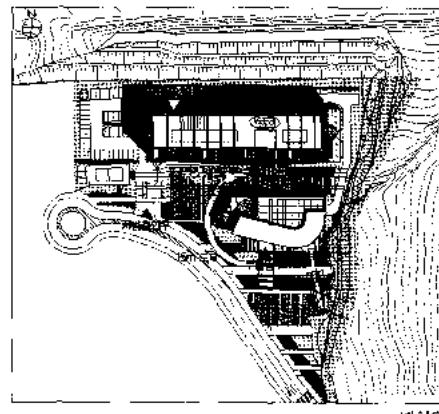
옥상정원(8층)

한국 파스퇴르 연구소

Institut Pasteur Korea

안길원/ 정희원, (주)무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An, Ki-won, KI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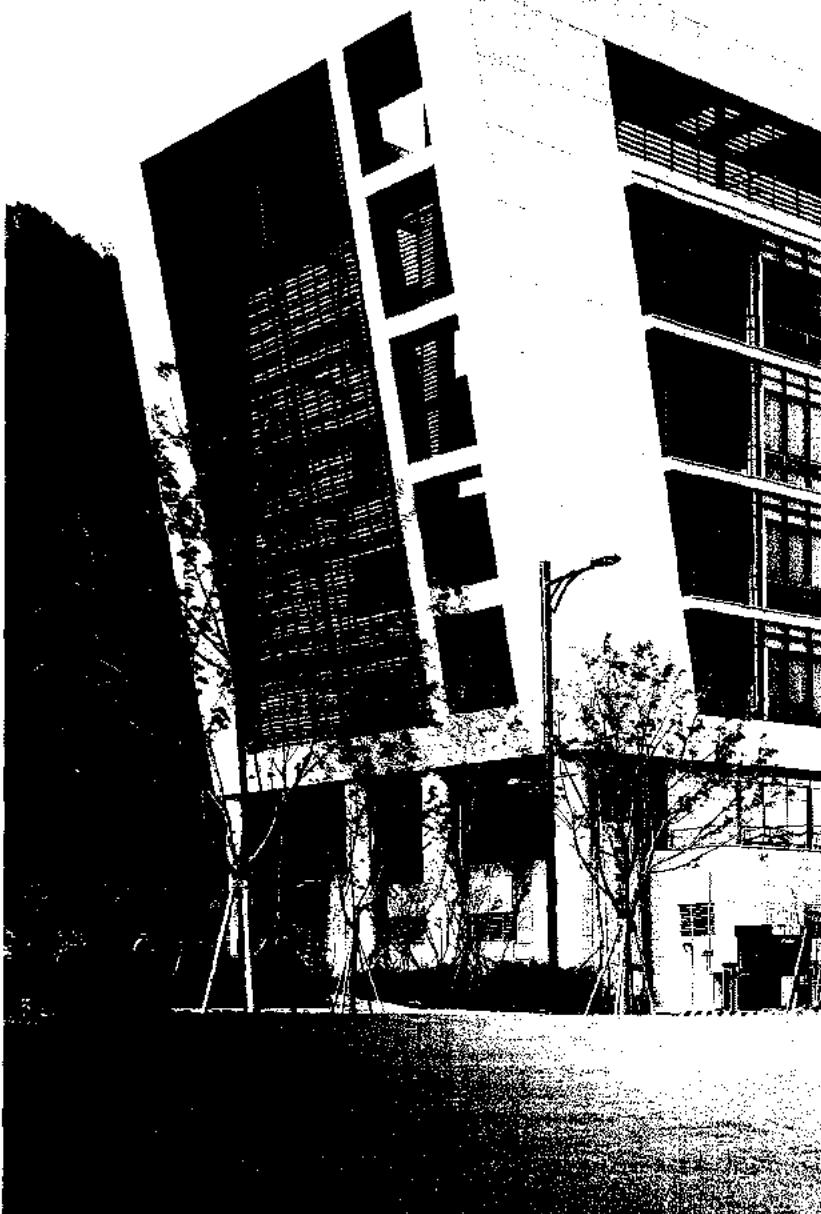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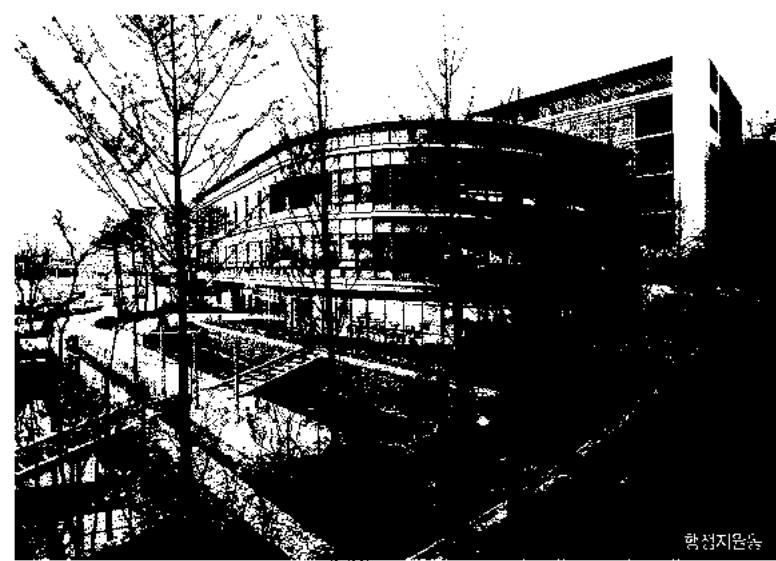
배치도

제작자/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판교신도시 700 일부서구내	제작자/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판교신도시 700 일부서구내
지번/구역: 혼천사지역	화물마장, 복승유리, 일주이등, 노점마을,
주소/동로: 혼천사로	화강석, 목재마루
면적면적: 14,287.00m ²	설비설계: 주)한진엔지니어링
건축면적: 4,084.82m ²	구조설계: 주)C-건축·나이 dön
연면적: 14,362.52m ²	환경설계: 한양건설(주)
건폐율: 28.45%	시공자: 태영
종적률: 86.38%	건축설계: (재)파스퇴르연구소
층수: 지상 7층	설계감독: 오준희, 남승열, 신권록, 구정모,
주제: 혼천산글로벌리움, 일부 학교	전명재, 허진원, 엄창오, 김주현,
	최기원, 김사현, 조종인, 손호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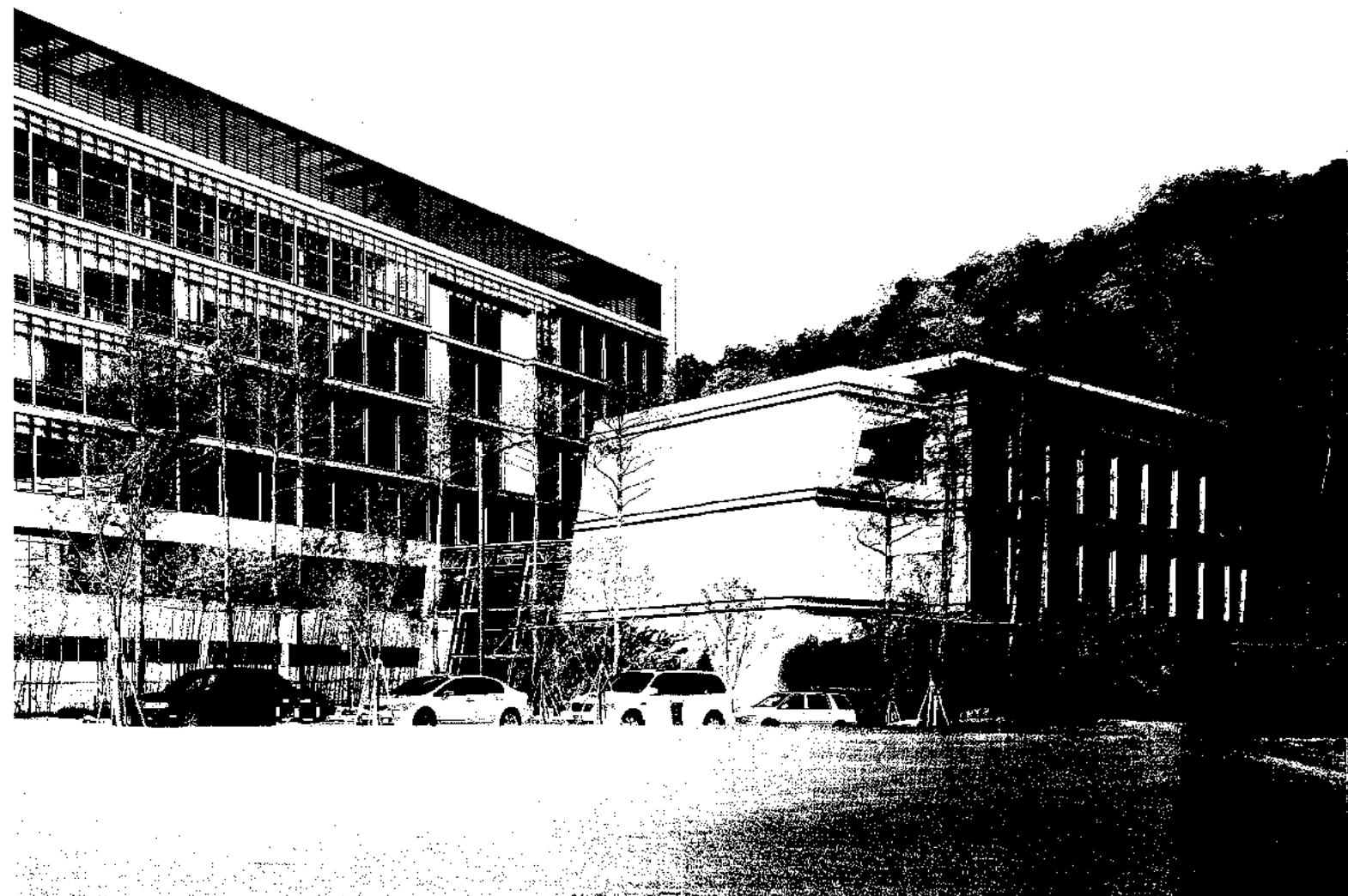
한국파스퇴르연구소는 프랑스 생화학자 루이 파스퇴르가 1887년 국제기금으로 창설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인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의 한국분소로서, 동북아 R&D 허브 구축을 위한 경기도와 과학기술부의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사업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에 초청연구시설로 계획되었다. 세계적인 생명공학 연구기관으로서의 독특한 아이덴티티와 상징성, 최첨단 연구시설로서의 최적의 연구환경 제공,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교류공간의 도입을 목표로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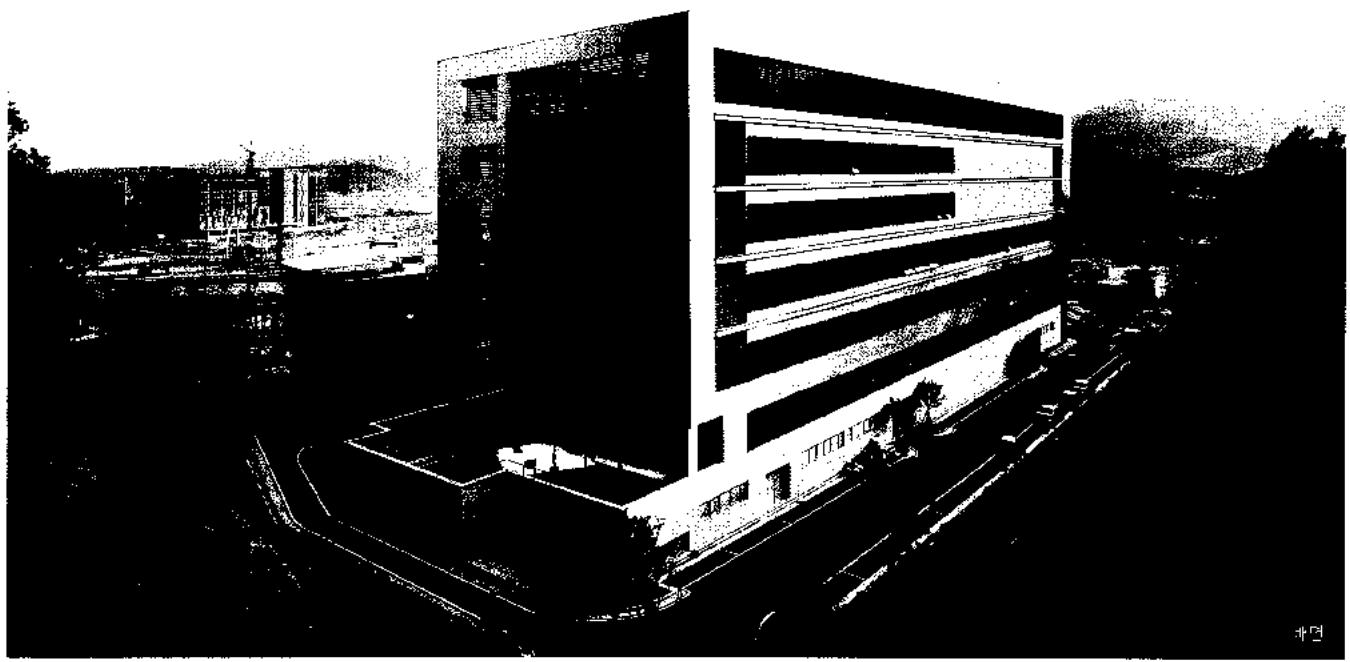
기능, 설비의 전문화, 짐작화를 통한 효율성을 고려하여 연구실험동과 행정지원동으로 분리하고, 연구실험동은 최적의 실험실 표준모듈 구성 및 Double Corridor System을 도입하여 내부 변경, 확장을 고려한 Flexibility를 확보하였다. 실험공간은 Open Lab개념의 실험실로 구성되었으며 P2, P3 등급의 특수실험실과 실험동물시설이 포함된 첨단 생명공학 연구시설로 계획되었다. 또한 주 진입부를 친환경 아트리움으로 계획하여 연구원의 사색과 휴식이 가능한 교류 및 휴게공간으로 계획하였고, 행정지원동은 열린 조망과 향을 고려한 패작한 사무공간을 확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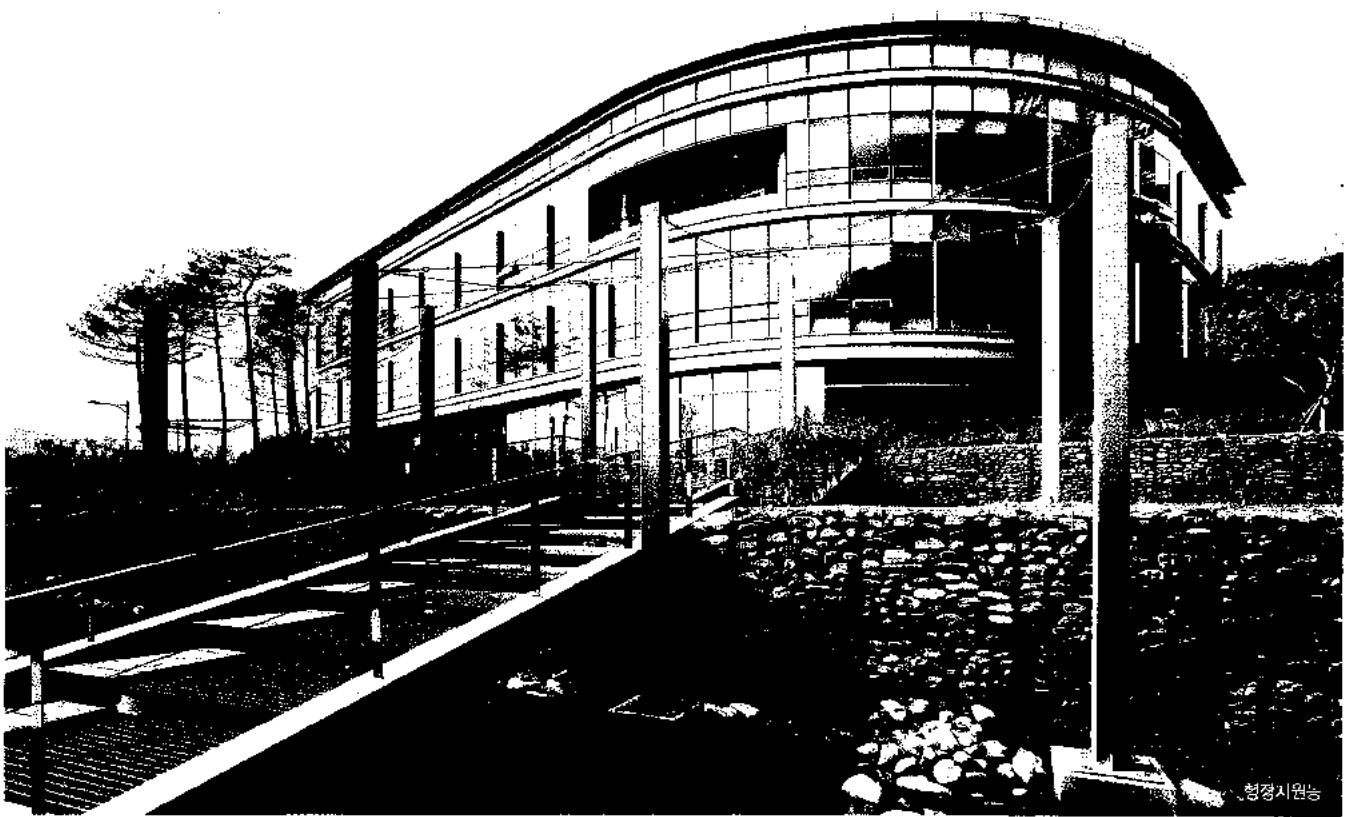


행성지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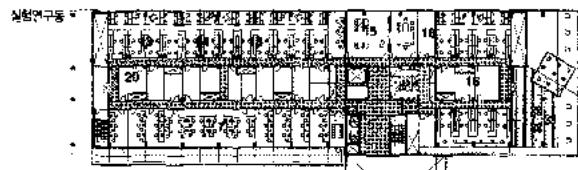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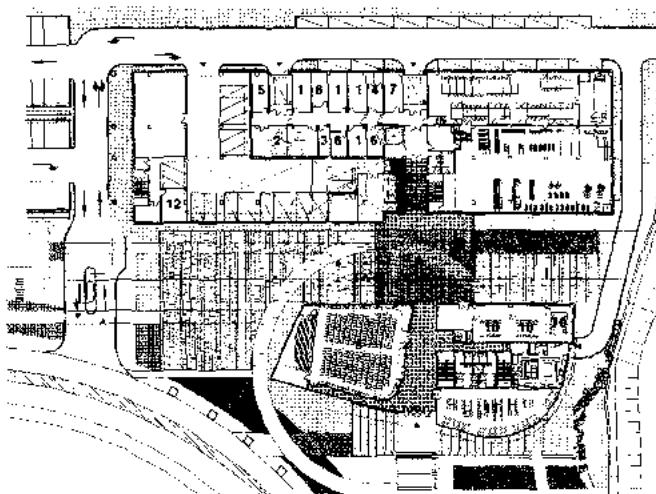
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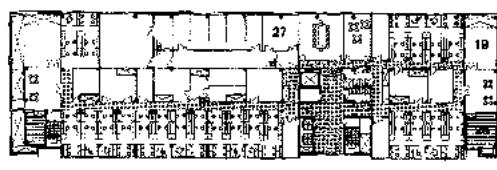
행정지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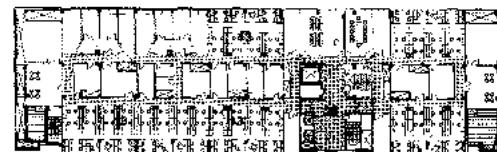
설립연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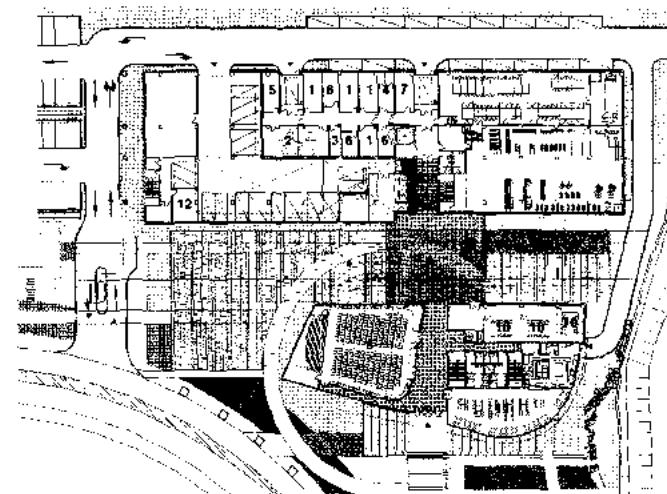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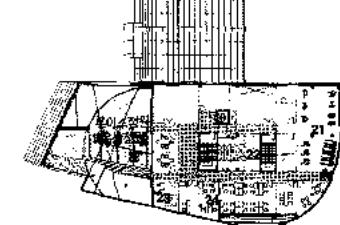
5층 평면도



4층 평면도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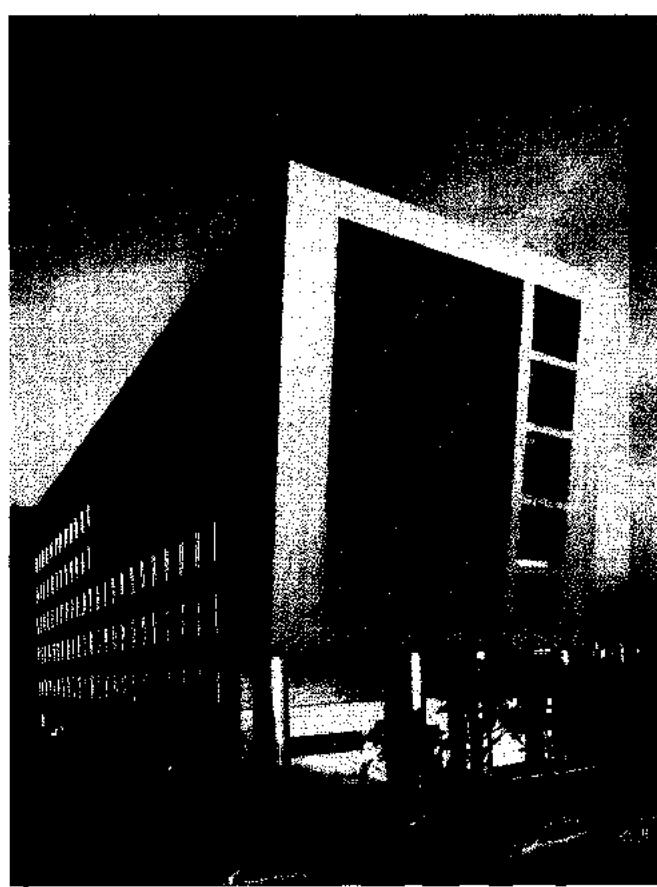
01_ 동물실
02_ 세탁실
03_ 청고
04_ 도기통
05_ 사체실
06_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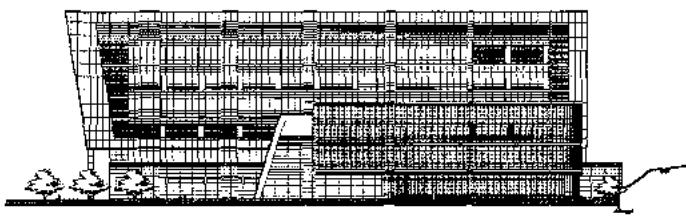
07_ 사무실
08_ 강당
09_ 리셉션홀
10_ 커머런스룸
11_ 카페테리아
12_ 유치보수실

13_ 실험실
14_ 다웅드로실
15_ 교육실
16_ 공연장
17_ 회장실
18_ 사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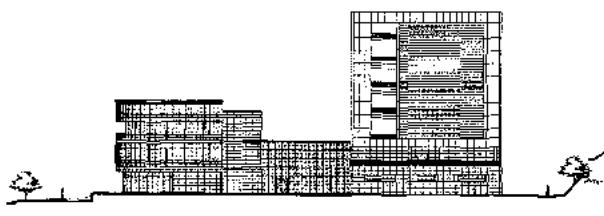
19_ 공조실
20_ 회의실
21_ 체육관
22_ 무의
23_ 긴호식
24_ 행정사무실

25_ 휴게실
26_ EVPL. 투
27_ 사원실
28_ 밥코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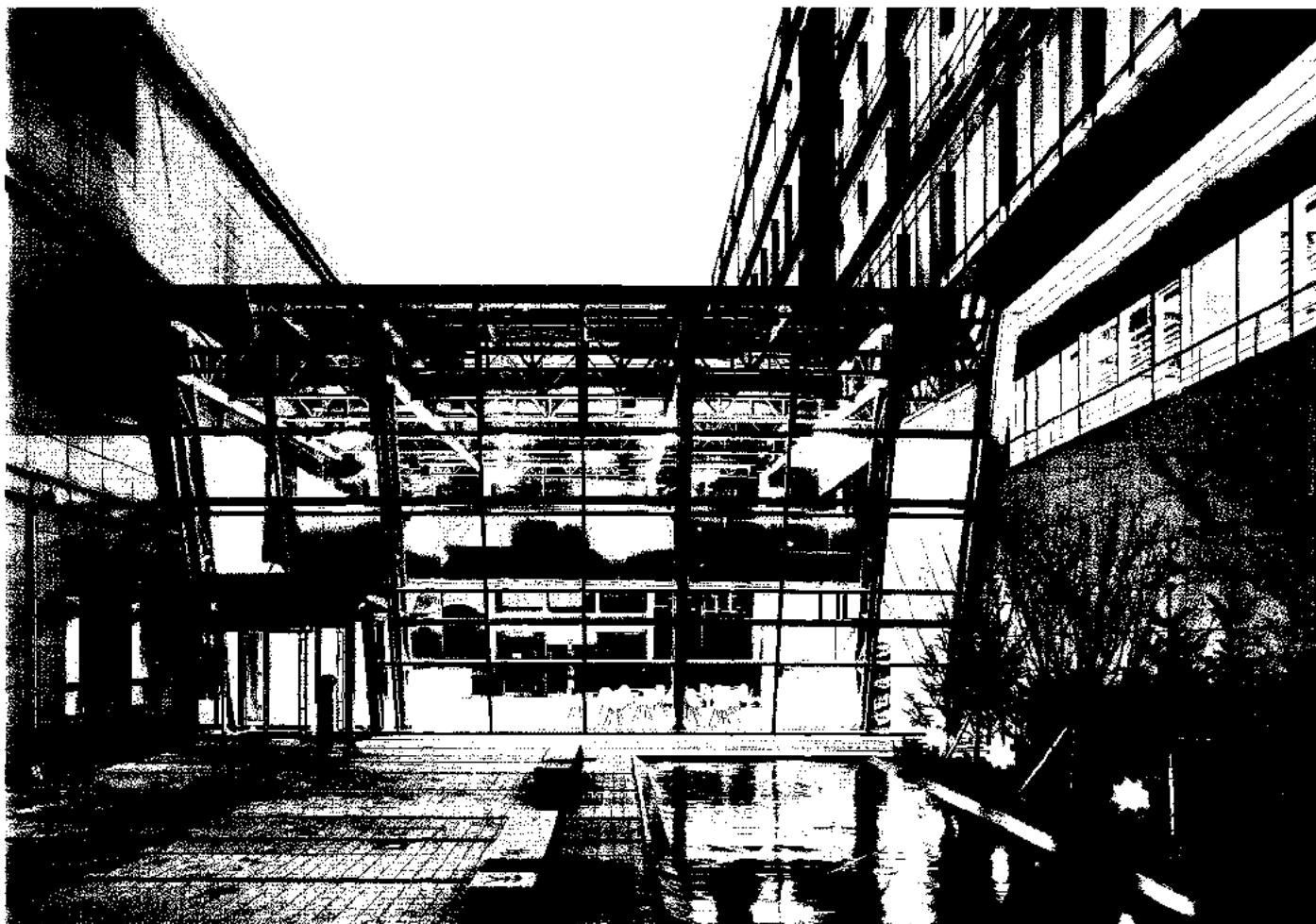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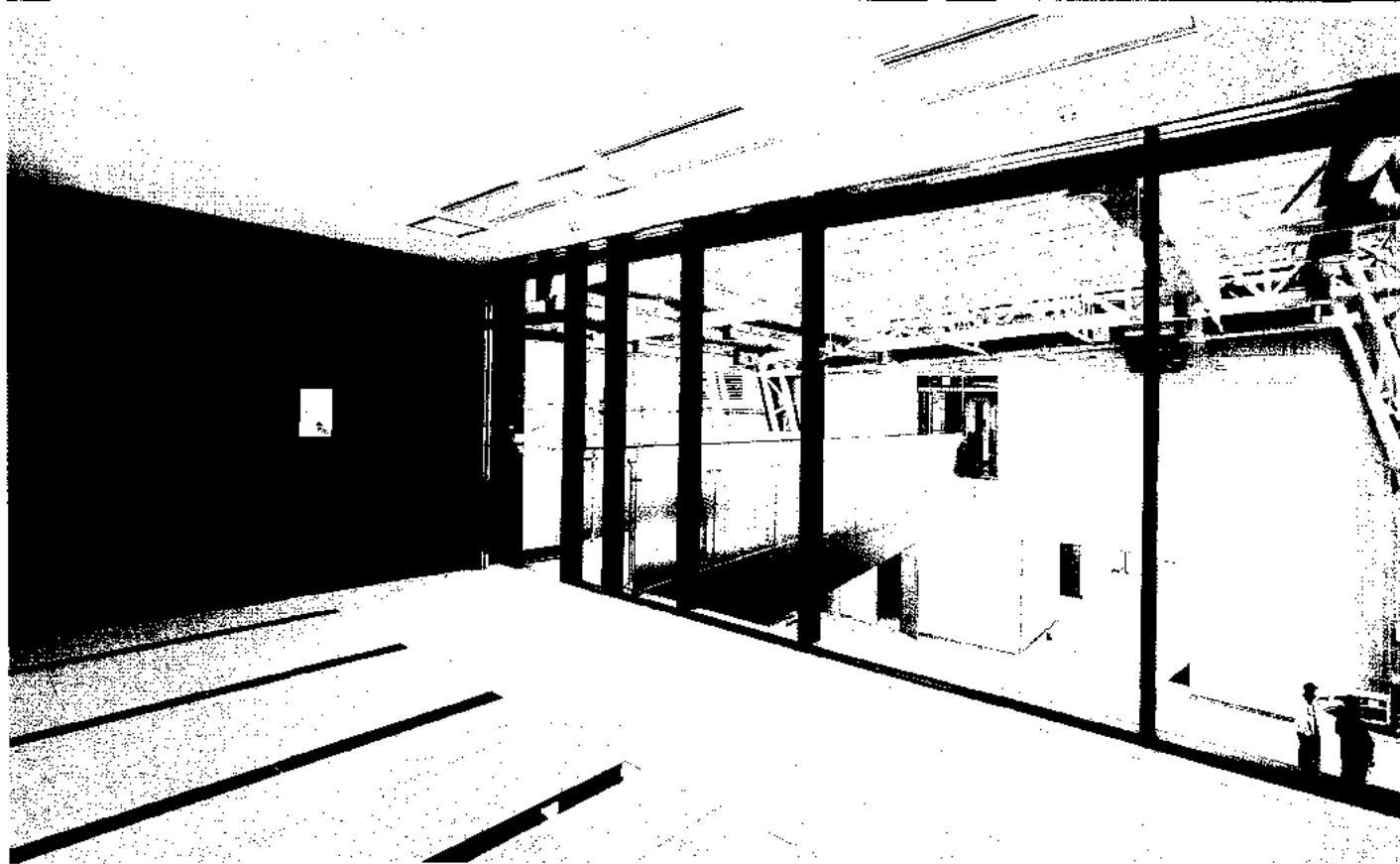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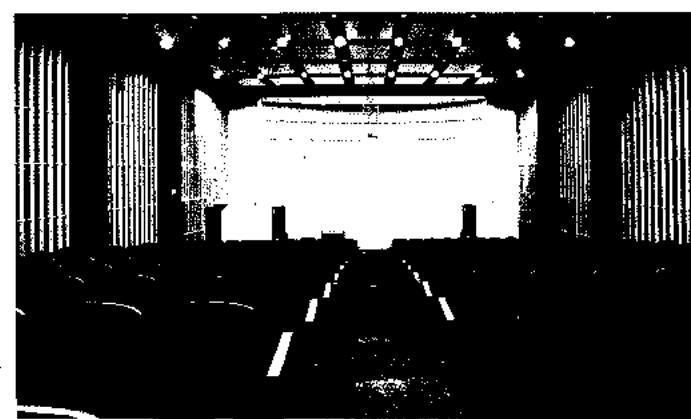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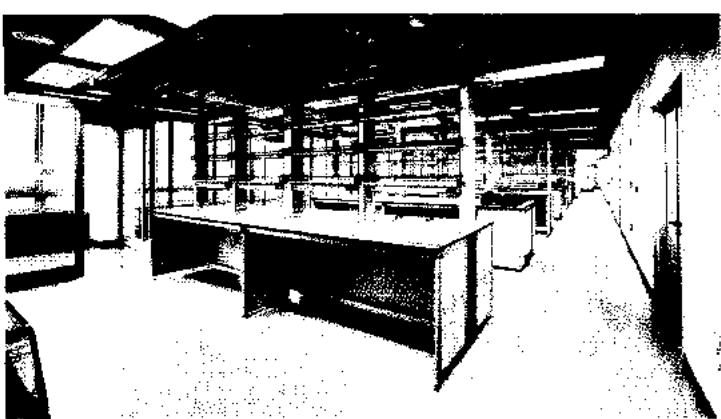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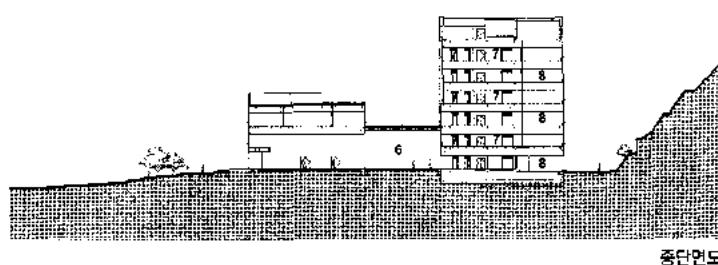
7	15
1	6
2	17
3	4
2	3

1. 아트카페
2. 육상 휴게공간
3. 로비 및 주차화물
4. 연구수
5. 강당
6. 행정지원동 업무공간
7.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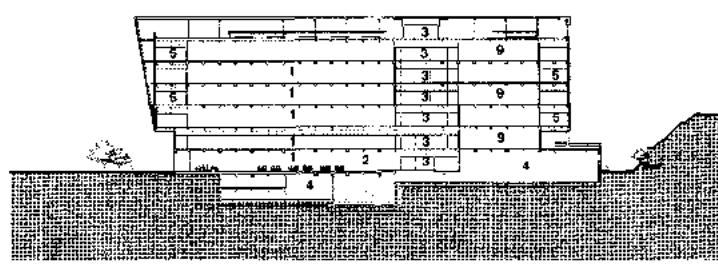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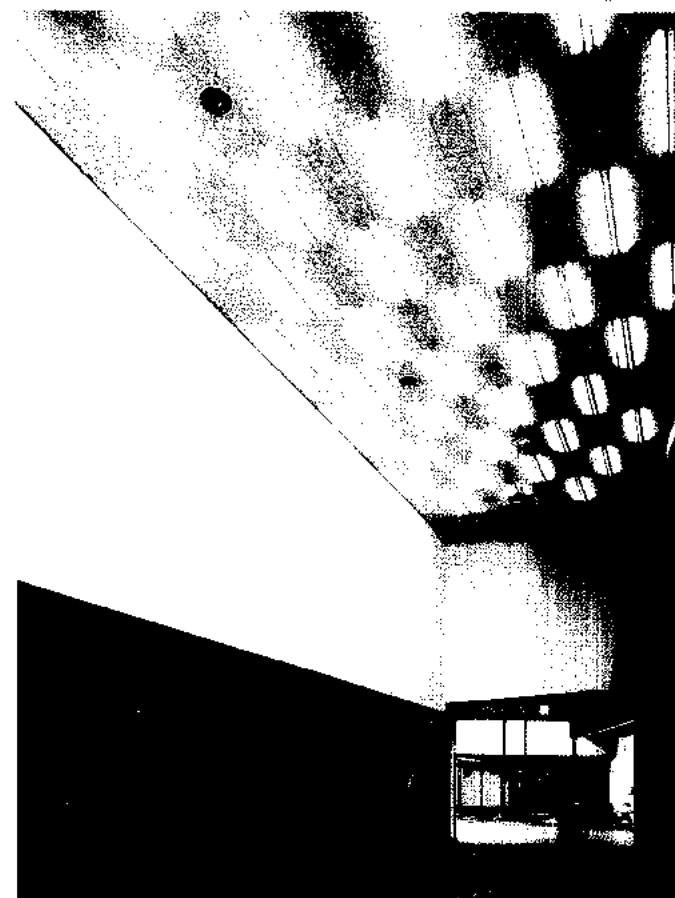
01_ 실험실 04_ 기계실 07_ EVEL. 출
02_ 복도 05_ 유개실 08_ 교육실
03_ 층 06_ 로비 09_ 준비실



종단면도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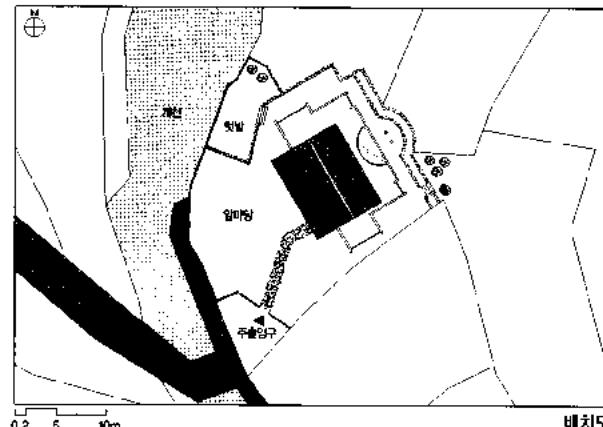


청희당(淸喜堂)

Cheonghuidang

문철수 / 정희원, 두양건축사사무소

by Moon, Chul-soo, KIRA



배치도

대지위치	경상남도 하동군 턱천면 주전리 141, 142번지	구	면	지상 1층
지적서구	농경지역, 농업보호구역	구	소	설계온도리트증
주변지도	기축기밀관 주변	면부아입	노름온도리트증	
보지면적	8,210m ²	내봉마립	서그드드 위 치정해지	
건축면적	544.55m ²	구조설계	동양건축사사무소	
전	면적 341.55m ²	설계	진달설비연구소	
건	면적 24.89%	시	본	사 (주)두암종합건설
총	면적 22.89%	설계감정	김민자	

청희당(淸喜堂)_궁극의 공간

이 건축 공간이 생겨나기까지 건축주는 무척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 당신이 태어난 곳, 그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았던 곳, 그리고 본인이 세상을 떠난 후 영원히 머물고 싶은 터 위에 그때의 시간들을 새기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지리신에서 뻗어 나온 낙남(落南)정맥은 이 집의 주산(主山)인 이명산에서 남해 바다를 바라보며 머물고, 북쪽으로 뻗은 두 능선 사이의 골짜기에 마을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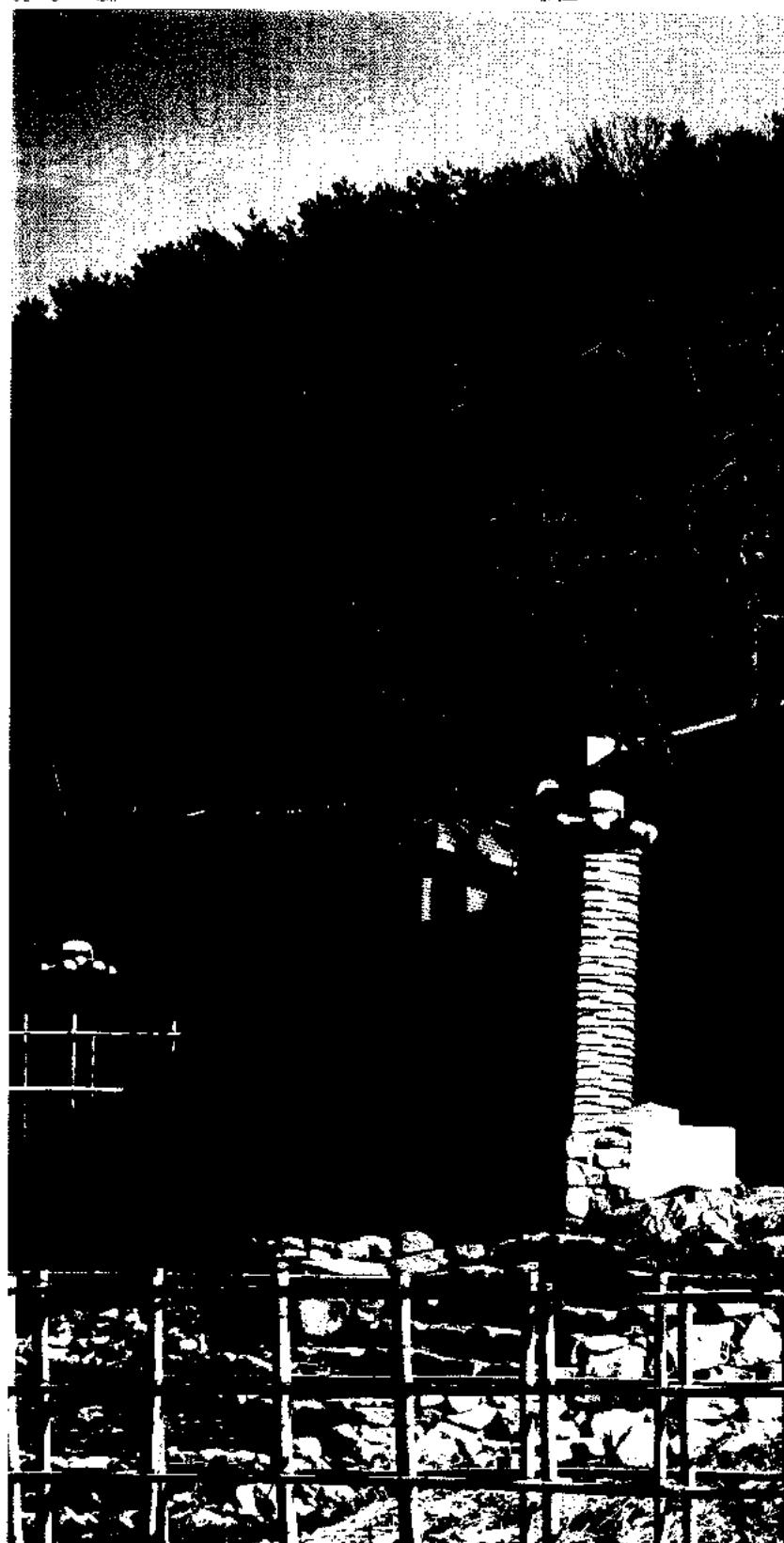
북천(北川)이라는 마을 이름처럼 북쪽 동구(洞口)를 향하는 마을 좌향(坐向)은, 이 집을 다른 어느 경우처럼 남쪽으로 트인 조망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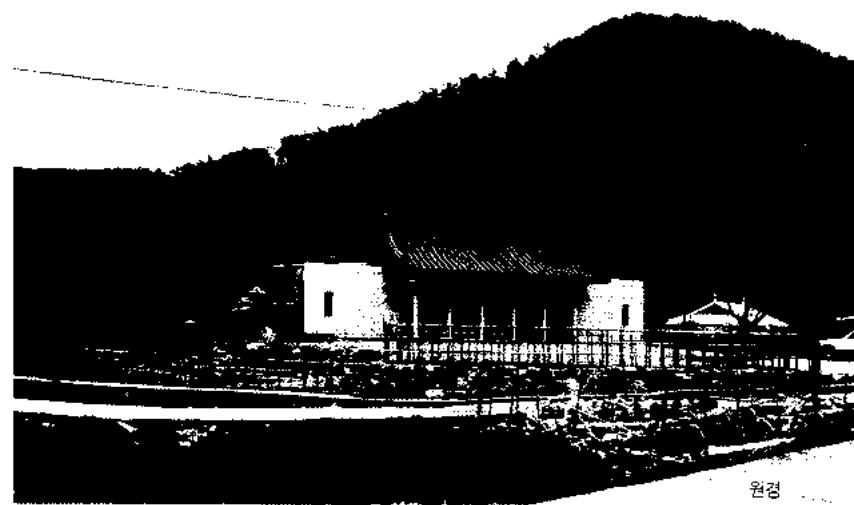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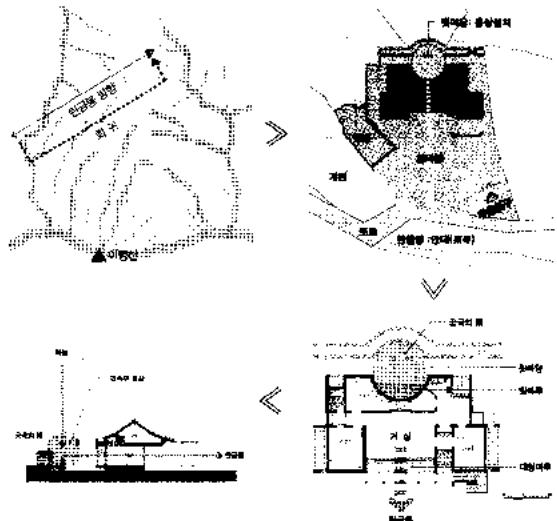
주산(主山)에서 우백호(右白虎)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 대지 조간 때문에, 저수지 위, 작은 개천을 끼고 좌청룡(左青龍) 너머로 향하는 서남서 좌향을 택했다.

좁은 들판 바로 건너에 있는 능선은 답답한 느낌을 주었다. 조금이라도 시야가 트인 곳을 찾아야 했다. 물결치는 듯 오르락내리락하는 산마루 선 가운데 주산에서 흘러내려 안접 봉우리로 이어지기 전의 골짜기 선이 눈에 들어 왔다. 그 너머의 봉우리도 보였다.

그 봉우리의 이름이 단금봉(彈琴峰)이라 했다. 참 멋진 이름이다. 이런 궁벽한 농촌 골짜기 너머에 그런 고상한 이름을 가진 봉우리가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름이 더욱 빛났다. 단금봉의 형세도 봉우리가 아담해서 문필봉에 가까워 안대(案帶)로 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로서 건물의 주 좌향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대나무 밭을 접하고 있었던 서남 방향의 원래 좌향에 비해 서남서로 조정된 방향은 긴을 뒷공간이 허전해질 수밖에 없었다. 뒷마당을 만들기로 했다. 어차피 주택만의 용도가 아니라 기념관의 성격을 지녀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가족 내부의 이야기는 감추어진 뒷마당에 담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허전해진 뒷마당 주변을 튼튼하고 아담한 한식 담장으로 둘러, 일상의 접근을 차단하고 가족들만의 이야기가 담긴 신성한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주택의 가장 신성한 공간으로 사당(家廟)을 두었듯이, 이 집도 현대적으로 변형된 신성공간을 구축하였다. 이 마당의 이름을 '궁





국의 間(사이)’이라 이름 지었다.

신성 공간의 중심에 이집의 주인 내외의 흉상(胸像)을 세우기로 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눈 깜짝할 사이를 살다 다시 영원의 인식처로 돌아가야 하는 인간의 숙명. 후손의 영혼으로 영소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가 가진 소망일 것이다.

‘궁극의 間’은 하늘을 향해 뚫려있는 빈 공간이 좋을 것이다.

하늘의 기운이 내려와 이 마당에 머무르고, 흉상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향한다. 건물의 내부에는 자손들이 산다. 먼 죽날 영혼이 되어 다시 내려올 그 존재는 그 속에서 자손들을 만난다.

그리고 다시 멀리 마주 보이는 하늘 향해 솟은 안테니, 탄금봉을 향한다.

다시 하늘로 귀여 한다. 이제 소우주의 질서가 완성 되었다.

착공을 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다. 건축주는 무척 기뻐하였다. 평생 원하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어느 하루 건축주의 생신 날, 건물만 덩그러니 완성된 상태에서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소박한 잔치를 열었고, 주민들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2009년 7월 1일 청희당이 완성되었다. 7월 15일 이 집의 건축주는 하늘나라로 돌아갔다. 〈글.문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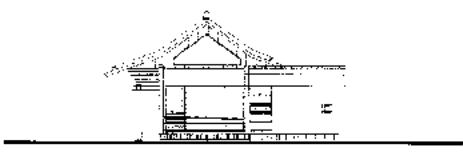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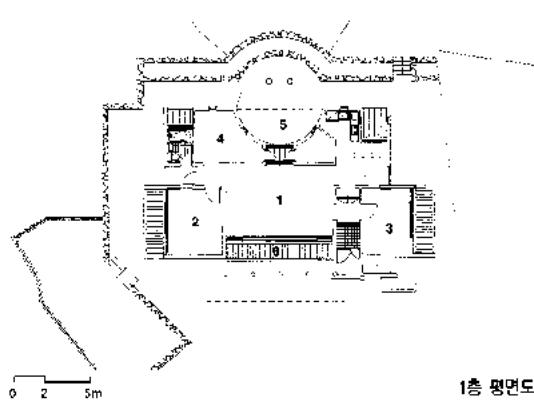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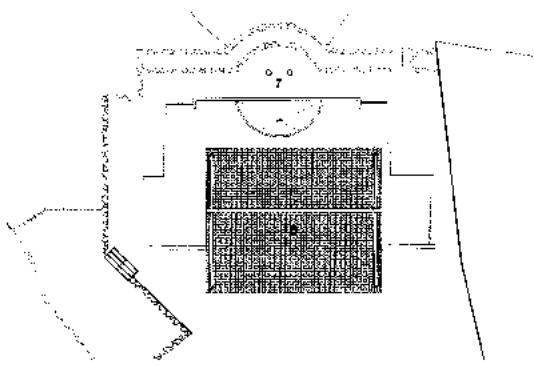


족총입구에서 바라본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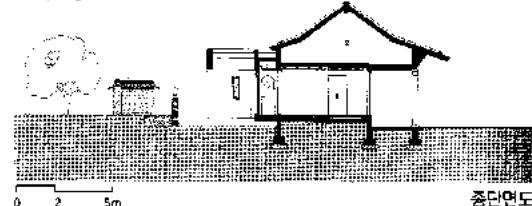


우측상세

- 01 가상
- 02 천상
- 03 활토방
- 04 전시장
- 05 뒷마루
- 06 대웅마루
- 07 뒷마당
- 08 지붕



- 01 거실
- 02 뒷마당



이시대 건축사로 살아가기

Surviving today as an architect

이 성 관
(주)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1948년 12월 부산 생
서울대학교 건축과 졸업(1972년)



대학선배의 권유로 건축과에 지원하다

그 당시엔 어떤 계기나 이유가 분명 있었겠지만 그것이 지금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3때 대학 선배들이 모교에 와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공대의 각 과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해 위였던 송유덕(가람건축) 선배가 건축과를 소개하면서 “공대 갈 애들 중에서 머리가 그리 둔하지 않을 정도에다 그림 좀 그릴 줄 알면 우리 건축과로 오면 좋을 것이다”라고 한 말에 내가 거기에 해당 되겠구나 하고 막연히 생각해 보았던 정도가 기억나고, 고3때 친구들과 부산대학교를 거닐다가 김중업 선생이 설계한 본관 암을 지나면서 “내가 하면 저것보다 낫게 할 자신이 있다”고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던 사실을 얼마 전 내 친구가 그 당시를 일깨워 주면서 “너는 그때부터 건축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증언해 준 게 전부일 정도입니다.

이 구 선생을 만나다.

대학교 다니는 4년 동안 우리들 대부분은 학교수업에 그렇게 충실하지 못 했습니다. 나는 더욱 그랬었던 편이고, 그 외중 설계과목만은 흥미가 있었지만 그 수업 자체 내용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차, 학부 4학년 2학기 때, 영친왕 아들이셨던 이구 선생님이 건축윤강이란 과목을 우리에게 영어로 강의하셨습니다. 그 분은 MIT를 졸업하고 I.M. Pei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힌 후 귀국하여 트란스아세아 대표로 있던 중이었지요.

첫 수업을 흥미로운 슬라이드 쇼로 마친 후, 우리에게 다음 과제물로 가로 새로 7칸의 격자 위에 36개의 각설탕으로 구성해 오라는 것이었지요. 초보적이고 간단한 내용의 숙제였지만 막연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었지요. 웬지 근본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그 무엇인가가 담겨진 것 같았지요.

다음 시간, 우리가 한 여러 작품들을 차례로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 “지금껏 해마다 여러 학생들에게 똑 같은 문제를 주어 왔었는데, 왜 단 한 번도 이런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훌트린 구성은 아닌, 가령 3.4.3의 단순입방체라든가 혹은 격자 위를 비워 두고 모두 지하에 두는 방법 등도 있는데 왜 그런 구성은 없는가?”하고 우리를 질책을 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의 과제물을 통한 어떤 학습효과는, 그 당시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던 나에게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거지요, 그 날 이후로 나는 달라져 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졸업하게 되면 반드시 저기서 배울거야라고 다짐하면서 말이지요.

트란스아세아에서 일하다.

졸업한 그 다음날 드로잉 뭉치를 들고 이태원에 있는 트란스아세아로 무조건 찾아 갔었지요. 졸업하던 해인 1972년 당시는 국내 건축 경기는 바닥이었고요. 그 곳 사무실엔 빈 제도판이 2개 있는 방을 지나 안방에 여러 선배님들(엄웅, 고주석, 박행일, 이후관, 김영준 등 7, 8인)이 한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실 대표이사로 책임지고 있던 고주석씨가 여기서는 사람 안 뽐는다고 말했지요. 이를 후에 다시 찾아가서, 봉급은 안 받아도 괜찮으니 저기 자리가 지금 비어 있으니 그저 선배님들 옆에만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하면서, 티자나 트레이싱지 등의 소모품도 다 내 돈으로 그냥 갖고 올 터이고 어떤 잡일이라도 하겠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미국사무실이라 사람을 쓰면서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날엔 아예 고주석 씨의 합정동 자택까지 찾아갔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구요. 결국 저의 제안은 일단 받아들여진 셈이었지요.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다음 월요일부터 그림 나오라고 하면서 드디어 승낙해 주셨지요. 입사 후 한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상부의 결재를 받고 정식 직원임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일 년 동안 근무하였고 천지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었지요. 그때는 왕성한 소화력을 갖추었으나 일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나에게 일이 오기 전에 선배들 선에서 이미 다 소화되어버려 내 선까지 내려를 기회가 별로 없었지요. 그 외중 담수어수족관, 새문안교회, 속리산사내리 개발계획, 미8군부대일 등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엔 주로 청사진 굽고, 선배님들 연필 깎아주고 담배나 맥스웰 같은 약 사오는 심부름 등 그야말로 내가 애초 하기로 약속했던 일들을 실천했던 게 더 기억에 남는다. 다만 이 기간 동안 고주석씨가 건축 원서를 보는 습관과 일들을 여물게 추적하는 습관을 일찍 옆에서 보고 배우게 된 것은 큰 소득이었다고 봅니다.

이듬해 대학원을 등록하면서 이곳을 떠나, 일양건축(원정수, 지순)에 잠시 근무했다가 운정십 교수님의 사무실에서 장세양, 이규성(울산대 교수)과 같이 셋이서 사무실을 꾸려가게 되었지요. 여기서 태평로 3가재개발 등을 했고 이때 승효상씨도 우리 사무실에 자주 들리면서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술도 같이 먹기도 하곤 했었지요. 그 외중 주택설계를 할 기회를 가졌지요. 후암동에 있는 135평의 임광토건 회장 집이었습니다. 설계에서 감리까지 직접 하게 된 것은 나로서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기서 1년 반 정도 있다가 대학원 논문 등의 이유로 외환은행 영선과로 옮겨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곳엔 김정철(정림건축)씨가 있었던 자리에 김기웅(삼정건축)씨가 있었고 그 시점 내가 거기 근무했었지요. 이영희(희림건축)씨도 건축가의 입장으로 우리와 자

아틀리에 스타일은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낮을 뿐이겠지요.

건디기가 활동하는 하겠지만 컬리티를 중요하게 따지는 건축주를 위해서도

아틀리에는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대형사무소 위주로 가더라도

사회의 추세는 다양성이 근간 아닌가요.

주 만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서 2년 정도 되었을 즈음 김기웅씨가 정림건축으로 옮기면서 얼마 있다 저도 가게 되었습니다.

정림건축에서 담당했던 일

정림건축에서 근무하던 6년 동안 우리들은 참 열심히 일했었지요. 그 시절 동일 공간에서 같이 호흡했던 동료 선배들 중에는 실로 좋은 사람들이 많았었지요(김기웅, 권도웅, 김창일, 김자호, 박영건, 전찬진, 최태용, 송명규, 백문기, 방철린, 최명집, 서정규, 오정수, 온영태, 꽈순섭, 제해성, 이방만...), 상호 교류도 잦았고 서로간이 출렁한 스승이었던 셈이지요. 졸업 후 4년간도 저에게 의미 있었겠지만 특히 그 당시 정림에서의 6년은 나의 건축유년시절이었기에 여려모로 각별하였다고 봅니다. 창원시청새(1977년), 여의도MBC시옥(1979), 영락상고(1980), 성내동오피스(1980), 한국은행본점(1981), 전주서문교회(1982년) 등을 담당하였고, 개인적으로는 사내 동료였던 오정수, 제해성, 이정호(경북대 교수)씨와 함께 1977년 국전 건축부문에 출품하여 분공부장관상을 받기도 하였지요.

미국HOK에서

뉴욕 HOK에서는 처음 1년은 Assistant Designer로 일하다가 나머지 4년간은 Project Designer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10년간의 실무 경력이 당연히 뒷받침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프로젝트들은 주로 상업 업무시설들이었고 그 중 뉴올린즈에 있는 대형쇼핑몰 콤플렉스(5만5천평규모)를 기획 설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내의 R&D facility(5천여평)를 기획설계에서 실시설계작전까지 한 후 귀국하였습니다.

드디어 사무실을 차리다

국내 있을 때에 이미 한국건축사 자격증은 도전 첫해에 취득하였으나 그 때도 개업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늘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건축가가 될 수 있을까가 나의 주 관심사였던 셈이었지요.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일하느냐 보다는 어떤 내용으로 일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귀국 후 정림으로 돌아 왔었지요. 평소에 개업한다 마다의 개념이 거의 없었던 나에게 회사에서는 늘 빗대어 “이성관 씨는 개업하면 안 돼.”라는 투였습니다. 이유는 고집이 세고 개업하게 되면 부딪치게 되는 적응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였고 그 대목은 늘 저를 거슬리게 했었지요. 설계는 잘 해내는데 대외적인 사회적 측면에서는 문제 가 있을거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한 인간으로 태어나 한 가지

는 분명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었지요. 스스로 결함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과연 내게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개업하게 된 이유 중 절반 이상은 여기에서였다고 봅니다.

전쟁기념관 경기설계 5~6등 정도는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응모

그 당시 대형국책사업으로 전쟁기념관이란 프로젝트가 곧 나올 거란 소문이 시중에 나돌았습니다. 5공 때는 독립기념관이고 6공에서는 이 사업이란 것이었지요. 곧이어 나온 응모 요강에 의하면 최우수작1, 우수작2,佳作3, 도합 6개의 티오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엉뚱한 망상?을 품게 하였던 거였죠. 어차피 당선작은 별들끼리의 전쟁일 터여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고, 내가 마침 좋은 인을 만들게 되고 또한 운이라도 따라 주게 되어 만약 가작 말식이라도 차지하게 된다면 나로서는 일단 귀국인사는 하게 되는 셈이 되지 않을까하는 헛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당선되는 그 친구는 참 좋겠구나라고 막연히 남의 일로 치부하면서 부러워하는 와중에서, 일단 응모접수는 해 놓았습니다. 몇 달 뒤 개업 후에 일이 전혀 없어 어쩔 수 없이 이 현상을 시작하게 되었고 두 달여간 이 일에 점차 빠져들면서 막판엔 주위의 도움으로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제출 후 얼마 지나 지방 현장에서 한통의 전화를 연결 받았지요. “당신이 이성관이요? 당선되었으니 내일 14시까지 전쟁기념사업회로 오시오.”라는 유선상의 통명하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희한하게도 그 순간이 생생히 아직도 떠오릅니다. 당선 소식을 듣는 순간의 명했던 시간이지요. 맨 처음 스친 것은, “아, 내가 큰 병을 앓든가 아니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책임까지 져야할 부담에서 그런 생각이 순간 스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 4년 반 동안 실로 부대끼면서 많은 걸 느끼고 깨닫게 해준 잊을 수 없는 프로젝트가 된 셈이었습니다.

사무실 차리고 한일들

개업 후 한 작업들 중 주요 프로젝트로는 전쟁기념관(1994서울시건축상금상), 분당쇼핑몰래저단지(1993경기설계당선), 대구대성빌딩, 대구알리앙스예식장(1995), 부산민영방송국(1997건축가협회상), 데이콤분사사옥(2000건축가협회상), 거여3단지아파트(2001건축가협회상/서울시건축상은상), 평창동주택419-8(2002), 양구전투기념관(2003), 분당단독주택(2003한국건축문화대상본상), 미포장애인복지관(2004), 수입777(2005한국건축문화대상본

내가 보는 건축사 이성관...

건축사 이성관은 내가 보기에 워커홀릭이다. 나의 사무소와 거리도 가깝기도 하고 해서 가까이 지내는 편이지만 거의 매일 밤늦도록 사무소에서 일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 마치 '독짓는 노인'이라는 한 편의 영화가 생각난다. 그의 건축은 호사가들이 좋아하는 패션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견고하게 느껴진다. 아마도 디테일의 탄탄함이 곳곳에 배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가협회 명예이사
- 대학건축사협회 건축사자 편찬위원회 위원장



상), 승실대조만식기념관+웨스트민스터홀(2008한국건축문화대상대상), 반포577(2009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건축가협회상), 엘타워(2009서울시건축상본상)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규모

현재 감리 2명이고 경리1명 포함 해서 22명이고 통상 20~25명 내외의 규모라고 보면 됩니다. 연매출은 22억(2009년 기준)정도 되고 늘 경계점에서의 매출이지요.

한울건축만의 차별성

이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구성원의 작업을 다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위 퀄리티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는 실시설계를 외주로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디테일 레벨까지 우리가 직접 스터디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감리 레벨까지 직접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무실의 규모가 대형화 되게 되면 현실적으로나 구조적으로도 거의 불가능 하게 된다고 봅니다.

거꾸로 약점에 대한 견해

위의 장점은 작업의 질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점이고, 작업의 생산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위의 장점은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에 대한 욕심 때문에 작업량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생산적으로 보면 소모적으로 흐르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후계구도에 대한 나의 생각

현재로는 아직 없습니다. 일에 대한 생각으로는 건강이 허락하고 일이 계속 있다면 그 날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나의 견해

오래전부터 생각해보았습니다. 아마 그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시기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지나봐야 하는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아들도 건축설계에 종사하다

아들 둘 다 설계를 하는데 파트너로 같이 할 것인가요?
문은 열려있지만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달려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좌우명

별도의 좌우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지금보다는 더 나아져 있겠지요. 성격이 본시 좀 낙천적이라, 앞으로는 좀 더 좋은 건축을 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모든 것은 다 자업자득이고 세상은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현재 내가 요 모양인 것은 내가 요만큼 밖에 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다 내 탓이란 생각입니다. 사무실 규모는 본인이 즐길 수 있는 수준의 규모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설계들

현재 공사 중인 작업들로는 탄허대종사기념박물관, 여초서예기념관, 송실대학교기숙사, 송실대학교전산센터 등이 있고, 설계 진행 중인 것으로는 송실파크 교육복지센타, 경희국제캠퍼스 공학관 및 체육관 등이 있습니다.

건축계의 양극화에 대한 나의 생각

아틀리에 스타일은 계속 존속할 것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그 차지하는 파센티지가 낮을 뿐이겠지요. 견디기가 힘들기는 하겠지만 퀄리티를 중요하게 따지는 건축주를 위해서도 아틀리에는 아마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는 대형사무소 위주로 가더라도 사회의 추세는 다양성이 근간 아닌가요.

건축사라는 직업에 대해

첫째 본인이 그 일을 우선 좋아 해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냥 작업 만으로서는 노력에 비해 사회적 보상이 그리 큰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힘들지만 보람은 있는 직업으로 생각합니다. 건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밀지는 선택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를 지원한 후 후회하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후회한 적은 아직 없었고, 건축과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하고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다. 아마도 영화감독이나 뮤지션 또는 요리사 정도.

한국건축계의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거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약한다면, 총체적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그 첫째가 바로 생존 혹은 존립 그 자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특히 대사회적 신뢰회복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National Institute of Nakdong River Biological Resources

당선작 / 이승연 제작부 · 김태영
(주) 원양 건축사사무소)
+ 이관영 제작부 (주) 한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북 상주시 도남동 산 39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예정)
주요용도	수장·연구시설, 전시·교육시설
대지면적	120,652m ²
건축면적	15,915.85m ²
연 면 적	22,287.83m ²
건 폐 율	13.16%
용 력 률	17.85%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발 주 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설계담당	총괄_심재한, 최준섭 담당_염창선, 최운정, 정우정, 박철운, 유혜미, 박종훈, 정승철, 신경철, 황연식, 서동원, 정혜린

Design Motive_이번 당선작 '그린나래를 펼치다'는 굽이치는 낙동강의 흐름과 지형에 순응하는 '대지의 흐름', 낙동강을 향해 비상하는 두루미의 날개짓을 담은 '생명의 흐름', 도남서원의 역사성을 담은 '시간의 흐름' 등 3대 Flow의 상징화를 자연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생물자원관을 표현하고 있다.

Design Strategy_본 설계안은 지형에 순응하는 생태 지향적 배치 속에서, 연구수장영역과 전시관람영역의 독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유기적인 순환형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게스트하우스는 전통 입지방식을 차용하여 역사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설계하였으며, 지중화, 남향배치, 고단열 벽체 등과 각 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 하여 제로에너지에 근접하게 계획하였다.

Step 1_남동향의 연구시설은 경사를 활용

용한 대라스와 중정계획을 통해 자연환경과 소통되는 깨끗한 공간으로 계획하고, 수장고와 실험실은 북서측에 배치하여 지중화와 개구부의 최소화로 냉난방부하를 감소시켜 에너지소비를 절감시켰다.

Step 2_대지 좌측면에 있는 기존의 천수 담을 활용하여 묵은습지로 복원하고, 소나무 군락지를 보존한 수립대와 낙동강과 마주하고 있는 골짜기에 해평습지를 재현하여 기존의 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생태체험공간으로 재현하였다.

Step 3_입면패턴은 주변 자연환경에 동화되도록 철새들의 군무를 이미지화하여 구성된 패턴중 Void 부분은 로비와 공용공간, Solid 부분은 전시공간이 되도록 계획하고, 일부는 BIPV패널로서 입면속에서 '군무의 이미지' '프로그램' '신재생에너지'가 밀접한 관계를 갖도록 구성하였다.〈글_심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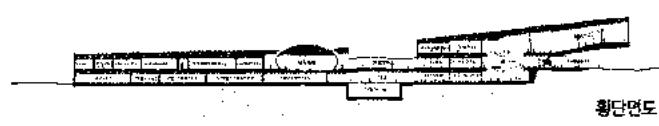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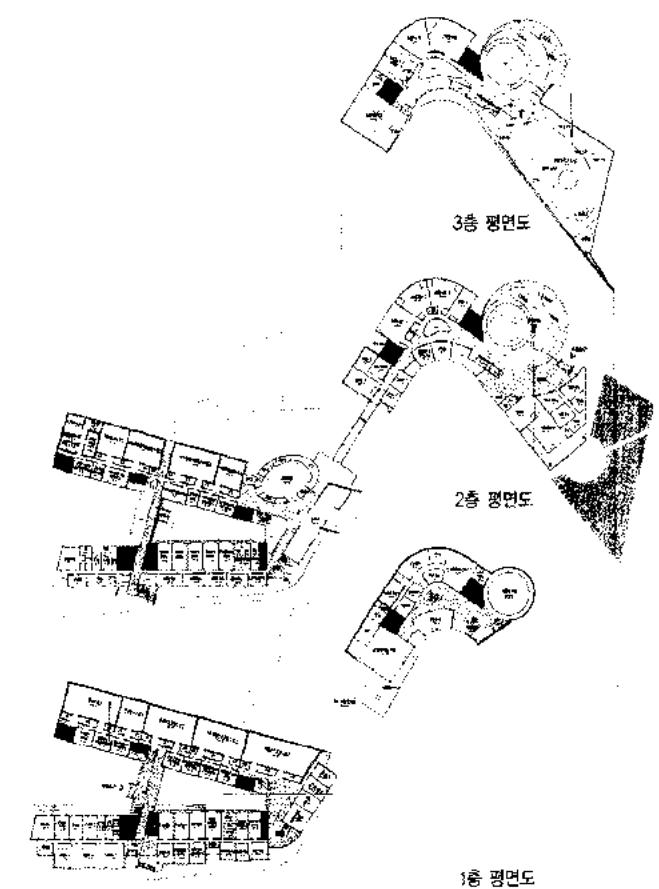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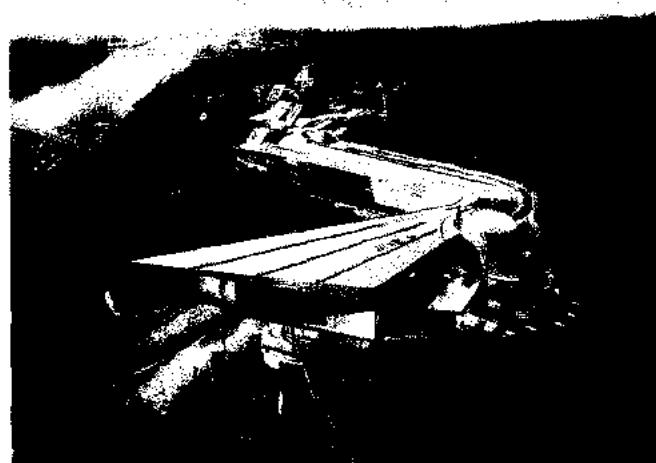
좌측면도



종단면도



1층 평면도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National Institute of Nakdong River
Biological Resources

우수작 / 문세한 정희현 · 남기홍 정희현 · 김태만
(주)해안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용미 정희현 (주)금성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주 상주시 도남동 산 39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예정)
주요용도 연구, 전시시설
대지면적 120,852.00m²
건축면적 9,633.71m²
연 면 적 22,338.52m²
건 폐 율 9.97%
용 직 률 17.09%
규 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담당 해안건축 : 총괄_김홍수, 임종업/ PD_정만철,
PM_이성렬/ 권이철, 오태훈, 김주원, 박자웅
금성건축 : 임환기, 최성준, 서용석

생명을 깨우는 강, 낙동강을 그리다.

Sprouting Flow on the edge of Species

1859년 'On the Origin of Species'에서 Charles Darwin은 적자생존에 의한 진화설을 내놓는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는 과학적 인가설과 겸증을 통한 종의 기원에 대한 탐구라는 인간문명사의 업적을 동시대의 식민개척, 산업혁명 그리고 정글자본주의의 이론적 당위성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인권이 유린되고, 환경이 파괴되고, 생물이 멸종되는 것 또한 자연스런 '진보(진화)'의 과정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켜왔다. 데카르트-뉴튼적 사고의 생물학분야에서의 적용을 통해 비로소 환원주의적 과학은 완성되었다.

2009년, 환경은 파괴되어가고, 그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과 멸종은 일상다반사가 되었다. 그것은 생태계의 일원인 인류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Darwin의 진화론 150년 후 인간은 생태계와 환경을 환원주의적 관점 을 넘어, 전일주의(holism)적, 통합적 관점에 서 바라보아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150년 전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인류의 진보의 도구와 수단이 되어 '생의 가장자리'에 처한 생태계를 동반자로의 관계로 복원하여야 한다. 진정한 자연의 실체를 밝히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는 것이 특정집단의 몫이 되기에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상황이 녹록치 않음을 알아야 한다. 여기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그러한 맥락을 공간화 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체험을 통한 생명과의 소중한 만남, 생명을 깨우는 강이 훌려간다..

계획개념

낙동강을 은유한 체험의 공간·생태적 인식의 지평을 넓히다_흐름은 생명의 근원이다. 낙동강의 흐름은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 형상으로 대지의 전체를 아우르며 체험의 공간들에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낙동강이 그런 각각의 공간들은 생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얻어진 상징화된 흐름과 공간화 된 생명은 다양한 매개공간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활성화되어 생태계와 같이 능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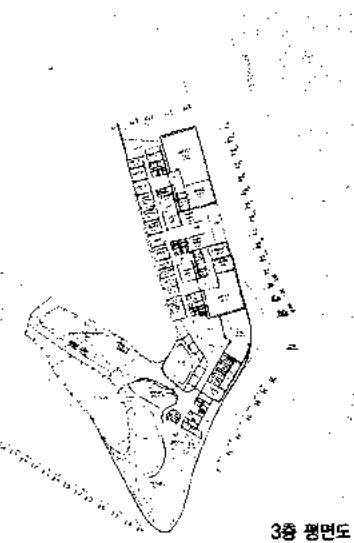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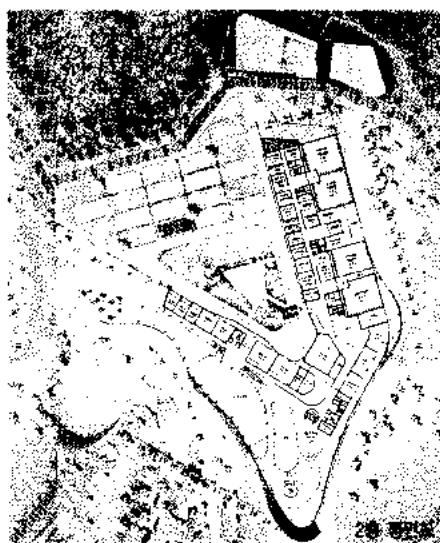
균형상태를 유지한다.

자연친화적인 생물자원관·생태환경적 패러다임의 건축을 구현하다_2007년 건립된 국립생물자원관은 한국형 생물자원관이 갖춰야 할 공간계획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남기기도 하였다.

국가 생물자원관리시스템이라는 하나의 맥락 속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선행사업의 우수한 측면은 적극 수용되어 자연친화적인 측면에서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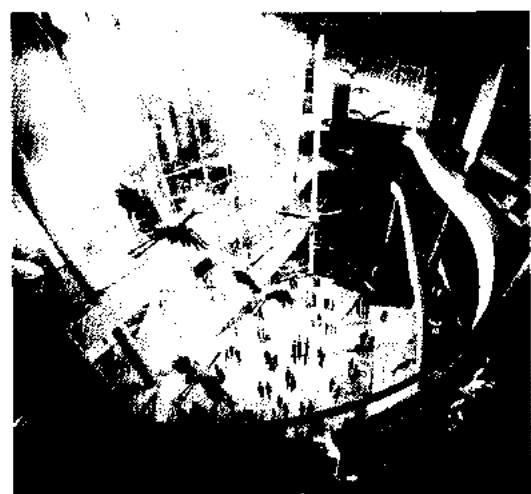
3층 평면도



정면도



중간면도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National Institute of Nakdong River
Biological Resources

가 작 / 한대진 정책원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도시인

+ 고봉철 정책원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북 상주시 도남동 산 39번지 일월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2종지구단위계획지구(예정)

주요용도 문화 및 학회시설

대지면적 120,852.00m²

건축면적 13,802.41m²

연면적 22,306.54m²

건폐율 10.83%(법정 40% 이하)

용적률 18.46%(법정 100% 이하)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담당 도시인건축_김용권, 조원규(공동대표)/
이창연, 이근택, 김세영, 정정아, 박은미,
박종래, 윤경현, 김수이아, 심현선, 장희진,
정성일, 방영만, 김성운, 김은미, 이상호
아이티엠건축_이웅석, 전수현, 김용태, 박종원

낙동강의 자연환경을 대지에 담다.

상주시는 태백산맥의 기운이 둘러싸고 있는 분지형, 계곡형 지형으로 아름다운 산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계획부지는 정면에 하중도가 위치하고 북쪽에는 낙동강 주변 환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천대가 위치한 수려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이렇게 수려한 주변 자연환경과 낙동강이 만들어 내는 아름다운 곡류(曲流)를 담아내는 것이 본 계획의 개념이다.

배치계획 대지의 동측에 흐르는 낙동강을 향하여 열린 조망에 대한 고려와 진입로의 개방성, 정면성을 확보하고 각 공간으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전시, 교육, 수장, 연구동의 관련 프로그램별로 연계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효율적 업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조형 및 외부공간 계획 유수의 형태를 왜곡시키지 않는 디자인 계획은 생물자원관이라는 상징적 기능과 낙동강이라는 역동적 이미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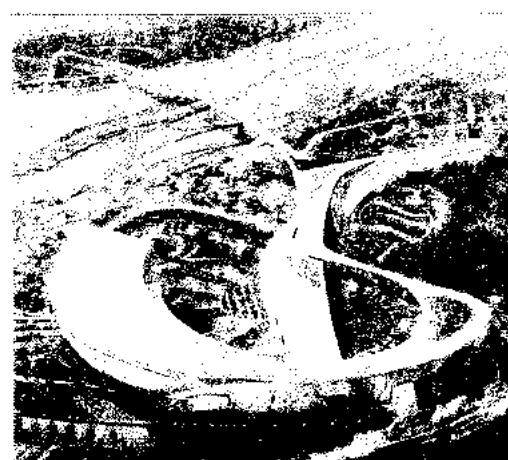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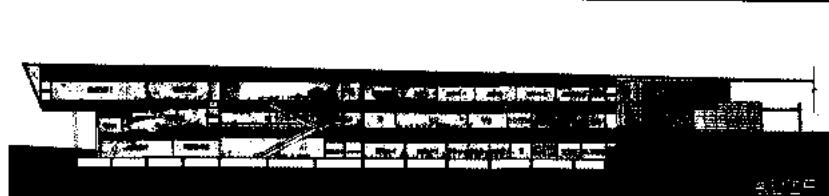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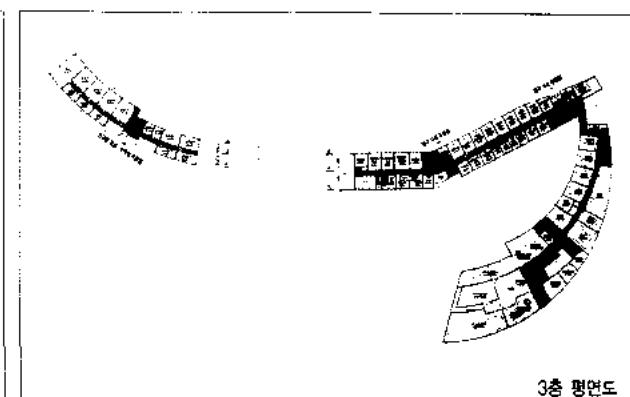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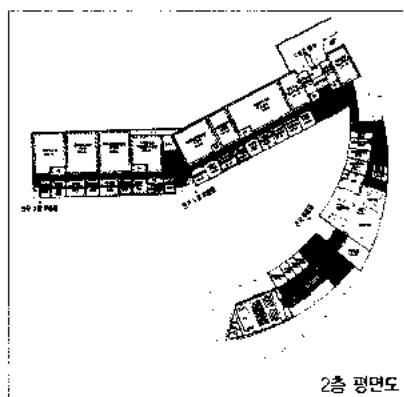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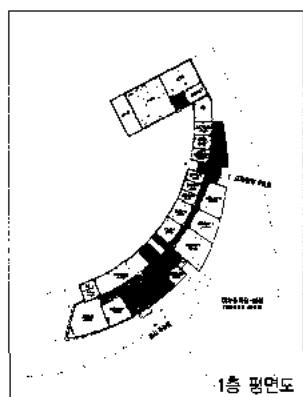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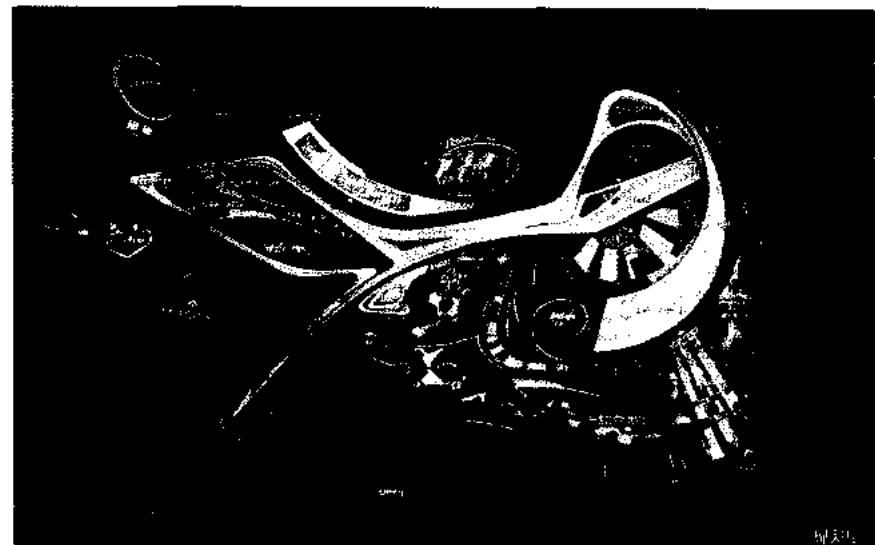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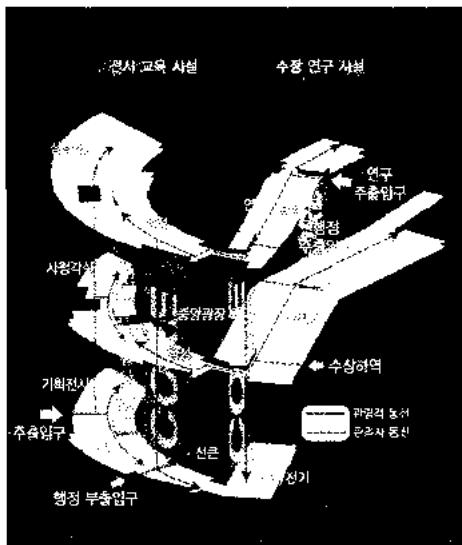
대표하는 아이콘으로서의 조건을 만족한다.

낙동강의 수계 재현과 생태계의 복원으로 자연과 문화의 연계 공간으로 조성하여 휴게 및 커뮤니티의 장을 마련하였고, 스카이워크를 계획하여 대지의 자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관람자를 위한 다이나믹한 공간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동선 계획 전시·교육시설은 주출입구와 인접한 위치에 배치하고 수장·연구시설은 전시·교육시설과 마당을 두고 배치하여 명확하게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영역별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시 공간의 주제적 배치로 교육과 편의 및 행정시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관람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효율적인 동선을 계획하였다.

입면 계획 생명을 이루는 세포의 유기적 배열과 낙동강 유수의 흐름을 스킨의 패턴으로 적용하여 생물자원관으로서의 상징성 확보와 낙동강이 가지고 있는 녹창성을 입면으로 표현하였다. ■





설계경기 | Competition

신고리3, 4호기 모의제어반건물 Singori #3, 4 Simulator Building

당선작 / 박대원 教授
(주)에이포스트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산암리 원자력교육원 부지내
지역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6,200.00m ²
건축면적	2,230.37m ²
연 면 적	3,302.63m ²
전 빼 을	35.97%
용 적 률	47.10%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발 주 처	한국수력원자력(주)
설계담당	박동윤, 강상혁, 성재원

Prologue_원자력발전소 하면 방사능이 가장먼저 떠오르고 이런 이유에서인지 위험·유해시설로 인식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 건물의 특성상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 소통을 힘들게 하고 있고 신형 경수로형 원전의 운전요원 실습훈련용 모의제어반건물들이라는 생경함도 한몫 거둘 것 같다.

하지만 현장답사 차 방문한 Site는 조용하고 잘 정돈된 원자력 교육원 부지내에 위치하여 하늘과 바다로 시원스럽게 트여있고 조경으로 잘 정돈된 4면이 개방된 여유부지였다.

다만 부지의 북동쪽에 거대 Mass의 보수 훈련동이 위치하고 있어 시야에는 다소 장애가 되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충분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esign Goal_현상설계를 시작하면서 가장먼저 고려했던 점은 에너지 기업으

로서의 친환경적인 이미지와 모의제어반 본연의 인재양성이라는 기능에 충실한 시설계획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Edu-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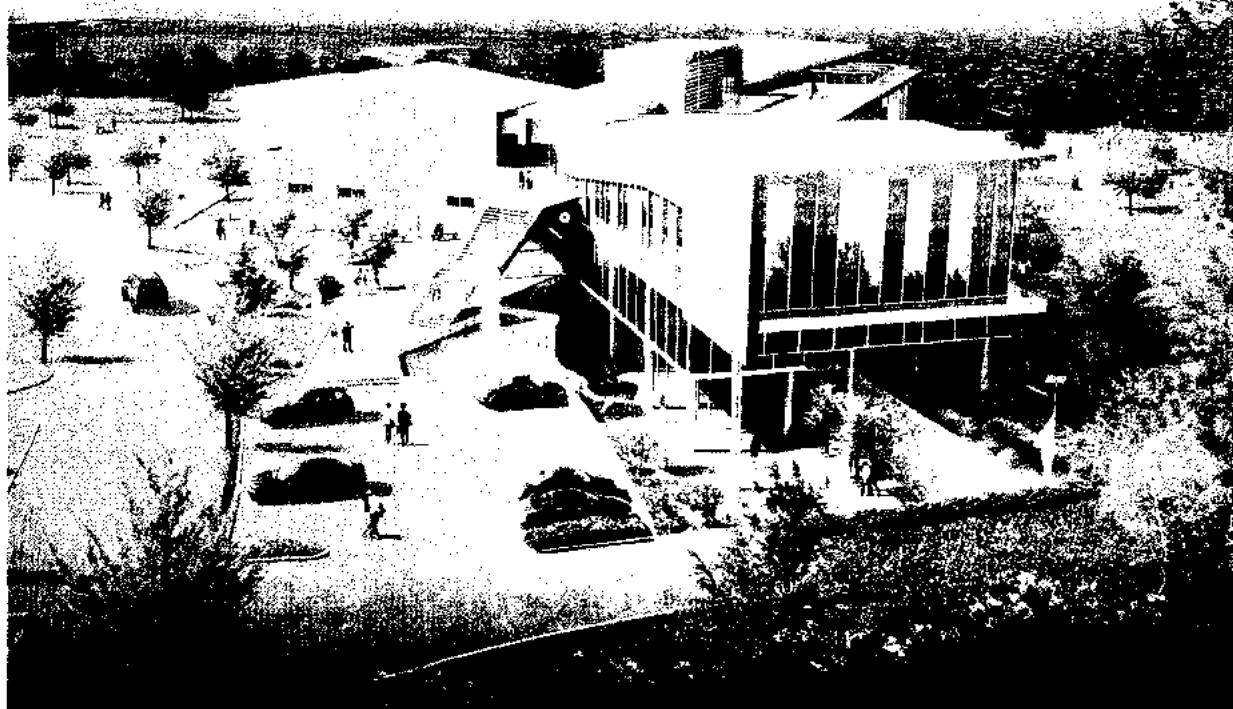
- 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시설계획
- 특정적 시설들의 그룹화, 영역화로 동선분리 및 편의성 극대화

Eco-Net

- 자연경관과 바다에 어울리는 환경친화적 건축
- 외와 면한 부분의 적극적 개방으로 열린 공간계획

Energy-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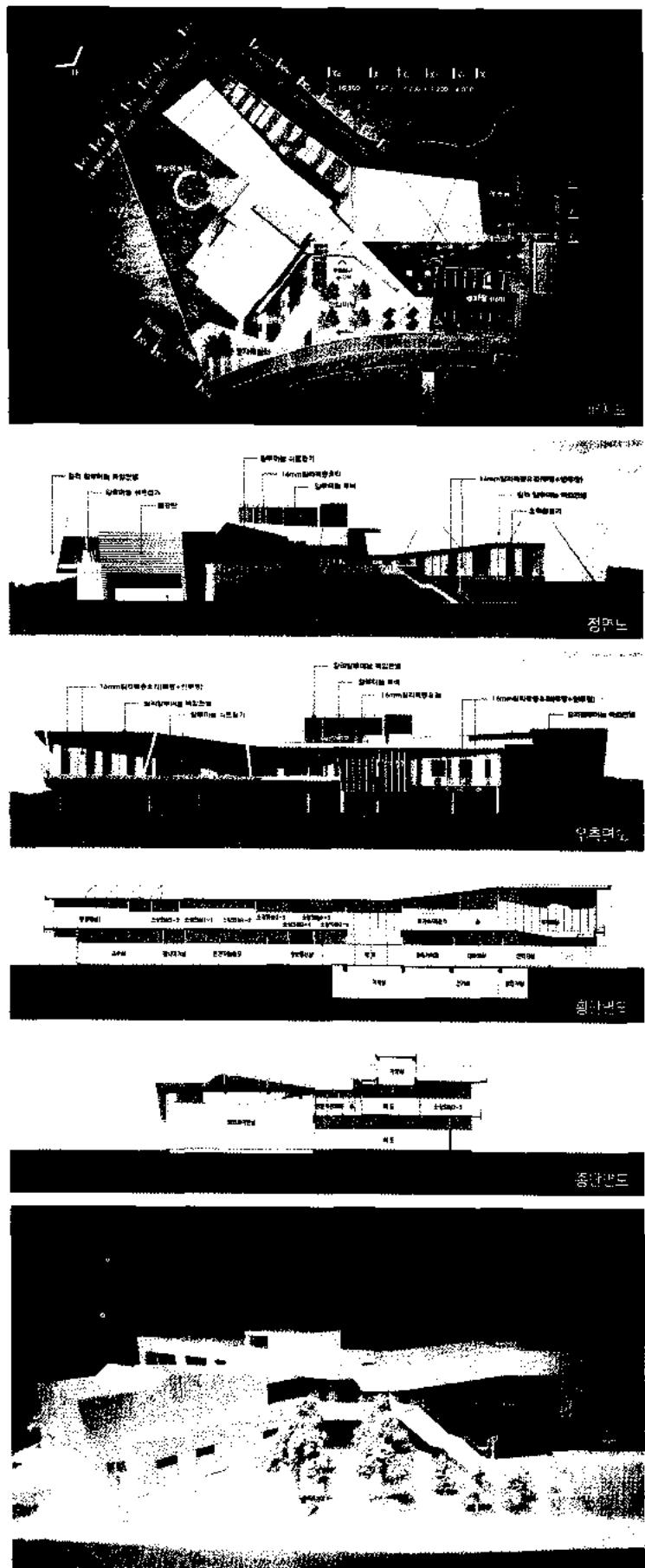
- 미래에너지기업으로서의 상장성 구현
-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하여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청정건물로서의 경제성 구현.



현상설계가 늘 그렇듯 발주자의 요구조건에 충실히하면서 어떻게 차별화 하느냐가 관건이기에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지침에 따른 요구실, 요구면적의 배치과정에서 지상층을 2층으로 하느냐 3층으로 하느냐였다(지침은 2~3층). 모의제어만실의 경우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준(가로, 세로, 층고등)을 철저히 설계에 반영하여야 했으며, 내부동선(유전요워/교육요워)과 외부동선(단체관람객) 즉, 3개 동선의 명확한 구분과 최단화와 함께 공용공간의 효율화 구축 및 진입공간 설계 시 외부공간으로부터 적극적인 건물내 유입이 가능한 열린공간 제시의 필요성에 따라 주어진 대지의 형상에 따른 인자 형태의 배치와 평면계획의 지상 2층 건물로 결정하였다.

형태계획에서는 지형의 흐름에 맞는 수평적 요소를 반복, 강조하여 획적인 연속성을 주었으며, 더불어 사선의 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낮지만 타이나믹한 Mass로 역동성을 꾀하였다. 또한 바다로의 전망이 좋은 서측은 창과 데크 등으로 열린입면을 두는 한편 자외선 차단을 위한 수직루버를 입면요소로 도입하여 시각적 다변화를 추구하였다.

언제나 그렇듯 힘든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환한 아침이 나를 맞이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다는 기쁨에 미소를 머금어 본다. ■



신고리 3, 4호기 모의 제어반건물

Singori #3, 4 Simulator Building

가 작 / 최홍구 장현원
(주)도담 건축사사무소
+ 임왕규 장현원
(주)건축사사무소 이도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임리 99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발전소 부대시설(문화집회시설)

대지면적 6,200.00m²

건축면적 1,827.45m²

연면적 3,316.39m²

건폐율 29.48%

용적률 49.47%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설계담당 도담건축_권기돈, 박대성, 김영재, 채대웅,

이상재

이도건축_이성범, 배주선

큐비즘에서도 나타나듯이 건물은 고정되어 있는 요소이나 건축물에 투영되는 자연의 살아있음이 건물로 하여금 항상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갖도록 한다. 커튼월과 중앙부의 필로티구조는 안위적이며 인공적인 재료일지라도 그 재료의 특성을 통해 자연과 융합하여 살아 숨쉬는 듯한 형태를 보여주며, 안동의 병산서원의 누각에서 보여지는 자연의 모습이 건축과 하나로 보이는 형상을 모티브로 착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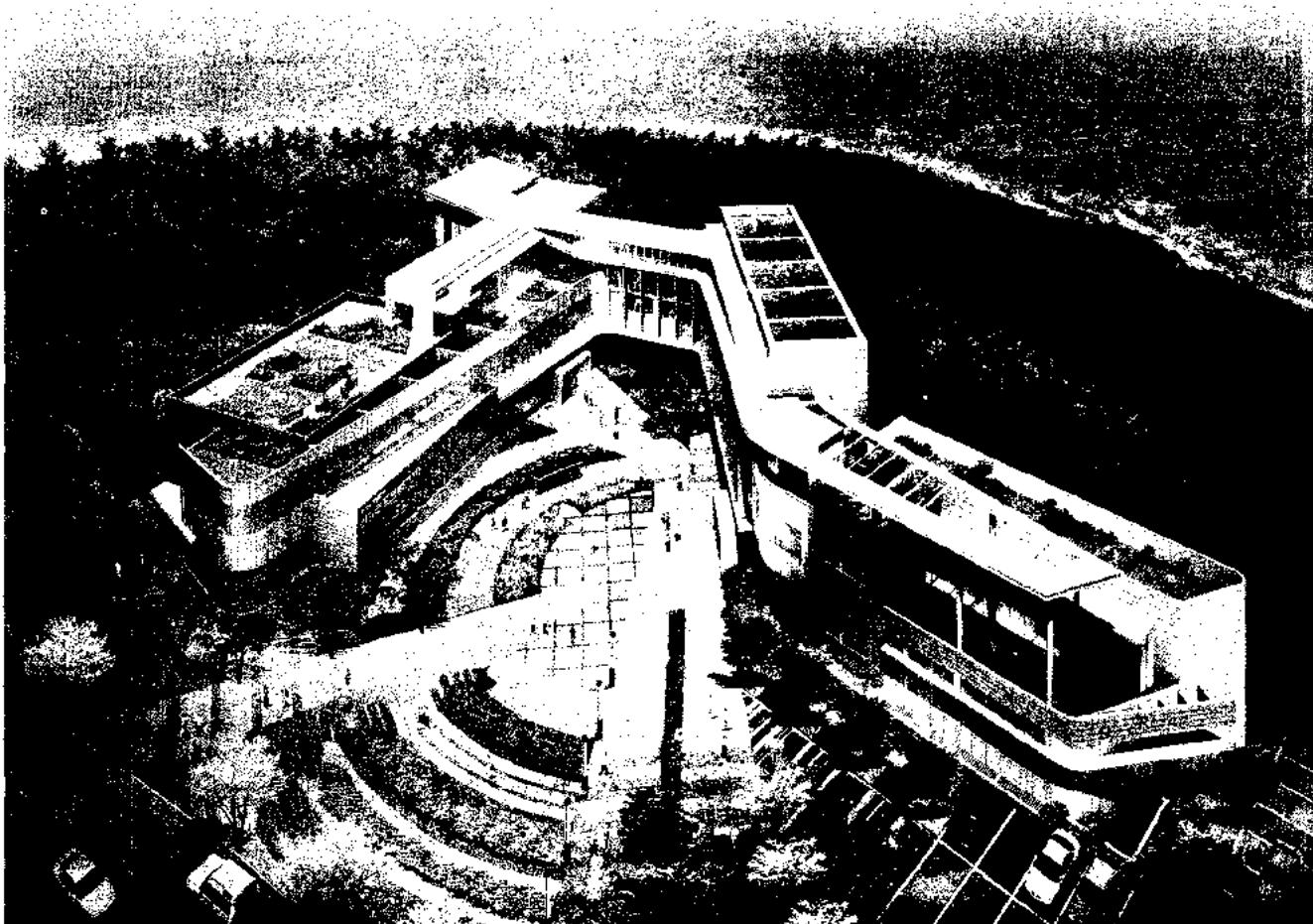
공간배치는 크게 세 가지 시설군으로 자연의 유입과 바다를 향해 열린 향과 조망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다양한 휴식공간과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교육공간으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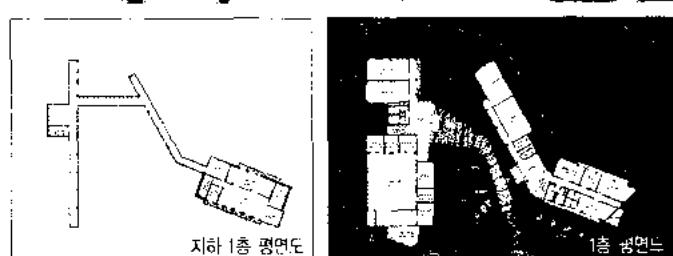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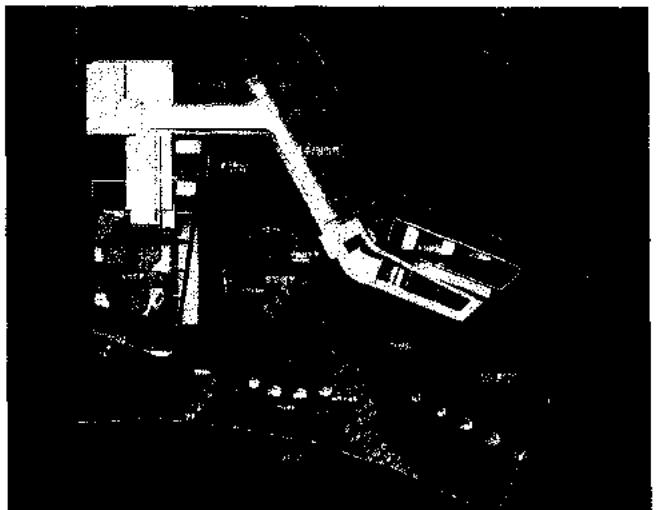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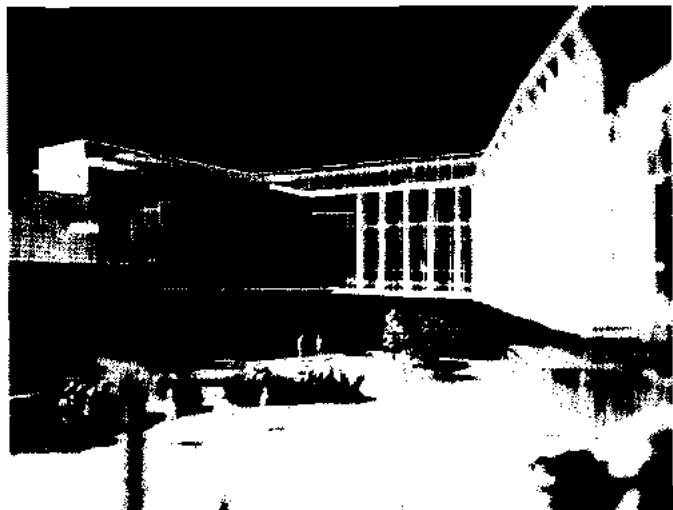
주진입은 교육원 주출입구로부터 연결되는 원형 순환도로를 통해 연결되며 보행자동선

은 주출입구와 연결되는 주진입부분과 기존 연수원 시설인 생활관, 후생동과 연결되는 부진입으로 구분되어진다.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업무행정 부분과 교육실습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그 중 모의제어반실은 도로인접부에 장비반입구를 배치하여 장비자재실과 동선을 연결하였으며 방문객편람실을 2층에 두어 실습공간과 방문객의 동선을 분리하였다.

건물의 형태는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로 바다의 파도와 호흡을 모티브로 하여 계획되었다. 개방형 연결부를 통한 프로그램간의 연결성과 독립성 확보로 합리적인 시설조성과 친환경적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신고리3, 4호기 모의제어반 건물은 자연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구성으로 운전요원 실습 훈련에 관한 교육, 훈련은 물론, 휴식과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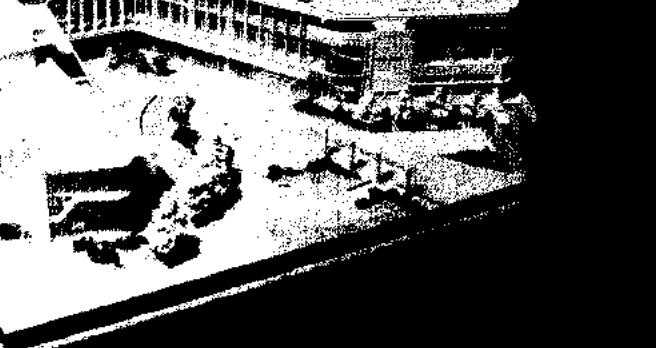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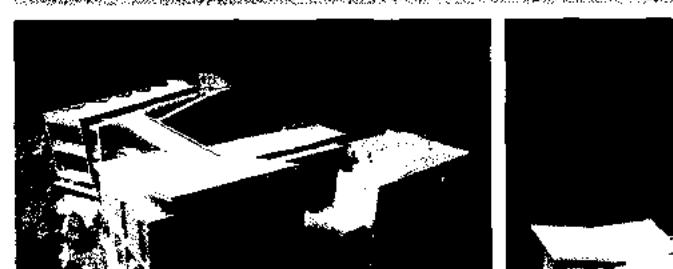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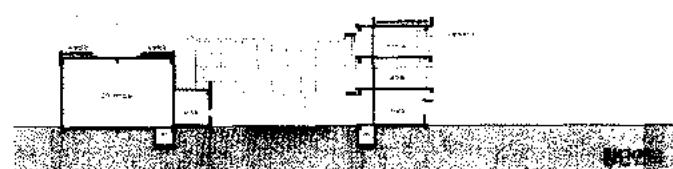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오산시 문화갤러리관

Osansi Culture Gallery

당선작 / 박세희 정해원
(주.지안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7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갤러리
대지면적	4,154m ²
건축면적	826,54m ²
연 면 적	3,040,77m ²
건 폐 율	19.90%
용 적 률	64.23%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발 주 체	오산시
설계담당	허승현, 이창희, 조혜진, 전주화, 김은영, 김지연, 김성식, 남정식, 유인성

문화의 흐름_새로운 문화예술 정보 제

공, 오산시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

도시의 흐름_오산시를 상징하는 조형

성, 함께 하는 이웃과의 커뮤니티

자연의 흐름_오산의 숨결 오산천과의

연계, 주민들에게 평화로운 환경제공

배치 개념

수변의 다양한 흐름(자연, 도시, 문화)을 대지 내부로 끌어들이고 유입된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나간다.

자연의 흐름, 도시의 활기, 문화가 만나 형성된 공간은 문화적 공명과 올림이 되어 도시의 새로운 물결로 펴져 나간다.

동선 계획

관람자 동선

- 주출입구를 전면도로에 배치하여 접근성 극대화
- 오산천변, 문화예술회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보행로 관리자 동선
- 별도의 출입구 계획하여 관람객과 관리자의 동선분리

차량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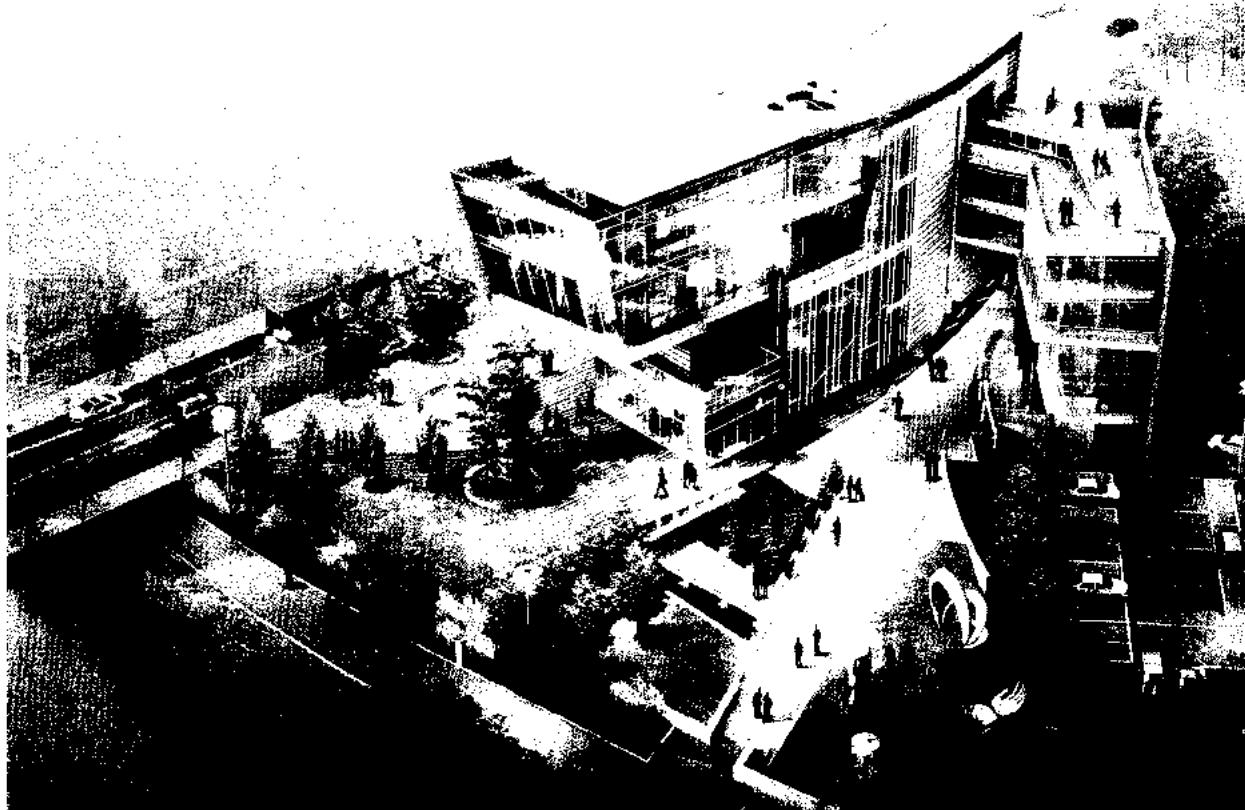
- 원활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 계획
-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차분리
- 문화예술회관의 주차장과 연계한 하역 동선

평면 계획

- 전시공간과 사무공간의 수평적 조닝 분리를 통해 명확하고 효율적인 동선 체계를 수립
- 층별 외부공간을 내부에 유입하여 다양한 휴게공간 조성
- 일렬로 배치된 계단을 통해 자연스럽게 전시동선 유도
- 자연조건을 활용한 합리적인 평면 계획

입면 계획

- 건물의 정면성을 이용하여 오산의 문화적 랜드마크로 작용하도록 계획
- 오산천, 팔봉산의 자연요소 및 건물의 공간적 흐름을 모티브로 입면계획
- 입면재료를 통한 공간적인 면분할로 건물의 흡입력과 개방감 강화
- 건물 외부 조명 계획을 통해 일몰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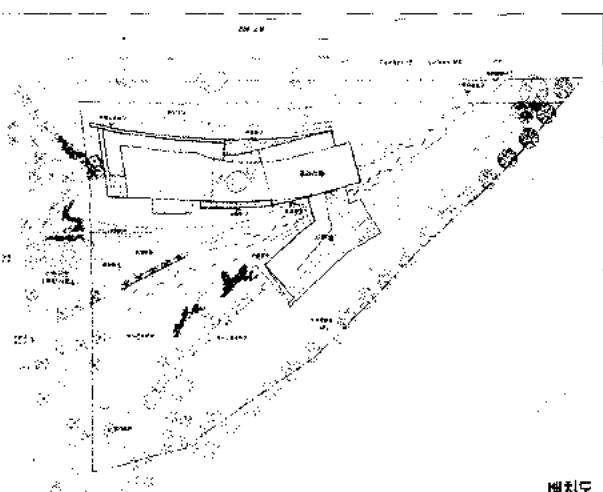
건물 이미지의 재조명 및 인자성을 강화

단면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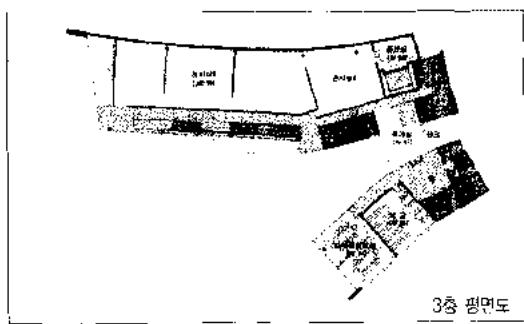
- 갤러리동과 사무동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효율적인 단면계획
- 기능별 조닝을 통한 독립성 확보 및 운영·관리·사무상 상호 유기적연계 기하도록 수직 및 수평 조닝
- 자연채광과 환기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절약과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

전시 계획

- 전시영역에 따라 필요시 2실 구획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인 전시 공간을 구성
- 다양한 전시성격을 감안하여 가변형 전시벽 사용 ■



배치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오산시 문화갤러리관

Osansi Culture Gallery

우수작 / 성진용
(주)양문디앤씨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7-7번지 외 2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대지면적 4,154m²
건축면적 822,01m²
연면적 3,150.95m²
건폐율 19.79%
용적률 61.77%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안동식, 박신형, 김재훈, 김근, 장규원,
박지영, 손은정

이제는 옛 풍경이 되어버린 따스한 햇볕
에 맑은 물이 흐르던 은빛계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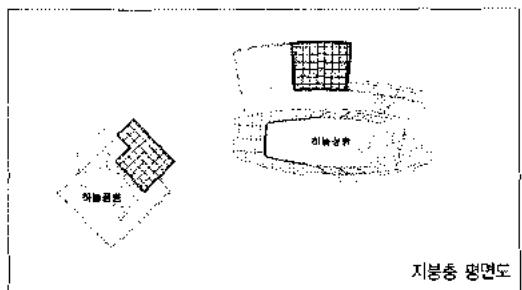
이 잊어버린 장소(은계)에 옛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의 한 조각을 재구성하여 빛(예술)과
물(환경)의 어울림을 현대적인 조형미를 가진
갤러리를 건립함으로써 새로운 도시문맥의
생성으로 지역적 정체성과 지역주민의 소속
감을 그리고 오산시문화타운의 Land-Mark
적 성격을 부여하고자 한다.

주시설인 갤러리동과 부시설인 관리동을 각
각 분리하여 지역주민의 관람동선과 관리동
선을 분리하여 배치하였고 중앙과 전면도로
측에 어우름광장을 계획하여 도심에 쉼터를
제공하고 오산천과 연계 열려있는 시민의 공
간으로 오산의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지
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창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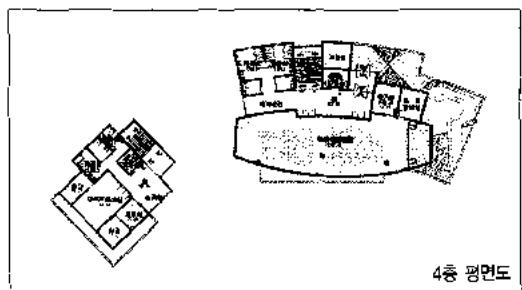
갤러리동의 전시실은 1층, 2층, 3층에 계획하
여 전시전용 수직동선으로 연결하고 동선 혼
잡을 줄이기 위해 1층 로비와 어우름광장 계
곡계단을 통한 2층 데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
도록 동선을 분산하여 전시시 지역주민 혼잡
도를 최소화하였다. 또한 2층 데크는 관리동
선과 연계하고 휴게시설겸 어우름광장의 관
람석으로 역할을 한다.

문화강좌실과 다목적강의실을 3층, 4층에 계
획하여 옥상의 야외공연장과 연계 지역주민
을 위한 문화이벤트공간을 제공하였다.
따스한 햇볕에 맑은 물이 흐르는 은빛계곡으
로부터 모티브를 추출 입면에 적용 매스의 높
낮이를 통한 전체적인 계곡의 형상화하고 유
리수직루버는 맑은 물이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모습을 형상화 목재수직루버는 자연을 상징
한다. 또한 수직루버는 자연채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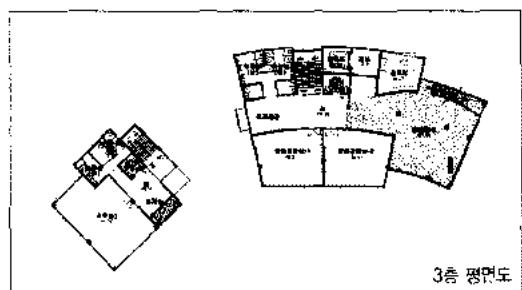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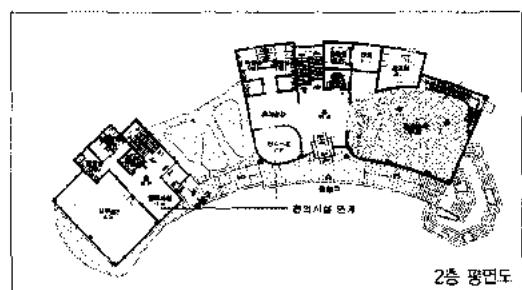
지붕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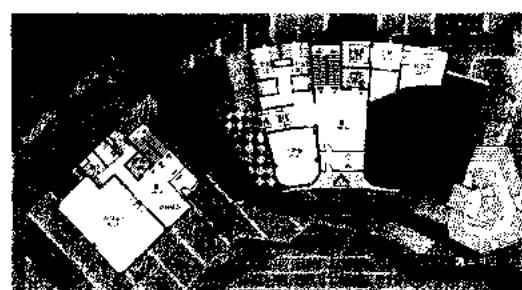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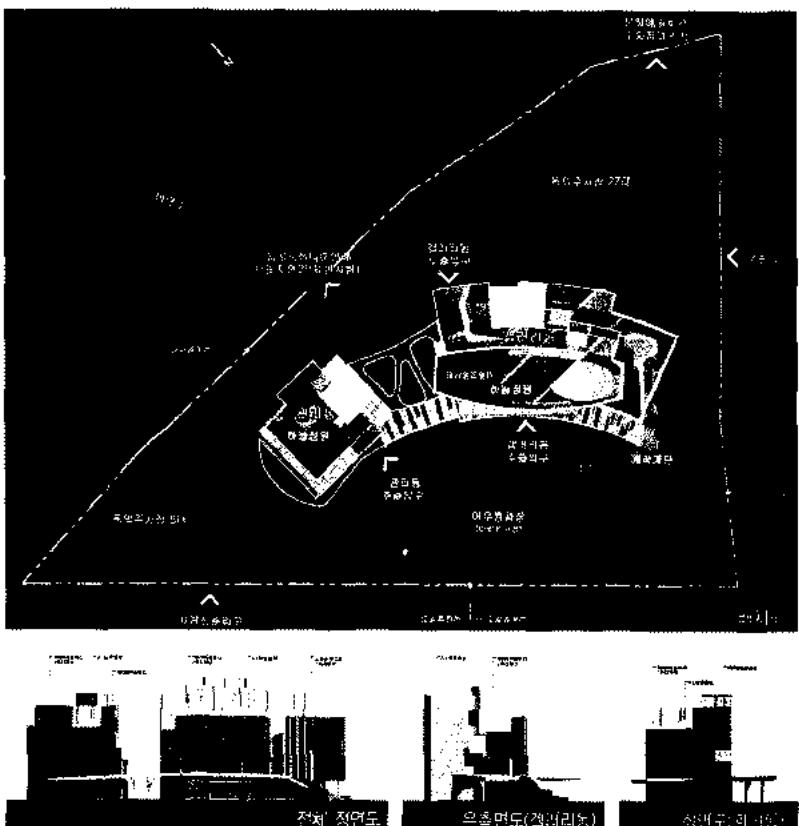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장면도

온돌면도(앵파리동)

온돌면도(화정동)



종단면도



횡단면도



오산시 문화갤러리관

Osansi Culture Gallery

가 작 / 김원운

(현인 종합건축사사무소)

+ 김광배(고려대학교 교수)

대지위치 오산시 은계동 7-7외 2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갤러리 및 사무실

대지면적 4,618m²

건축면적 917.96m²

연 면 적 3,116.61m²

건 빌 량 19.88%(법정:20%이하)

용 량 61.57%(법정:100%이하)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팀장 현인건축_이재필, 김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_김신철, 임용한, 최현우

오산 문화갤러리관 시설 신축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문화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시설 타운내에 문화갤러리관을 건립하여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유발 및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자연에서 오는 물의 파동을 대자 내로 끌어 들여 조경을 계획함으로써 자연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오산천으로의 Open View가 형성되어 있어 조망권이 확보하여 문화예술대극장의 배치를 거스르지 않고 또 너무 다른 매스 개념이 아닌 두 개의 배치가 서로 연결되어 문화공간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했다.

배치와 외부공간

- 주변 건물과의 어우러짐_오산문화예술회관, 오산천, 상가단지와의 조화로움을 강조
- 주변 건물들과의 보행자 통행_주변상가와 문화적 대규모 단지를 구성하는 것을 감안하여 주변 대지와의 연계성을 생각하여 설계
- 외부공간과 최소의 거리를 두어 가족들이

자연과 함께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공간
들의 구성

- 이용객들의 편의와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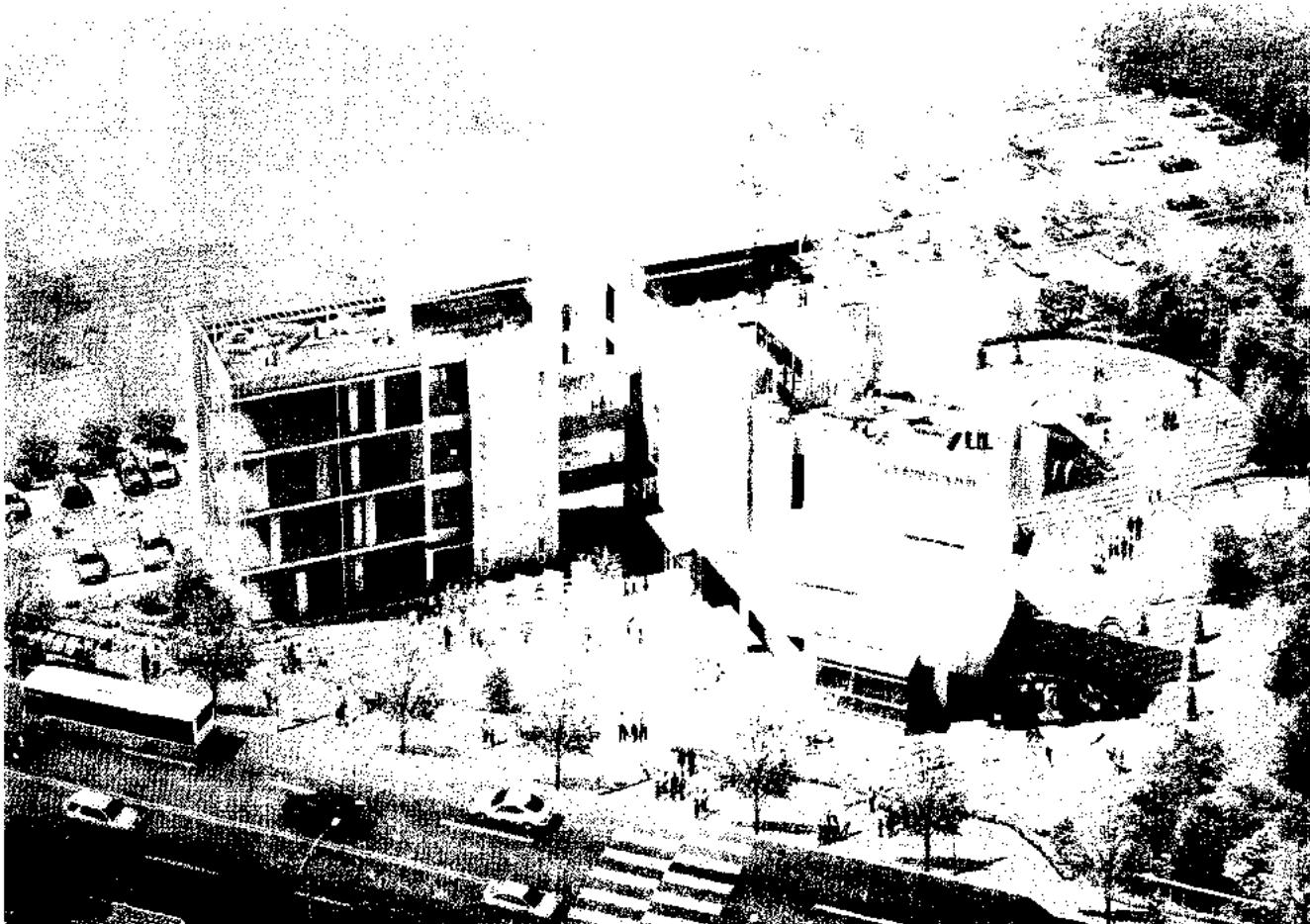
※인터넷에 빠져있는 현대인들을 다시 문화
관으로 끌어드릴 수 있도록 배치를 계획

동선계획

- 보행자 동선 – 갤러리동과 사무실동의 분리로 이용객과 직원 동선의 교차를 최소화
- 주변대지의 진입 – 주변 대지와 문화시설에서의 보행자, 차량 동선의 명쾌화
- 차량의 진입 – 20m 대로에서의 차량 진입
- 보행자동선과 차량동선의 분리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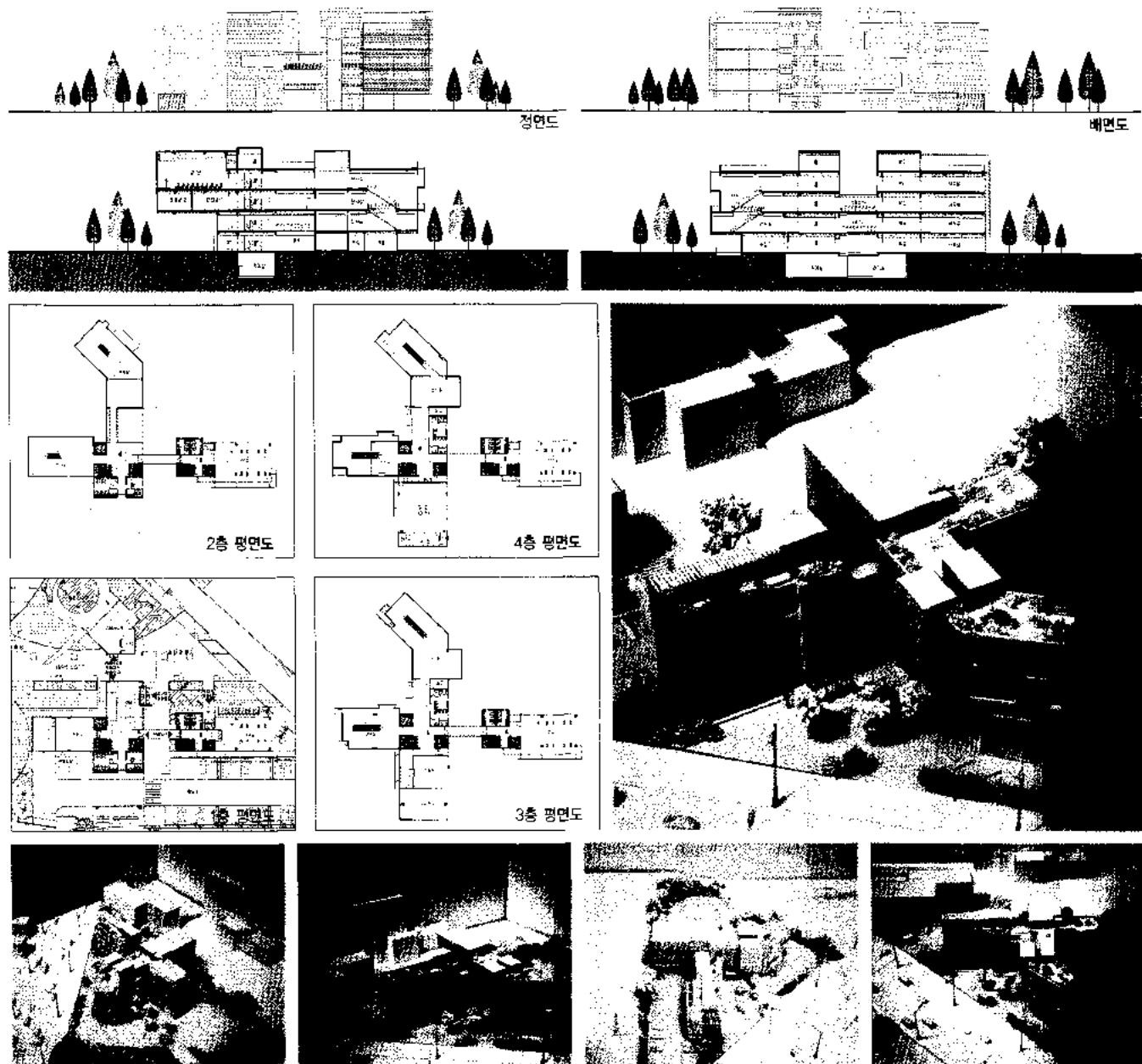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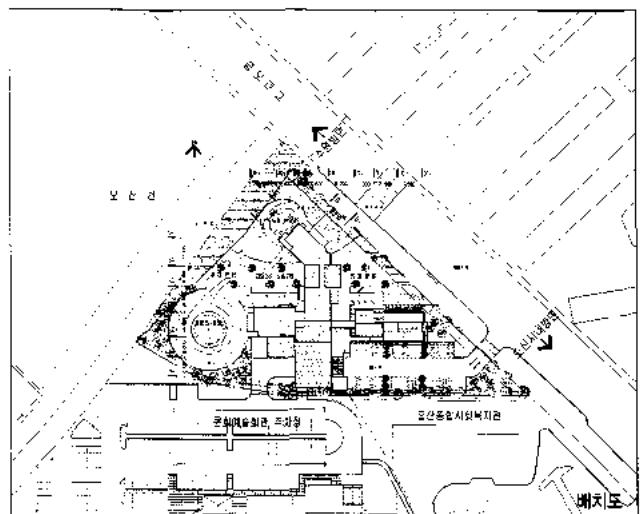
- 각 사무실에 테라스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
- 갤러리동과 사무실동을 분리하여 직원과 이용객들과의 분리배치
- 전시실을 북층구조로하여 전시실의 기능을 극대화 및 측광창을 이용한 채광효과도입
- 많은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공간으로써 서비



스동선의 최소화

입면계획

- 문화에서 나오는 권위적이고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친근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수 있는 공공 공간의 이미지를 대두 시킬 수 있는 계획
- 문화갤러리라는 이미지를 표출하기 보다는 언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이미지 강조
- 단순한 폐스에서 서로다른 퍼坦을 사용하여 시각적 분절을 유도
- 현대의 의미에 따라 메탈페널을 사용하고 전통의 의미에 따라 목재페널을 사용하여 현대와 전통의 소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여 입면을 설계
- 서로다른 두가지의 성격을 띤 관리동과 갤러리동을 서로 연결하듯 사람과 문화를 연결 할 수 있는 매스의 개념을 도입하여 설계
- 관리동의 보이드한 매스와 갤러리동의 솔리드한 두가지의 매스를 연결
- 다리를 통한 분절·통합의 의미를 부여하여 설계



사림(士林)의 도시(上)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회를 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딥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쇄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쇄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난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쇄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쇄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상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타래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쇄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혹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선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과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를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뛰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 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쇄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램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물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자구를 만들어 가야하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목 차

1. 어르(舊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아_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_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체지도도 읽기_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gyang Map
4. 실경신수, 구담동과 옥은동_The picture is drawn from mountain top of guadem, okusun
5. 도계 0 활이 현각으로 어물렀던 도시 옛 단양_The town Danyang, a place for whang-lee was mayer
6. 선비들의 계회(對會)장소 삼선수석로(參僉水石路)_A meeting place for Chu-tz scholars, the Samsunsunsuk road
7. Walking space, 운계 구국로(垂溪九谷路) Walking space, the Ungaegugok road
8. 등희대로의 고개, 속령_A Ridge of the way of Bonwha road, guklyung
9. 주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_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lyung
10. 풍기현과 사림 The Chu-tz scholar in I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_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한재수 교수는 한밭대학교에서 회사,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촌부 라제로 한옥 신안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권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하였다. 차서로 건축학자가 돌아낸 「한국기생의 바램」(2002, 도서출판 옛터), 이 있으며 조선시대 읍지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전라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아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

-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gyang Map -

시각이 자장을 너머선지 오랜 탓일까. 달이 기울수록 강바람은 더욱 거세지고 매를 차졌다. 나는 농밀해져가는 어둠에 쫓겨 상진대교를 빠져나와 도전리 일대 언덕 너머에서 숙소를 찾기 시작했다. 바람이 거세진데다가 피곤이 몰려와 그런지 온몸은 오들오들 떨리고 머리도 뚝지간 했다. 설상가상으로 기분마저 착 가라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이곳을 찾은 까닭에 접하게 된 낯익은 풍광들이 주는 반가움으로 가슴 뻐근한 구석도 있었다. 하지만 상진대교를 돌아선 기분은 허탈하고 스산한 게 영 말이 아니었다. 어떻게 해서 든지 시급히 찾아내야 할 사실들은 바로 변형 이전의 단양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십 년 전 빛바랜 사진처럼 내 뇌리에 기억 된 옛 단양, 하방리의 모습은 소백산 밑 제일의 풍광 좋은 고을이었으므로 원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 더 절실했다. 그런데 막상 신단양에 가려져 쇄락한 도시로 전락해버린 이곳 실상을 접하게 되자 나의 방문 목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은 이내 세월의 무상함 같은 서글픔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려저려한 생각에 밀려 발길 끌는 대로 가다보니 어느 듯 별곡리 세거리리를 지나 둔덕 너머 도담 쪽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네 갈래 길 중 한 갈래가 다리건너 고수동굴을 지나 영춘으로 가는 길이었고 곧장 가는 길은 도담 삼봉으로 가는 지방도였다. 길가에 서너 채의 모텔이 있었지만 나는 굳이 도담 쪽으로 길을 잡았다. 민박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둠 속을 한참동안 휘돌아보았을까. 차를 길섶에 세우고 마을 길로 내려서자 먼데 개짓는 소리가 제법 고즈넉히 들려왔다. 드러나는 것은 지붕 형체뿐인 어둠 속에서 그나마 불을 밝히고 있는 허름한 민박집을 발견하자 주저하지 않고 그곳에 여장을 풀었다.

사립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졸음에 겨운 듯 나를 맞이한 것은 초로의 여주인이었다. 그녀는 선잠을 깨었는지 연신 하품을 하면서도 무심한 표정으로 한밤중에 찾아온 고객을 방으로 안내했다. 좁은 마당을 가로 질러 토방에 올라서서 지게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섰다. 두평 남짓한 방안의 따뜻한 온돌 열기가 발바닥부터 아려왔다. 조금만 비틀어도 어깨뼈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아 피곤에 절여 있었던 몸을 구들방 아랫목에 눕히자 나는 이내 무섭게 깊은 잠에 빠져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등줄기에 흥건한 땀. 문틈을 헤집고 들어온 생솔가지 타는 연기내음의 싱그러움과 타닥거리는 잡 솔가지 타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냉기 속에 뒤섞여 창틈으로 스며드는 그 매캐한 내음은 언제 맑아도 정겹고 싱싱했다. 한껏 심호흡을 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먼데 저잣거리 저편으로 이따금 짓어 대던 개소리는 어느덧 뚝 멎어있었고 뺏골을 쑤신 던 바람도 지쳤는지 자자들자 문풍지 사이로 바람한 점 흐르지 않던 적막강산 같은 골방 구들에 늘어진 나를 정작 깨운 것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한 어둠의 빈자리에 서서히 창호지를 비집고 스며들기 시작한 불빛이었다. 앞산 등선너머로 미명이 채 물어 오르기도 전인데 벌써 새벽밥을 지으려는지 안채에는 불이 밝혀져 있었고 뜨락에 깔린 어둠은 부엌의 스산함에 밀려나고 있었다. 갑자기 바깥세상이 방문을 허물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화닥 놀라 불을 켠 나는 그제야 달아오른 벼열등불로 희뿌연 해진 방안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다. 대략 두 평 남짓한 사방 8자 정도 크기의 어두운 이방이 소유한 장식품이란 벽에 걸려 있는 햇대 뿐, 탁자 하나 없는 이방은 혼자 자기엔 안성맞춤인 크기의 방이었다. 하지만 이 넓이가 무소유, 무위 자적하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담는 방(方) 8자의 크기를 닮았던 탓이어서 그런지 이 방은 나에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아늑함을 주었다. 늘어진 하품으로 간밤의 여독으로 천근같이 무거워진 눈시울을 간신히 몰아세운 나는 이불깃을 제치고 바람벽을 바라보고 일어나 앉았다. 냉기 속에 뒤섞여 창틈으로 스며드는 그 매캐한 내음은 언제 맑아도 정겹고 싱싱했다. 나는 한껏 심호흡을 했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다. 가만히 이불속에 뻗은 두 다리 사이로 따뜻한 온돌의 열기가 등줄기를 타고 온몸에 차오른다.

곰곰이 따지고 보면 옛 단양의 원래 모습에 대한 궁금함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남한강을 끼고 형성된 경관 회랑 속에 상진리 그리고 하진리와 단구협이 있고 역촌 장림과 용부원을 교통거점으로 삼고 중심에 옛 단양이 자리하고 있는 점, 또한 이를 모두 단양 팔경과 함께 하루거리 안에 분포해 있다는 사실은 인간적인 크기의 도시구조와 경관이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암시일지도 모르는 일이

었다. 뿐만 아니라 단구협이라는 명칭 자체가 퇴계 이황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이곳의 많은 자연 경관이 사람에 의하여 이름 지어졌던 점 그리고 이곳이 소백산 너머 가는 거점 도시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이곳은 뭔가 영남의 유림과도 깊은 관계가 있을 듯싶었다. 그리고 단양이란 명칭이 연단조양(練丹調陽) 즉 신선이 사는 산기 좋은 고장이라는 말 만들어도 예사로운 이름은 아니었다. 신선과 선비, 이들이 서로 어우러질 만한 장소가 이곳에 산재해 있었다면… 그렇다면… 혹시 이곳은 봉화대로를 넘나들던 사람의 계화(契술)장소로서 적학했던 곳은 아니었을까. 만약 지금까지 띄엄띄엄 떼어놓은 이런 사실들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난다면… 그간 조사한 내용을 얼핏 넘겨만 짚어보아도 그들은 미음완보(微吟緩步)하는 여유를 가지고 사색하며 걷기를 좋아 했으므로 단양이란 도시는 단순한 산촌이 아니라 Walking space, distance와 관계가 깊은 도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틈새를 차고 들어온 높낮한 새벽 한기가 방안에 서린다.

헛기침과 함께 얹치락 뒤치락 밀려오는 생각에 시달리는 나를 더 이상 잠을 청하기 힘들게 만든 것은 어찌면 이곳은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 근린공원을 지닌 전원도시로 개발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옛부터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게다가 만약 그것이 사실일수 있다면 날이 밝으면 일정을 다잡아 오늘이라도 당장 사람과 이곳 자연의 관계 속에 형성된 장소성을 표현한 문학적 컨텐츠들부터 먼저 면밀히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야 퇴계 이황이 이곳을 왜 좋아 했는지를 알게 될 터이고 놓시에 진작부터 그들이 남긴 많은 행적 속에서 사람의 도시에 대한 실체를 찾아 답사하려 했던 나 나름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해 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저런 속사정이여 어쨌든 오늘해가 지기 전 까지 퇴계 이황이 살던 시대, 단양의 도시환경에 대한 가닥을 잡아낼 양이라면 서릿바람에 길을 나서기 전에 윗목에 팽겨 쳐 논 행구속에 잠자고 있는 자료의 내용을 하나하나 좀 더 상세히 꼽씹어 볼 필요가 있었다. 한시라도 무거운 머리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실증이라 우선 지도에 기록된 내용들을 읽으려고 윗목 머리맡에 놓아둔 배낭에서 복사해온 해동지도와 대동여지도를 다시 꺼내 펼쳐보았으나 피곤에 놀린 눈까풀은 추위와 부관하게 무겁기만 했다. 애써 징긋 눈썹을 치켜세운 한눈에 바라본 18세가 중반 대략 1750년경 편수된 해동지도의 단양 도시구조는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한 백열등 아래 서서히 빼대를 야무지게 드리내기 시작했다.

당시 단양은 4가닥의 외부진입로를 갖고 있었다.

비교적 안근도시와 교류가 빈번했던 외곽도로가 북쪽 강원도 원주에서 제천을 거쳐 단양으로 내려오는 두개의 통로의 중심역이 소야촌면(현재 저성면)의 적성이었다. 여기서 들판 길을 걷어 삼십여리 내려오면 하전리 포구가 있어 거룻배를 타고 멀리 두악산을 바라보고 남한강을 건너 원편으로 길을 돌아 우화교 석교를 건너면 단양 읍내면으로 가게된다. 그리고 또 다른 깊은 매표에서 도담삼봉을 원편으로 강변길을 끼고 한 삼십여리 상거한 상진리 포구



(그림 1) 해동지도로 읽는 단양의 도시구조

에서 남한강을 건너 오른편으로 길을 잡아 중도리 노랫길을 걸어 성재산자락을 돌아서면 읍내면 하방리로 들어오는 길이 있었다.

그런데 이 두 길보다 중요한 도로가 바로 충주에서 청풍을 거쳐 계란재를 넘어 단구협을 지나 하방리에서 우화교를 건너 읍내면으로 진입하는 일명 봉화대로인 좌로이었다. 이 도로가 바로 객사와 판아 앞을 지나 언덕을 올라 향교앞 길에서 십여리 떨어져 있는 장립역을 지나 용부원을 거쳐 죽령 너머 영남으로 가는 남북을 잇는 주도로였다.

부자연히 지도를 읽는 가운데 문득 단양남쪽으로 소백산과 황장산 능선사이 두악산과 덕절산 자락을 끼고 읍내부 도로를 따라 뻣눌려 행보를 나설 수 있는 두 가닥의 남쪽 산행 길을 발견하게 되었다. 실개천을 따라 끊임 듯 이어진 가느다란 실선이 바로 그것이었다. 전능빛이 하얗게 내려앉은 해동지도위를 보일 듯 말 듯 기어가는 가느다란 실선중 하나가 어둠을 헤치고 자신을 드러낸 운계천을 따라 사인암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계구곡이었다. 이 길을 연이어 단양천을 따라 상, 중, 하선암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길이 바로 삼선수석로이었다. 말하자면 이 길이 단양의 읍내부도로는 배후에 어느 길을 택하든 길을 따라 사나흘 집을 나서더라도 신선이 부럽지 않을 만한 자연경관을 즐기고 단양으로 뇌둔아 옮수 있는 산책로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 단양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경관의 흐름을 갖고 있음이 분명했다.

하얗게 피어오른 입김과 함께 터져 나오는 외마디 소리에 놀란 방안의 적막감은 이내 여명속으로 사라져 갔다. 이러한 도로 체계라

면 퇴계 이황이 살았던 시절 단양은 남한강변의 수변경관과 지천을 끼고 걸어 오르면 계곡과 벽판이 주는 자연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매우 뛰어난 경관 지점을 지닌 도시였다는 것쯤은 누구라도 금방 깜새를 알아챌만했다. 마치 마당을 쓸고 가는 바람결 소리를 타고 문풍지 사이를 헤집고 들려오는 누군가의 두렵두련 하는 듯한 말소리처럼 멀리서 들려오는 듯 귀가에 맴돌았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허물어져 가고만 있었던 단양의 참모습이 이제 해동지도 저편에서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소백산과 남한강이 만들어낸 자연경관의 거점 도시 단양, 그래서 조선시대 많은 선비들과 화원들이 이곳을 찾곤 했었을 것이다. 해동지도는 읽으면 읽을수록 퇴계 이황이 이곳에 오고 싶어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엄습해왔다.

결국 이 생각으로 내 가슴은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고 그 두근거림은 문밖이 차츰 밝아오기 시작하면서 심사를 더욱 어지럽혔다. 정말 이렇게 단양에 대한 감성적인 공감대가 커지다면 나의 글은 논리를 앞세우는 먹물근성의 역사학자들과 끊없는 모진 입씨름과 닉달을 겪으며 섭산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서서히 속에서 일기 시작한 것이다. 만약 이런 판국이 벌어진다면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림과 원림에 대한 답사는 고사하고 지금까지 써온 글들조차 세상 빛을 볼 가망성조차 없어질지도 몰랐다. 이번 행보를 선 듯 나선 게 크게 일을 저지른다는 후회도 감돌았지만 이왕 내 친김에 갈 때까지 가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에 훌어진 마음을 다잡고 뭔가 더 뚜렷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소박한 아집을 내세워 스스로를 타일렸다. 처음 생각은 가볍게 도로와 경관 그리고 도시구조를 들여다보고 단양 답사 후 사안에 따라 일을 벌릴 작정이었으나, 해동지도를 읽으면서 고지도는 해석여하에 따라 워낙 예기치 않은 변수들을 많이 만나게 되자 자칫하면 앞일을 예측하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염려때문에 가능한 지도를 상세히 읽고 행보를 나서기로 했다.

간략하게 그려진 단양, 읍내면에는 군사방어시설인 읍성이 없었다. 그리고 민가에 대한 표기도 없었다. 그렇다면 주기에 수록된 2187호의 민호는 어디 있단 말인가. 조선정부의 지도 제작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었지만 조세를 정확히 견어야한다는 목표는 분명했으므로 민호의 수와 분포에 대한 기록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였다. 이런 점에서 해동지도의 주기로 굳이 민호수와 전답의 결전수(結田數)까지 표기한 것은 지도에 읍, 면제에 대한 기록속에 이들의 존재를 암시할 요량으로 생략했는지도 모른다. 현데 바로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식, 바로 읍, 면제는 일제 강점기에 비롯된 것이라는 것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역사적 사실이기도 했다.

일본 제국주의는 조선총독부제령 제1호 면제(1917년 6월 9일) 및 조선총독부령 제34호 면제시행규칙(1917년 6월 9일)을 제정하여 1917년 10월 1일 일본인 거주자가 비교적 집중되는 면을 지정면(指定面)으로 정하고 지정면이 아닌 면은 보통면(普通面)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31년 4월 1일 이 지정면을 다시 읍으로 개칭하였다. 이렇게 성립된 일제 강점기 읍, 면제는 광복이후 그대로 담습하여 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지방행정구역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인구 2만 이상의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기서 한가지 차이점은 단, 인구 2만 미만인 경우에도 군사무소 소재지의 면(面)이나 읍이 없는 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에 있어서 그 면 중 1개 면은 예외적으로 읍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는 점 뿐이다. 이렇게 변형된 읍의 개념은 1949년 지방자치법이 시행되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가졌으나 이후 지방자치실시가 중단되면서부터 자치단체의 법인격을 상실하고 군의 하부단위가 되어진 이래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시행되었을 때도 읍은 여전히 군의 하부행정구역으로 규정되어져 있다.¹⁾

이 문제를 더 이상 번거롭게 떠벌리지 않더라도 해동지도의 단양 7개면과 읍내면의 실체는 우리 상식을 뒤 짚는 조선후기 이미 읍면제가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단서였고 단양군읍지는 면(面)을 구성하고 있는 리(里)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임이 분명했다. 조선시대 지방군현은 동족마을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읍, 면, 리제로 구성된 체계적인 지방행정단위를 지닌 도시였던 셈이다. 지금까지 마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족마을을 조사했던 관계로 은연중 사람들이 조선시대는 군현 아래 동족취락이 마을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단양의 민호, 이들은 대부분 조선이 농업을 주산업으로 성립된 봉건국가였던 까닭에 상당수 향리에서 농지를 경작을 하고 살았을 것이므로 나머지 6개면에 분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작 밝혀야 할 사실은 읍내면을 구성하는 민호는 어디에 분포했을까 하는 점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궁금증은 실타래와 같이 꼬리를 물고 한울 이어져 갔다.

주제와 동떨어진 듯한 민호의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실은 건축과 도시사를 다루면서 이만한 구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그리 쉽지만은 않은 터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개해 가는 과정이 다소 답답한 구석이 있더라도 쉽게 놓아버리기에는 어딘가 많은 아쉬움이 남았다. 게다가 민호의 문제는 마을 구조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만큼 다루기 나름으로 연구 성과 한 편 정도는 두둑하게 견讧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속내를 밖에 드러내고 진행시킬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으로서는 이것과 퇴계 이황의 인연을 다잡아 확인할 처지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이 지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읍내면 내부 도로를 중심으로 향교와 관아 그리고 객사가 성재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고 도로 건너 단양천변 사이에 두 채의 루정(樓亭) 건물이다 싶어 지도를 읽기를 계속했다.

1) 1994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읍은 시·군의 하부행정구역이 되었다. 읍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곳은 읍사무소이고, 최고 책임자인 읍장은 일반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임명은 소속 시·군의 시장이나 군수가 하게 되어 있다. 읍은 다시 리(里)로 행정구역이 세분된다. 2009년 1월 현재 총 211개 읍이 있으며 지방별로 보면 부산 2, 대구 3, 인천 1, 경기 31, 강원 24, 충북 14, 충남 24, 전북 14, 전남 31, 경북 36, 경남 20, 제주 7개 읍이 있다.

찬기운이 흘러불자락을 파고드는지 어깨가 으스스 내려앉는다.

오경(五更)을 너머 인시(寅時)가 임박하여 닭이 해질 때가 기까워진
탓인지 풋마루로 난 장지문이 희미하게 밝아와 문을 열어보니 숙무
(宿霧)가 겹겹이 들에 쌓여 있다. 벌써 슬금산 봉우리가 뿐옇게 밝아
와 등성이 노송가지가 꺼웃꺼웃 보일정도로 새벽을 깨어나기 시작하
새벽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요정(二樂亭)이라는 정자였다.

이요정(二樂亭),

혹시 이 건물이 이요루(二樂樓)인 것을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1872년 지방도를 조사해보자 충주목 단양군도에
이 건물은 남한강과 단양천이 만나는 지점에 해동지도와 같은 지
점에 이요루로 표기되어 있었다. 원래 이요루(二樂樓)는 두개의 강
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지는 곳의 풍치 좋은 정자에 붙여지는 정자
를 말했으므로 이와 같은 이름의 정자가 춘천 봉의산에도 있었다.

하지만 단양의 이요루는 이와는 전혀 뭔가 색다른 내력을 갖고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물의 현판 글씨는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1453년 계유정난 때 김종서와 같이 사사위 안평대군³⁾의 것이었고
이 건물에 대한 기문으로 유명한 이요루기(二樂樓記)를 남긴 탁영
(濯纓) 김일손³⁾(金熙孫 1464 세조10년~1498 연산군4년)은 되계
이황이 태어나기 7년 전인 1498년 무오사화(戊午史禍) 때 능지처
참을 당해 죽은 선비였다. 그리고 안평대군의 동생 금성대군⁴⁾은
1457년 세조3년 소수서원이 있는 순흥에서 이보흡과 같이 역적모
의로 체포되어 안동에서 사사되었던 것이다.

익일 군수황후린 청등 翌日 郡守黃侯璘請登.
나음날 군수 황후린의 청으로 류에 올라
수여 반함이조 遂與攀檻而眺.
난간을 잡고 둘러보니
즉연 비이 계탁 則燕飛而鷄啄.
매마침 날아오르는 세비와 먹이를 쪼는 닭소리

작조이 객지 鶴噪而客至.

매를 지운 까치울음이 나그네에 이르는 구나.

령운연어 상악 嶺雲連於上岳,

고개 구름은 산마루에 연해 있고

추광말면수 秋光末錦繡,

가을햇살은 수를 놓은듯

충만첩장層巒疊嶂,

충증이 올라선 산봉오리 겹겹이 늘어선 산자락

환옹호일루 이남천지류 環擁乎一樓 而南川之流…
루대를 감싸고 남쪽에 강물이 흐르니...⁵⁾

성종 23년 1492년 안평대군이 남긴 이요부라는 현판을 바라보며 이요루기의 한부분인 이 글을 쓴 사람은 탁영 김일손이다. 그는 나이 28세 때 단양을 지나가며 이 글을 썼는데 한 해전 그는 10월 충청도 도사로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한 소릉복위 상소(1차)를 올렸고 그가 이요루를 방문한 해는 자신의 스승 김종직과 존경하던 김기손·남효온이 별세한 해이기도 했다.

이요루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람의 수난사(水牛)무오(戊午), 갑자(甲子), 기묘(己卯), 을사(乙巳), 壬禍가 떠오르자 아득해진 나는 답답한 마음에 햇대에 걸어둔 겉옷을 걸쳐 입고 장지문을 열고 신발을 끌고 뜨락에 내려섰다.

밀려오는 가득한 찬 기운이 폐부를 파고든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보게 된 이 집 구조는 안방과 전녀방 앞에는 재벌 반듯한 쪽마루가 있고 불 밝힌 정지 옆에는 찬간이 있는 전형적인 중부 지방의 △ 자형 주택이었다. 그리고 마당 귀퉁이에 감나무가 서니 그루 서 있고 뒤 곁에는 낙은 바자가 쳐져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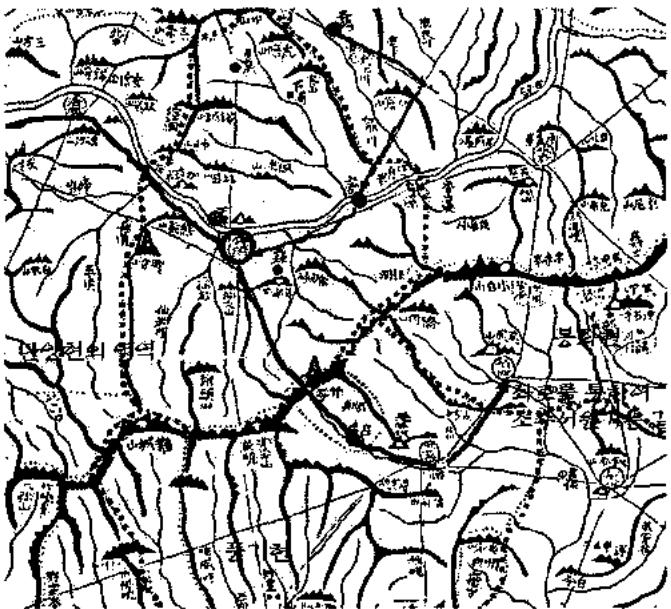
측간에 들려 늘어지게 소피를 갈기 나는 으스스 떨며 방으로 들어왔으나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해지는 것이 통자료가 눈에 읽히지 않았다.

2) 우선 세종의 셋째 딸들도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이다. 1428년(세종 10) 안평대군에 봉하고 다음해 좌부대언(左副大言) 정연(鄭淵)의 곁과 결혼하였다. 1430년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한경도에 육진(六進)이 신설되자 북면 경계인무를 맡아 아인들을 토벌하였다.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과 제후, 수양대군(首陽大君) 측의 두신세력과 맞서 인사행정의 하인이 황포장사(黃票長事)를 장악, 측근의 문신들을 요직에 앉혀 이때부터 조정의 배후실력자로 등장하였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대군은 황포장사를 폐지하였다. 그 뒤 실권회복에 힘썼으나 1453년 계유정난으로 황보인·김종서 등이 살해된 뒤 강화도에 유배되었다가 고동에서 사사되었다. 그의 아들 이우자 역시 연진제에 의해 처형되었고, 아내는 관부가 되었으며 이우자의 아내이자 벼느라인 오대(五臺)와 딸 무심(無心) 등은 권립의 집 노비로 분배되었다. 평소에 안경(安寧), 빙행년(冰亨年) 등 당시 서화가들과 자주 교류를 가졌으며 시문에 뛰어났고 서화도 매우 뛰어났다. 글씨는 조센부체로 활달하고 자연스러우면서 흥(興) 곁(骨)이 들어 있으며 풍류문화를 일컬던 그의 높은 인품이 그대로 반영되는 듯하다.

3) 본관은 김해(金海), 자는 계은(季恩), 호는 탁영(濯纓) 또는 소마산인(少馬山人)으로 사헌부 집기(金記)의 이들이나, 조선조기(朝鮮朝記)의 문신으로 성종 17년(1486) 진사가 되고, 같은 해 식년문과 갑과에 제2인으로 급제하였다. 승문원(承文院) 권지 부정자(權知副正字)에 임명되었다가 정지(正字)가 되어 춘추관 기사(春秋館記事官)를 겸하였다. 진주교수(晋州敎授)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가 운세정사(雲溪淨寺)를 열고 학문에 전념하였다. 이때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가 수업하고 나서 벼슬길에 나아가 승문원 주서가 되었으며, 흥문관 박사·부수찬·성균관 전적·사헌부 장령·사간원 정언을 거쳐 흥문관 수찬·병조 좌랑·이조 좌랑을 지냈다. 그는 흥문관의 부교리·교리 및 사간원 현납·이조 정랑을 지냈다. 관료생활을 하다 여러 차례 사가독서(鷗鷺錄書)하여 학문의 깊이를 너හ하였다. 그는 주로 연관(鷁旨)을 지내면서 훈구구파에 내향하여 사립파가 중앙 정계에 진출하는 것을 노렸다. 이로 인해 연산군 4년(1498) 유자광(柳子光) 등 춘구파에 의한 무오사화(戊午史禍)에서 조의제군(弔義帝君)을 사초에 실은 일과 소릉복위를 상스한 일 등으로 인하여 능지처참의 형을 받았다. 그는 17세 때까지 할아버지 금일(金一)에게 글을 배웠고 이후 김종직의 문인이 되었다. 김종직의 뉘하에는 각광필(金宏筆)·정여장(鄭汝昌) 등의 수가(修己)를 지향하는 계열과 사장(制誥)을 중시하면서 치인(智人)을 지향하는 두개의 계열이 있었는데 후자로 대표적인 물이었다. 그는 김종직의 문인 정여장(鄭汝昌)·강흔(姜漸) 등과 교우하였으며, 소릉복위 상소나 조의 제문을 사초에 수록하는 둘 매우 과감하고 진취적이 현실다운 자세를 보였다. 이러한 것은 세조의 즉위 사실과 그로 인해 배출된 공신의 주재명분을 간접적으로 부정화 것으로 당시에는 매우 모험적인 일이었다. 종종 때 흥문관 직학, 현종 때 도승지, 순조 때 이조판서에 각각 추증되었다. 목전(木川)의 드동서원(道東書院), 청도(淸道)의 지계서원(紫溪書院)에 제향되었다.

4) 1426(세종 8)~1457(세조 3). 이름은 이유(李愈)이며 아버지는 세종이고 어머니는 소헌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며 1430년 금성대군에 봉해졌다. 1452년 단종이 즉위할 때 수양대군과 함께 사정전(思政殿)에서 좌우에서 보필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을 반대하고 1455년 이로 인하여 소녕(削寧)으로 우배되었다가 광주(廣州)로 이배되었다. 이어 수양대군이 왕위에 오르고 사육신 등이 간종복위운동을 계획하다 실패하자 다시 경상도 순흥(順興)으로 유배되었기 옮겨졌다. 여기서 부지(府使) 이보홍(李甫鴻)과 함께 모의하여 고을 군사와 한리를 모으고 도내 사족(士族)들에게 격문을 둘러서 유행을 일으켜 단종복위를 꾀하였다. 그러나 거사 전에 관노의 고발로 실패로 돌아가 반역죄로 처형되었다. 1791년에 육종영(六宗英)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시호는 정만(敬謙)으로 창절사(彰節祠)·성인단(成仁壇)·총청드(淸寧殿)·향사(鄕祠)에 제향되었다.

5) 필자해석



(그림 2) 대동여지도로 읽는 단양의 도시구조



(그림 3) 조선총독부 지행도(1910년) 표기 단양도시구조

마음을 다잡을 양으로 깊은 호흡으로 마당공기를 한 모금 들이 키며 쇠락해진 정신을 가다듬고 대동여지도를 다시 펼쳐 들었다.

대략 1/16만로 작성된 이 지도는 실제 크기가 가로 3m, 세로 7m인 까닭에 지금 내가 누워있는 방보다 세배 가량 크다. 나만한 사람 아홉이나 누워 잘만한 크기의 이 지도는 축척에 비하여 도시와 자연 도시와 도시네트워크를 확인하는데 매우 뛰어난 위력을 지니고 있다. 이 한 장의 지도가 품고 있는 단양에 대한 정보는 청풍 영춘과 함께 소백산맥 주변에 자리한 아주 외진 도시이며 영남으로 너머 가려는 사람이면 누구나 거쳐야 할 죽령 앞 길목에 위치한 단양의 원형 파악과 주변도시와의 거리감이었다. 그것을 남긴 기록으로 대동여지도와 대동지지가 제일 정확했다. 그것의 상세한 부분들은 일제 강점기 때 항측도에 현대적 기법으로 선명하게 그려져 있을 공산이 컸다.

흐릿해져 가는 백열등빛 아래 드러난 단양의 모습 가운데 제일 먼저 눈에 띄인 것은 산세(山勢)였다. 겹겹이 그려진 산줄기, 이것만 보아도 당시 사람들은 예로부터 한양까지 걸어가기가 까마득하게 먼 곳을 간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느낌이 더욱 진하고 깊어지게 되었다. 더구나 한양에서 죽령너머 영남으로 간다는 것은 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너머서야 할 산맥 심산유곡(深山幽谷)의 낙동정맥이 지도에 굵고 진한 선위에 톱니처럼 날이 선 모양새로 그려진 것만 보아도 하늘로 치솟은 산세의 험난함을 짐작할 했다. 요즈음 같으면 그깐 거리쯤이야 대체 주저할 것 없는 행보였지만 불과 오십년 전만 해도 이 길은 쉽게 맘먹고 오갈 여정은 전혀 아니었다.

이런 지형을 김정호는 우선 굵고 검은 선으로 낙동 정맥을 그린 다음 그 줄기의 매듭으로 소백산과 연화봉, 죽령과 옥녀봉 그리고 도솔봉과 수리봉의 산형을 그린 후 이를 중심으로 좌우로 흘러내린 산줄기들을 가는 선으로 가지쳐나갔다. 그리고 흐르는 물은 가느다란 실선으로 그려놓았는데 낙동 정맥에서 흘러내려오는 지천 죽령천과 단양천을 산줄기줄기 사이 골짜기에 잡아넣은 다음 이를

이 흘려드는 남한강줄기는 두개의 실선으로 그려 놓았다. 그런 까닭에 그가 대동여지도에 그런 단양은 조선시대 작성된 어느 지도 보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나름의 자연스런 흐름을 한눈에 드러냈다. 그는 이 지도에 자연의 형태를 등고선이 아닌 선의 굵기로 산과 물의 흐름을 매우 창의적인 기법으로 표현했던 까닭에 등고선으로 표시된 현대지도에서 읽어내기 힘든 산세의 흐름이 선명히 드러났다.

단양 주변을 감싼 소백산줄기와 남한강의 모습을 면이 아니라 양갑을 지닌 선의 흐름으로 서술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 마치 수리봉 북쪽 사면을 박차고 도력산을 지나 솟아 오른 큰 산 덕질산 줄기 끝자락이 남한강물에 닿아 단양읍치가 있는 성재산에 머문 듯한 땅의 유풍한 충격이 목판에 파고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 사이 사이를 비집고 사방으로 거미줄처럼 이어진 길, 그 네트워크를 따라 단양 사람이 살아가는 다양한 터의 이야기를 김정호는 영아(營衙), 읍치(邑治)⁹, 성지, 진보(鎮堡)¹⁰, 역참¹¹, 창고¹², 목소(牧所)¹³, 봉수¹⁴, 능침, 방리¹⁵, 고현(古縣), 고진보(古鎮堡), 고산성(古山城) 도로(道路)와 같은 도시 구성요소들을 기호로 만들어 서술해 갔다. 마치 현대 지도의 범례와 같은 기호로 지도를 제작함으로서 그는 지도표기의 어려움인 지형과 함께 지명에 대한 각종 설명을 같이 수록해야 하는 문자 기록의 번거로움과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리고 단양군과 영춘현 그리고 청풍현의 군현 경계를 점선으로 표시하여 행정 구역과 함께 한 장의 지도에 단양의 모든 도시 네트워크와 자연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역사를 압축 서술했다.

이 지도에 그려진 자연은 물이 있는 곳에 기(氣)가 머문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산자분수령(山自分水領)이란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태백산과 소백산이 스스로 흘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고개로 자신을 이리 저리 나누어 더불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축적 때문에 물길은 강폭이 넓은 한강을 두 줄로 폭이 좁은 단양천과 죽령천은 한 줄로 그려져 있다. 그리고 상진과 하진 나루

를 건너 단양으로 모여든 길은 역참 장립 역마을과 역원 용부원을 거쳐 죽령 너머 창락역으로 이어져 있고 다시 이 길은 이웃 풍기 순흥 예천으로 연결되어 영남으로 흘러든다. 한 가지 흥이라면 대로(大路)와 간로(間路)로 구분된 조선시대 도로망을 대동여지도에서 모두 같은 굵기의 선으로 표시한 탓에 구분하기 힘들게 된 점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지점간 거리를 10리마다 방전을 찍어 어떤 구간이라도 쉽게 거리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는 거의 직선으로 각인해놓은 까닭에 하천과 혼돈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되어 있었다. 그리고 대략 30리 반나절 거리마다 설치되어 있는 역원과 역참이 표기되어 있었다. 바로 사람의 하루 행동반경이 30리 인점을 감안하여 전국토를 정리한 조선시대 시대상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가 완성한 대동여지도는 조선왕조가 사람이 한 시간 동안 걸을 수 있는 걷는 거리 십리를 기본 축적으로 전국 도시네트워크를 완성한 국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서술한 유일한 역사기록인 셈이다.

인점을 놓치지 않고 서술한 그는 우리조상들은 공간의 맥을 사람의 호흡으로 파악했다는 사실을 지도로 그려놓은 최초의 인문지리학자인 셈이다. 그래서 나는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사는 산과 물과 땅, 터는 사람이 걷는 Human Scale을 기본으로 다듬어 왔고, 도시와 도시는 Walking Network을 중심으로 만들어 왔으며 도시문화는 이렇게 짜여진 Walking Space를 패러다임으로 축적되어 왔다는 증거를 이번 답사에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까닭에 이번 답사는 될 수 있는 대로 걸으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 땅의 냄새를 제대로 맡으려면 걷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절로 들는 것이다. 그래야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왔던 많은 평범한 사실들로부터 앞으로 생각해야 할 소중한 미래의 소리와 모습을 듣고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진한 묵향이 풍겨오는 듯한 대동여지도를 나는 오랫동안 고개를 쳐뜨리고 들여다보며 앞으로 답사방식과 일정 그리고 걸어갈 코스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오늘 답사 목표는 지금까지 도면과 자료 예비 답사 등을 통해 대략 분석 정리했던 단양의 수변경관화랑을 상세하게 조사하는 일이다.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상진리에서 옥순봉까지 거리는 대략 사십리 남짓했다. 하루 여유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으나 한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사진을 찍고 돌아볼 만큼 넉넉한 거리는 아니

었다.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조사하려면 하루 더 머물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세한 길과 산과 물의 모양새를 찾아내기엔 대동여지도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좀 더 상세한 1/5만 지도의 힘을 빌려야만 가능해졌으므로 본격적인 답사에 앞서 대동여지도와 일제 강점기 항측 지형도를 놓고 단양주변 도시패턴과 도로와 경관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가면서 한곳 한곳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기로 했다.

보기 드문 남한강 수변진입로인 상진리와 단구협, 지금은 명색만 길목으로 남아 있을 뿐 스쳐가는 통로이자 관광거리에 지나지 않는 곳으로 전락해버렸지만 문화 유적 지도를 보자 이곳의 수변 경관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과연 조선시대 이 두 곳을 잇는 남한강 통로가 만든 경관화랑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우선 대동여지도에 그려진 상진리를 분석해보면 이곳은 매포에서 오는 길과 온달산성에서 오는 길이 만나 단양으로 가는 삼거리에 해당했다.

속 내용을 일제 강점기 항측도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보면 온달산성에서 옛 단양으로 가는 길은 남한강 줄기를 타고 고수리 산길로 봉우동 산자락을 따라 난 산길 옥십리를 빠듯하게 걸어 내려와야 했다. 그리고 이 길은 웨주 신립 제천에서 매포를 지나 남한강을 건너 비포장 5번국도와 상진대교 끝자락 아래 터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

여기서 외길이 된 단양을 들어가는 길이 중도리 모래밭에 즐비했던 땅콩 밭과 소나무 숲을 지나 죽령천 하구까지 어립잖아 오렷길 대략 삼십분 정도를 족히 걸어 죽령천 다리를 건너게 된다. 다리 건너 성재산 적성산성 왼편으로 바짝 붙어 돌아가면 비로서 옛 단양읍지가 있었던 하방리로 들어서게 된다.

도담 삼봉에서 시작되어 하방리로 이어지는 이 길 주변은 원래 인가라곤 없었고 소나무 숲이 비켜 있을 뿐 사방은 드넓은 개활지 였을 것이다. 산이 멀리 있는 까닭에 강바람이 제법 있어 보이긴 했으나 강폭과 백사장의 아름다운 풍광 변화와 함께, 풍요로운 작물의 수확이 어우러지는 구간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연 경관의 수평 시각변화가 역동적으로 읽혀지는 강변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서북쪽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강변길, 36번 국도를 따라 단양읍으로 들어오는 봉화대로(奉化大路)는 이와 사뭇 달라 보였다. 충주 입석마을 고구려 중원비¹³를 뒤로하고 청풍 장화원(長倉院) 계곡을 지난 36번 국도는 수산리 역마을을 지나면서 남한강으로 향한 계곡을 따라 내려오다 옥순봉 남쪽 능선을 가로지르는 계란재를 너머 장화나루로 나아가 남한강변을 따라 거슬러 가게 된

6) 읍지(邑治)는 부(府), 목(牧), 군(郡), 현(縣)의 치소(治所)가 있는 자리 읍성(邑城)이 있으면 ◎, 성이 없으면 ○ 표시 안에 고을 이름을 적되 부, 목, 군, 현 등의 단위명칭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읍성은 읍지(邑治)를 직접 보호하기 위한 내성(內城)과 고을외곽에 축조한 외성(外城)으로 구분되었다.

7) 진(鎮)은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지방행정구획의 하나이며 조선조 때의 진은 각 병영·수령·감영 밖에 든 자방대의 진영(鎮營)을 일컬음. 조선시대에는 주진(主鎮): 절도사가 주재하는 병영, 거진(副鎮): 절도사, 청질제사(淸質節使)·제진(節鎮): 동청질제사·수군만호·절제도위가 주재 등 3등급이 있었음. 여기서는 거진(副鎮)과 제진(節鎮)을 말한다. 보(堡)는 흙으로 족대를 쌓아 만든 작은 성으로 진(鎮)·예하 병력의 주둔지로 볼 수 있다.

8) 역참(驛站)은 역말(驛馬)을 갈아타면 곳으로 역(驛)을 중요 도로에 약 30리 간격으로 설치되었고, 말과 역졸을 두어 공문을 전달하는 이외에 공무 여행자에게 말을 제공하고 숙식을 알선하며 그 밖에 관물(官物)의 수송도 담당하였다. 참(站)은 역과 역 사이에 공무 여행자가 쉬도록 마련한 장소였는데 역참제(驛站制)는 조선 선조 때 통신망 위주의 과발제로 고쳤다. 그리고 역원(驛院), 원(院): 공무로 출장하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역로(驛路)에 설치한 숙박시설이 있었다.

9) 창고(倉庫) - 창고: 여기서는 관창(官倉)을 이름.

10) 목장(牧場): 국가자(행정, 군사)으로 필요한 말을 먹이던 곳.

11) 봉수(烽燧) - 봉화(烽火): 여기서는 봉수대(烽燧臺)를 말함. 봉수대는 봉화를 올리는 설비를 갖춘 곳.

12) 방리(方里)는 태종 13년(1413) 이후 현행 읍(邑)·면(面)·동(洞)에 해당하는 지방행정 구획의 하급단위로서 면(面)·방(坊)·사(社)가 있었으며, 방(坊)은 현행 동(洞)과 유사하여 여기서 방리(坊里)는 하급행정구역명을 통칭한다.

13)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구려 석비, 1979년 발견. 장수왕의 고구려 영토 경계 표시 비



그림 4) 조선총독부 단양지령도에 올린 조선시대 단양 도시구조

다. 이 길이 무려 12키로 미터에 걸친 천애의 기암절벽 사이, 원편의 말목산(석기봉 711과 두구봉 696) 오른편의 제비봉과 사봉(879, 4)이 만든 틈새를 비집고 열린 백사장을 따라 단양가는 도로이다. 제비봉과 말목산 사이 협곡을 벗어난 난 강변길은 오른편으로 사봉을 바라보고 외중방리를 거쳐 봉산리를 지나 우화교를 건너 단양읍으로 갔다. 남한강을 거슬러 잰걸음으로 대략 하루가 걸릴 만큼 비교적 긴 구간인 이 강변길은 신선이 사는 단구협이라 불리울 만큼 사군강산삼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 중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 길의 경관적 특성은 사봉과 말목산을 잇는 직선거리를 기준삼아 단면을 자르면 두 봉우리의 이격거리 2,200m, 그 밑을 지나는 남한강 줄기 폭 50여미터 강 수면에서 평균 수직높이 700m인 일종의 사다리꼴이 된다. 지금은 사라져 버렸으므로 배를 타고 이곳을 감상하고 있지만 불과 삼십 년 전 만해도 강 수위는 건수기인 지금보다 이십여 미터는 더 아래였고 강변으로 계곡을 통과하는 길이 나 있었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보아 이 길은 경사각 32도에서 38도의 경사, 황금비에 수렴하는 산세의 변화에 따라 사시사철 시시각각 나타나는 변화를 세시간정도 감상할 수 있는 구간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 길은 웬만한 영화 한 편 감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값진 경험일 것이며 설사 운동 삼아 걸어도 만보 걷기는 족한 거리였다. 수평시각보다 수직시각이 두드러진 까닭에 집중성과 장소적 상징성이 강하게 드러난 곳이었

다면… 그래서 조선 초기 이곳을 지난 탁영(濯瀛) 김일손(金熙孫 1464~1498)은 '이요루기(仁樂樓記)'에서 단구협(丹丘峽)이라 명명한 것은 아닐까. 단구란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하므로 단구협이란 바로 신선이 사는 협곡이 아닌가. 수평시각과 수직 시각의 대비가 두드러진 이 두 길은 죽령을 너머 영남으로 가는 입구에 자리한 단양읍 진입부분의 경관적 특질일지도 모른다. 이런 사실을 대동여지도와 일제 강점기 항측도를 통해 읽어내기 시작하자 눈에 보이는 신 단양과 옛 단양의 차이가 더 밀도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단양의 도시경관구조는 도로패턴과 더불어 대략 두 가지로 큰 범주로 구분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첫 번째 범주가 단양의 외부경관인 진입경관은 단구협 육십리길과 중도리 삽십리 두 강변길 그리고 죽령 너머 가는 육십리 산길 세 가닥을 들 수 있는데 지형적인 특성이 다른 이들은 각각 나름대로 경관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방리 옛 단양읍 읍내 삼거리에서 만나 도심을

형성하게 된 까닭에 단양은 아름다운 진입경관을 지닌 경관 도시의 원형성을 지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신작로가 개설되면 서 다소 상황의 변동이 생겼을 것이다. 이때 단구협 길에 비포장 36번 국도가 중도리 길과 죽령 산길이 5번 국도로 연결되자 신작로 개설로 원래 주도로였던 봉화대로; 단구협을 지나 죽령으로 가는 길의 기능이 약화되고 중도리에서 죽령으로 이어지는 5번 국도의 기능이 부각된 것이 아닐까. 만약 단양의 동쪽도로의 위상이 이렇게 부각되었다면 이 지역은 서쪽과 달리 주로 석회암이 분포한 지역이므로 산업과 관련된 도시기능의 변화가 발생한 탓인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때까지만 해도 단양은 명실상부한 소백산 북단 교통거점인 것은 분명했다.

두 번째 범주가 단양 내부 경관인 주변 반나절 거리에 산재한 단양천과 운계천의 경관이다. 남한강 줄기에 하방리를 중심으로 흘러드는 두개의 지천을 따라 난 두개의 산길 가운데 단양천 길은 일제 강점기 지도를 보면 신작로가 아닌 단순한 산길로 표시되어 있다. 이 길은 단양 향교에서 두악산 농선을 타고 단양천을 따라 덕절산과 사봉 사이를 빠져 월악산으로 가는 산길이다. 산길 중간 중간에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 세 개의 선암이 있고 산골짜기가 깊어 돌과 물이 좋아 이곳 사람들은 삼선수석(四郡江山參僊水石)이라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길을 편의상 삼선 수석로라 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소백산 연화봉과 두출봉 사이에서 발원한 죽

령천을 거슬러 죽령 북사면을 너머 영남으로 가는 옛길 봉화로에서 오른편으로 가지를 친 운계천 길이다. 이 물길은 죽령에서 가파른 강바닥을 흘러내리 물보다 긴 능선을 지닌 도락산 자락을 타고 느긋한 흐름으로 장림으로 흘러 들어온 까닭에 이 운계천(雲溪川) 물이 죽령천 본류라고 느껴질 정도로 빠도 넓고 수량도 제법 있어보였다.

이 운계천 중심부에 해당하는 대강면 사인암리(舍人岩里)에 뾰족한 암벽을 평평을 두른 듯 서있는 사인암을 구심점으로 운계구곡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단양의 나부 경관은 운계천의 운계구곡 길의 중심 사인암리와 단양천의 삼선수석 길의 중심 기산리가 산길로 이어지면서 커다란 류프형 경관도로를 구성하게 된다. 읍내 삼거리에서 종 구십리 길로 이루어진 이 길을 따라 사람의 계회(契會)가 자주 열렸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반도를 수탈하기 위해 일제가 작성한 이 지도가 단양의 원형을 찾아가는 소중한 길잡이가 된 셈이다. 그간 사묘의 부족으로 어둠에 가려졌던 조선시대 단양의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한민족 주체성을 발달하려 했던 흥물들이 사라진 과거를 찾아가는 보물지도로 둔갑하면서 암담한 절망이 정반대의 희망으로 바뀐 것이다. 대동여지도와 일제 강점기 지도에 그려진 옛 단양과 눈에 보이는 단양의 차이가 제법 읽혀지기 시작하자. 순간 심박자가 남긴 시간과 공간의 여운은 격조 높은 판소리를 대꾸하듯 내마음속의 노래가 되어 령빈 가슴속에 여울져 울려 퍼져갔다. 동시에 뇌리 한 구석에선 슬픈 심사가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런 흥겨움과 기대에 찬 것으로 오늘의 단양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광건설과 지역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옛것을 날았으나 파헤치고 불편하니 없애버리자는데 동침하고 있었으므로 이 모든 노력이 어제의 아름다움을 기억하는 일로 끝난지도 모를 운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발품을 팔아가며 옛 문현을 뒤지고 일상에서 벗어나 과거 원형을 찾는 대열에선 것은 지금 맛보고 있는 흥겨움과 역사란 과거와 현재가 미래로 함께 광존해야 한다는 법칙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었다. 같이 답사를 나선 사람들이 저리도 스스로 발품



단원김종도의 헝려봉속도

을 파는 일에 신명이 붙은 것도 이 일이 단순한 걷기운동이 아니라 역사경관을 걷기를 통해 나의 문화와 호흡을 같이하는 내 삶의 원형을 알게 된 까닭이다. 그 사신은 국토 대장정을 하는 사람들 마음에서 공인된 바 있었고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아 많은 학생들의 참여도 있었다. 하지만 문화를 체득한다는 것은 국토 종단, 천리 행군 같이 자신을 이기기 위해 밤낮없이 걷는 그런 극기 행위로 이루어질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걷는다는 것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모든 음식을 빨리 깨물어 부수어 삼켜버리는 폭식에 가까운 섭성이 아니라 그것을 씹고 또 씹어 혀끝에 노는 맛을 느끼고 그 자체를 살아가는 즐거움으로 여기며 젊어버린 밥상머리 대회를 되찾는 일처럼 안정된 호흡과 끝없는 생각이 하나의 몸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움직이는 삶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으로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이곳을 예비 답사할 때마다 걸음 거리를 일삼아 세어온 것도 사실 건강을 챙기려는 일따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온전히 그것만을 얻고자함은 전혀 아니었다. 가능한 옛 도시의 규모와 경관 그리고 모듈에 대한 빠른 확인도 필요했지만 정작 궁금했던 것은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필요해서였다.

그래서 나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포장도로를 제쳐두고 일제 강점기 지도에 표기된 옛 도로를 애써 찾아 걷고 이동거리를 조급한 마을으로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행한 동료에게도 걸음 수에 따른 느낌의 차이를 물어보고 나 스스로 하는 자문자답 역시 계율리하지 않았다. 회를 거듭할수록 걷는 모습과 속도가 안정되어 가기 시작하자 규칙적인 호흡과 함께 주변에 대한 깊은 탐색에 신경이 모아지게 되었다. 걸으면서 눈길은 미묘한 주변 경관 변화에 쏟아졌다.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느낄 수 없는 변화가 서서히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웃나 Walking 경험이 부족한 나였으므로 그 정도 호흡으로 하루거리가 주는 미세한 차이와 의미를 놓으로 감지해내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두 번 회를 거듭할수록 걸음수 세기의 급급함이 사라지고 깨알 같은 네모장의 숫자가 느낌으로 정리되기 시작하자 단양주변 경관네트워크를 걸어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

이사회

제12회 이사회

2009년도 제12회 이사회가 지난 12월 9일 오후 1시 대명솔비치라오텔 피카소홀에 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협의사항으로 2010년도 협회 주관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과 한국건축가협회 성명서에 관한 건, 2010년도 벤쿠버올림픽 선수촌 강연회 개최에 관한 건, 건축관련학과 교수의 특별 회원 영입에 관한 건을 논의 했으며, 부의안건으로 회계규정 개정의 건, 제44회 정기총회 일자 결정의 건,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건이 논의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의안 : 2010년도 협회 주관 주요행사 개최에 관한 건
-2010년 10월을 축제기간으로 하여 협회 주관 주요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모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제2호 : 한국건축가협회 성명서에 관한 건
-2009년도 하반기 협회발전 워크숍 분임토의 결과를 토대로 성명서에 대한 회신문을 작성하기로 함.
- 제3호 : 2010년도 벤쿠버올림픽 선수촌 설계자 강연회 개최에 관한 건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함.
- 제4호 : 건축관련학과 교수의 특별회원 영입에 관한 건
-특별회원으로 입회신청한 53명의 가입

건은 입회비 및 월회비 등을 포함하여 차기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이사회 승인 후 내년 2월 총회에서 특별회원증 수여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회계규정 개정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2호의안 : 제44회 정기총회 일자 결정의 건
-제44회 정기총회는 2010년 2월 25일 (목) 10시에 개최하기로 함.
- 제3호의안 : 2010년도 1~2월 임시예산(안) 승인의 건
-협의사항 제3호의 결과에 따라 재경위 원회 조정안대로 임시예산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함.
▷일반회계 임시예산안 조정안
 - 교육연수사업비 : 1,000,000원(당초)
⇒ 4,000,000원(변경)
 - 예비비 : 9,560,000원(당초)
⇒ 6,560,000원(변경)
- 제4호의안 :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원안대로 승인함.
- 제5호의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은 이철호 고문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기로 함.
- 제6호의안 :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회 명칭은 '통합추진위원회'로 하고, 아래와 같이 9명의 위원을 선임함.
▷위원 : 강성익, 김영수, 박재웅, 백승천, 신정철, 신춘규, 장양순, 전영철, 정태복

위원회 개최 현황

■ 제2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제2회 법제소위원회(내부마감재료) 회의가 지난 12월 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관련 법령 개선에 관한 건
- 사용자의 안전(소방 관련) 및 건강(실내 공기질)과 환경을 고려한 내부마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는 내부마감재로 관련법령을 건축행위 단계별(설계부터 건축물소멸단계까지의 전 과정)로 정리하여 전반적 시스템을 먼저 파악한 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12회 법제위원회

제12회 법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기계설비사공·관리기준법(안)에 관한 건
- 법(안)의 내용 중 건축물과 관계된 것은 건축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원칙으로, 조문별로 검토의견을 정리하여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2호 : 주택법 사업계획승인 대상 조정에 관한 건
- 주택법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 논리적인 보완을 위해 왕정한 위원이 정리하고 위원장이 최종 검토하여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3호 : 혁신도시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설계 가이드라인(안)에 관한 건
- 에너지 성능검토서의 건축부문을 보완하여 각 부문별로 확인하는 대신 건축사가 총괄·확인하는 서식의 틀 등의 의견을 위원회 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 제4호 : 2010년도 법제위원회 사업예산에 관한 건
- 원안대로 법제위원회의 안으로 정하기로 함(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검토한 후 최종 안으로 결정)
- ▷ 우리협회의 미래를 대비하여 분야별 “연구용역사업”을 꼭 진행시켜야 하며, 그에 따라 법령개정 등의 대정부 논리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제5호 : 기타의 건
- 건축사의 건축물 설계대상 홍보 필요

▷ 일부 회원들이 건축법상 건축사의 건축물설계대상에 대하여 혼돈이 있으므로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정확한 해석으로 ‘모든 건축물의 신축은 건축사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홍보’ 해야 함.

- 건축허가도서 종복제출 문제에 관한 건
- ▷ 현재 세움터 이외에도 자치단체에 중복으로 허가도서를 제출하여 회원들이 이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책 검토가 요구됨.

■제4회 행정위원회

제4회 행정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회계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건
- 축조심의 내용을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 개정안 제19조(자출원인행위) 제3항 삭제
- ☞ 지출원인행위를 한정하는 것은 회장의 재량권을 축소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예산은 목내 범위내에서 대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임.
- > 제73조 현행대로
- ☞ 현행 제73조의 해석은 1년의 수익대비 지출금액에서 잔여예산인 잉여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것임. 운영자금을 차입하는 등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동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정은 불필요함.
- 제2호 : 회관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 회관관리규정과 연계해서 좀 더 검토하기로 함.
- ▷ 회관관리규정과 연계해서 검토 필요
- ▷ 회관관리의 연속성을 위해서 위원회의 임기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3호 : 연구용역 관리지침 제정에 관한 건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과 같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함.

▷ 건축연구원 운영규정상에 (가칭)건축 연구용역관리위원회를 두어 연구용역 과제의 선정 및 관리를 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동 위원회를 상설화할 필요가 있음.

■제4회 재경위원회

제4회 재경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임시예산 심의에 관한 건
-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제출한 2010년도 1~2월 임시예산(안)을 주요 사안별로 검토한 후 원안대로 이사회에 상정키로 함.
- 제2호 : 추대회원 제도에 관한 건
-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향후 협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대회원에게 일반 회원과 동일한 회비를 부과하고, 별도의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추대회원제도 개선을 이사회에 건의키로 함.
- 제3호 : 2009년도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예산집행에 관한 건
- 서울국제건축영화제 사업비 부족예산을 행사사업비 예산총액 범위 내의 절감예산에서 목내전용하여 사용기로 함. 다만, 영화제 사업결과 평가시 건축영화제의 문제점과 존폐문제 등을 이사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함.
- 기타사항 : ‘국외건축사 초청강연회 개최 경비’ 임시예산안 추가에 관한 건
- 캐나다 벤 쿠버을 릴리프 선수촌 설계 Roger Bayley 건축사 초청 강연회 개최 경비(300만원) 임시예산 반영은 동 강연회 개최의 필요성을 이사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임시예산(안)을 조정키로 함.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1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월 27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임시예산심의

-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 2010년 1~2월 임시예산(안)을 주요사안별로 검토한 후 원안대로 재경위원회에 제출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예산편성등 일정계획 안 협의

- 2010년도 예산안 편성이 예년에 비해 시기적으로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총회 등의 시기에 맞도록 일정을 추진기로 함.

• 제3호 : 주대회원 제도에 관한 건

- 주대회원에 대한 회비면제 제도의 개선을 건의기로 하되, 주대회원들의 공로와 정서 등을 감안하여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병행하여 검토해 줄 것을 건의 기로 함.

• 제4호 : 회계규정 중 개정규정안에 관한 건

- 회계규정 개정안 중 일부를 자구 수정하고 행정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되, 제12조 제2항 출납원 임명에 관한 사항은 현행규정을 유지기로 함.

■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2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7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특별회계)에 관한 건

- 2010년도 7개 특별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대체 토론하고, 차기 회의에서 회계별 세목별로 심의·조정기로 함.

1) 건축문화진흥사업회계

- 2006년부터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하지 않은 '건축문화진흥 사업회계'는 폐쇄하는 것으로 재경위원회에 의견을 제출기로 함.

2) APEC 등록건축사회회계

- APEC 등록건축사회회계 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축소하거나, 새로운 세입재원을 발굴하여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차기

위원회에 담당위원장 참석토록 요청하여 재논의기로 함.

• 제2호 :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 각 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2010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주요 사안별로 의견을 논의하고, 쟁점 사업요구안을 제출한 위원회 위원장을 차기회의에 참석토록 요청하여 재협의기로 함.

■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3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위원회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에 관한 건

-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2010년도 사업계획 예산요구안 중 5개위원회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사업제안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해당 사업계획 예산요구안을 1차 식감 조정함.

• 제2호 :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특별회계)에 관한 건

-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금관리 운용회계' 및 '회관관리회계' 예산안을 축조·심의하고, '건축문화전당 건립'을 위한 '건축문화진흥사업회계'는 폐쇄하기로 함.

■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제4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2010년도 위탁관리업무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축조·심의하고, 각 회계별 예산안중 이월금 수입부문은 2009회계년도 결산완료 후 확정되는 결산이월금으로 수정토록 함.

• 제2호 :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심의에 관한 건

-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1차 축조·심의하여 세출예산안중 회의비와 관리비 부문을 일부 감액하고, 사업비 예산안부터 차기회의에서 계속 심의기로 함.

■ 제15회 사업위원회

제15회 사업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5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차년도 전시장소 및 기간에 관한 건

- 코엑스에서 G20 개최로 인하여 전시장소 및 기간을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는 시안을 협의한 결과, 몇 가지 대안이 마련되었지만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차기 회의 시 추진결과를 재보고기로 함.

▷ 대안1)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중순에 개최

▷ 대안2) 코엑스에서 8월 중순에 개최하는 홀덱스와 동시 개최

■ 제6회 국제위원회

제6회 국제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 해외 교류단체 초청에 관한 건

- 제44회 정기총회 시에는 해외 교류단체 중 일본건축사회연합회를 초청하고, 일본건축가협회(JIA), 몽골건축사협회(UMA), 미국건축사협회(AIA), 유럽건축사협의회(ACE)의 초청계획은 차기 회의에서 상세한 계획을 협의기로 함.

▷ 제44회 정기총회 시(2010. 2. 25) 일본연합회 회장에게 명예회원증을 수여하는 것을 건의기로 함.

▷ JIA, AIA, ACE의 초청은 2010 건축의 날(9. 25) 행사와 가급적 연계하여 추진하고, 초청대상·명예회원증 수여·주요일정 등 세부사항은 차기 국제위원회

에서 협의키로 함.

▷ UMA는 2010년 중 초청 및 방문 교류행사를 모두 개최하되, 시기 및 명예회원 증 수여여부는 차기 국제위원회에서 협의키로 함.

- 제2호 : 2010년 국제사업비 예산(안)에 관한 건
- 2010년 국제사업비 예산(안)을 예산결산 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법 영문번역본 검토에 관한 건
-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정재욱 위원장, 최재희 전문위원, 김성민 위원이 검토·작성한 건축사법 영문번역본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되, '건축사' 용어의 영문표기에 관한 사항 및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번역내용은 국제위원회의 추가의견을 제출하고, 법제위원회의 추가적인 검토를 받을 것을 건의키로 함.

▷ 번역문 중 '건축사'의 영문표기가 certified architect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건축사'의 동의어가 아니며, '건축사' 칭호의 올바른 사용에 반하는 측면이 있음. 즉, 시험과 등록을 통한 정규자격을 갖춘 건축사를 certified architect라고 시한다면, 정규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certified'를 제외한 architect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명료한 번역이라 할 수 없음. 그러므로 '건축사' 칭호의 영문번역은 법제위원회의 추가검토를 거친 후 법·제도적 측면을 고려한 표현으로 조율하여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제11회 정책위원회

제11회 정책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에 관한 건
- 건축사의 업역 조율(coordinate) 업무를 전문화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대가 없는 책임 구조를 개선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회원의 수익구조 개

선에도 도움을 주고자 '협력업체 업역 조율과 수입구조 개선(안)' 사업을 제안함.

- 제2-1호 : 제 위원회가 실질적 연계/조율/검증 방안에 관한 건
- 모든 위원회 안건을 검토하여 정책위원회 회의자료로 작성키로 함.
- 제2-2호 : '지방건축사회'의 전문연구별도화 검토(위원장)/저작권, 생태기술 등/참여 의식 제고, 자발적 연구 유발 능에 관한 건
- 본부 위원회의 연구, 정책 제안 및 추진 등으로 지방건축사회의 자발적 참여의식 부족과 연구 및 지식정보화 기능의 저하, 본부 예의 의타의식 등 문제점이 있는 바, 전문 벨트화를 통해 상호 이해증진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

■ 제6회 회관관리소위원회

제6회 회관관리소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30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2010년도 회관관리회계 예산(안) 편성에 관한 건
- 2010년도 회관관리회계 수지예산(안)은 일부 조정하여 협의 결정함.
- 제2호 : 협회회의실 사용에 관한 건
- 다음 회의 일정상 협의하지 못함.

■ 제1회 통합추진위원회

제1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1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회 이사회(09.12.9)에서 선임된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9인 중에서 위원장(3인) 후보와 간사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 위원장 후보(3인) : 부회장(강성익, 김영수), 장양순 이사
- 간사 : 전영철, 심근이사
- 위원장은 후보자 3인 중 1인을 회장이 추천기록하고, 차기 이사회 의심의·의견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기로 함.

• 한국건축기협회에서 각 단체의 대표단을 6명으로 구성키로 요구하였으나, 우리 협회 대표단은 6명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통합추진 위원회 위원(위원장) 9명 모두를 대표단 명단으로 제출하기로 함.

- 다만, 협회 내부적으로 수도권 위원(위원장) 6명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9명 중 시진이 되는 사람이 참석하기로 함.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단을 3명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을 3단계 통합대표단 회의시 제안하기로 함.

• 09.12.11 한국건축기협회에서 보낸 '건축단체 통합에 관한 성명서'의 회신내용에 대해서는 보수가 공감하여, 동 분야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 회의시 통합에 대한 우리 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전달하기로 함.

• 통합에 대한 전체 회원들의 의견도 중요하므로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주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일부 회원들이 추가한 통합부대화원 모임에서 작성한 정의와 진실 무엇인가?란 책자에 나온 질문내용에 우리 협회에서 작성한 Q&A를 토대로 답변내용을 작성하기로 함.

- 이를 통해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일부 회원들을 설득.

- 질문 내용 중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임원, 시도회장 및 대오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 제2회 통합추진위원회

제2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2월 23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내년 2월 정기총회 전까지 통합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얻을 수 있도록 통합일정대로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이추진하는 방안을 1월 이사회에서 협의하기로 함.
- 의견수렴방법 : 무기명 서면조사
- 의견수렴기간 : 2010.1.20~1.29 일까지
- 설문지 배부 및 취합방법 : 전체 회원수 만큼 넘버링 후 행렬으로 각 시도별로 회원수에 따라 배부 (우편발송 및 취합은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시)

- 행하고 취합 후 본협회로 이송)
- 의견수렴시 법제도 개선에 관한 협회의 주요 현안(설계경업, 건축법인 등)에 대한 사항과 같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회원의견수렴에 대한 최소기준은 전체회원의 50%이며, 참여한 회원의 70~80%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통합에 관한 안건을 이번총회에 상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자료(Q&A)는 오늘 논의된 대로 수정·보완키로 하고, 이중 다음 각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통합추진대표자 회의에서 우리 협회안으로 요구하기로 함.
- 1)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제3조(임원선출) 3항에서 기존 상임이사비율(6:3)에서 우리 협회측 상임이사 1인에 대한 추가요구
- 2)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 제2조(운영) 제4항에 서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가 법 인을 청산하는 방향으로 분구가 정리되도록 요구

■ 제3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제3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6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안과 제3차 통합추진대표자 회의(09.12.28) 때 논의된 조정안 및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죽조심의 하였음.
- 전체적인 이행규정의 큰 틀은 기관적 대표자 회의에서 논의된 조정안을 존중하되,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보완함.

- 제1조(목적) 통합창립총회의 시행시기와 관련한 문구를 아래와 같이 오늘 논의한 3 가지 방안 가지고 제4회 대표자회의(10.1.8)에서 논의
 - 제1안 : 가협회의 요구대로 '2010년 6 월에 시행'
 - 제2안 : 날짜를 조정하여 '2010년 10월에 시행'
 - 제3안 : 조정(안) 대로 '2010년에 시행되는'
- 제2조(운영) 제2항에서 '결정사항'을 '준비사항'으로 변경
- 제2조(운영) 제4항에서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의 법인 청산부분과 관련한 문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안을 가지고 내일 3단체장 조찬회의(10.1.7)에서 논의키로 함.
- 제3조(임원선출 등) 제3항에서 건축사협회의 상임이사 1인을 추가하는 검토안을 각 단체에 서 모두 동의함에 따라 검토사항을 조정(안)으로 변경
- 제3조(임원선출 등) 제6항에서 조정(안) 중 '감사 중에 2011년에 임기가 남은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를 '감사 중 선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로 변경
- 제4조(규정운영 등) 제1항 제2호의 부회장의 담당업무는 기존대로 조정(안)으로 함.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재)는 검토사항을 조정(안)으로 변경
- 제12조(기타사항)은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합창립준비위원회'로 수정함.
- 검토사항의 부칙 제4조(규정이외 내용의 적용)는 삭제함.
- 단체통합에 대한 회원의 의견수렴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되었으며, 설문지 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초안을 마련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검토키로 함.

- 기명여부: 무기명
- 설문내용 및 명의: 2가지안으로 하여 이사회 예상정
- 제1안) 통합에 관한 사항만 설문(위원장 명의)
- 제2안) 통합에 관한 사항 이외에 주요현안(설계감리분리문제, 사무소등록 기준, 전국건축사대회 등)을 같이 설문(위원장 명의)
-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 설문지는 서면으로 하고 통합의 취지, 통합 추진경과(현재 통합추진위원회 구성배경 등) 등을 간략히 요약하고 뒤에 설문내용 첨부
 - 추진경과 중 통합추진위원회는 기수로 표기(현재 제3기)
 - 첨부자료는 Q&A 등을 포함하여 본협회 및 해당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설문조사는 넘버링 한 설문지를 각 시도건축 사회에 발송하고, 시도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독려하고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 결과를 본협회에 통보(필요한 예산은 본협회에서 지원)
 - 설문결과 전체회원의 10% 이상이 설문에 참여하고 그중 80% 이상이 통합에 찬성한다면 단체통합에 관한 의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4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

제4회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지난 1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오늘 개최된 제5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협의된 안에 대해서 각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이에 동의함.
- 다만, 제2조(운영) 제4항에서 가협회와 새 건협의 청산문제를 합병으로 변경하여 문안조정을 한 부분에 대한 각 단체의 번호사 자문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M&A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로 함.
- 통합이 될 경우 타 단체의 건축사 회원들이 협회에 가입할 경우 기존 폐업위로금을 받

통합추진위원회(3)	
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	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
④ 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 28일 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개정을 하여 법인청산을 추진하며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청산시기, 절차 및 내용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 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 28일 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청산을 하여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청산시기, 절차 및 내용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인청산이 불가하므로 예외로 한다.

는 회원들의 자산가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1월 이사회에서 '폐업위로금 자급증서'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함. 또한, 통합 이후에도 기존 회원들의 자산가치의 변동이 없다는 통계자료를 작성키로 함.

- 회원들의 설문조사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으며, 이번 1월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함.

- 기명여부: 무기명

- 설문내용: 통합에 관한 사항에 이외에 3가지 주요현안(설계·감리분리, 사무소등록 기준, 법인대형화)을 추가로 질의

-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 설문자료는 넘버링후 설문지를 각 시도 건축사회에 발송하고, 시도회장들이 적극적으로 회원들을 독려하고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활용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후 해당 결과를 본협회에 통보(필요한 예산은 본협회에서 지원)
- 첨부자료는 Q&A 등을 포함하여 본협회 및 해당 시도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
- 설문조사는 이번 시도건축사회장 워크샵(10.1.19~21)에서 통합에 대한 사항과 설문내용 등을 설명하여 각 시도에서 목표 이상으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할 것임.

■제1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1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2월 1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각 단체 대표단은 6명씩으로 하되, 책임을지고 모든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 우리 협회는 대표단을 9명으로 보고하고 동 인원중 6명이 참석하기로 하였음.
- 통합추진대표자회의 제1차 활동시한을 2월 28일까지로 하고, 동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단체통합을 추진하기로 함.
-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며, 회원 의견 수렴 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

기로 함.

-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논리적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작성한 '정의와 진실 무엇인가?'란 책자에 나온 질문에 대한 사항을 우리 협회에서 정리한 후 차기 회의시 이에 대한 해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함.
-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는 '09.12.24일 07:30분에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 아젠다는 책자에 대한 질문들을 토대로 건축사협회에서 정하기로 함.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2월 24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내년도 1월 20일 경에 회원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기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관개정(안)과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함.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것과 이후 합의(09.9.1)한 내용을 가지고 축조심의 하였으며, 축조심의 큰 틀은 기금적 3단체가 당초 합의(09.2.9)안대로 유지키로 하되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 추가·조정하기로 함.
 - 9월에 합의(09.9.1)된 신설조항 중 제3조(임원선출)제7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추가
 - 제2조(운영)제4항은 당초 합의안으로 하거나 9월 합의안 중 '법인청산 또는 통합정관'의 문구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 제3조(임원선출)제3항은 기존에 합의한 상임이사수를 사협회(6), 가협회(6), 새건협(3)에서 사협회(7), 가협회(6), 새건협(2)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상임이사 1인을 추가한 16인으로 하여 사협회(7), 가협회(6), 새건협(3)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단체별로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제)는 9월 합의안으로 변경
 -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문구나 변경된 낱짜 등을 조정

- 반대의견에 대한 답변자료는 각 단체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주기로 함.

■제3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3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2월 2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건축사법 개정의 일정연기와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표회장 위기에 따른 문제 등을 고려하여 당초 합의한 통합원년기 간을 1년 늦추기로 함.
- 당초(2010년 3월 1일~2011년 2월 28일 까지) ⇒ 변경(2011년 3월 1일~2012년 2월 28일 까지)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제1차 합의안과 이후 변경된 제1차 조정(09.9.1)안, 제2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때 논의(09.12.24)한 제2차 조정안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축조심의하였다.
 - 전체적인 이행규정의 큰 틀은 제1차 합의안을 토대로 하고 통합원년의 변경에 따라 관련 조항 수정
(제1조, 제2조제1항제3항제4항, 제3조제5항제6항, 제7조, 제11조, 부칙 제2조, 제3조)
 - 제2조(운영)제4항에서 '통합정관으로 정관개정을 하여'란 문구를 '법인청산' 앞에 추가
 - 제3조(임원선출)제3항은 기존 상임이사 수 15인(6:6:3)에서 우리 협회측 상임이사 1인을 추가하여 16인(7:6:3)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 제4조(운영규정)은 제1차 합의안으로 하되, 부회장의 담당업무 등에 대해서 건축사협회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
 - 제7조(자산)은 제1차 합의안으로 함.
 - 제8조(회비)는 제1항은 제1차 합의안으로, 제2항은 제1차 조정안으로 함.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제)는 건축사협회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
 - 제11조(정관개정) 제1차 조정안으로 함.
 - 제12조(기타사항) 제1차 조정안으로 함.

통합추진위원회 합의안(10.1.6)	3단체장 조찬회의(10.1.7)에서 건축가협회측이 제안한 안	검토(안)
<p>(4) 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청산을 하여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청산시기, 절차 및 내용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대한건축사협회는 법인청산이 불가하므로 예외로 한다.</p>	<p>④ 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고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와 협회에 귀속시키며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을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① 협회의 통합창립총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통합원년에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03-55 건축사회관을 주사무소(주소재지)로 하여 법인통합에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을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 기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회 회의결과와 동일함.

- 차기 회의에서는 3단 비교표를 합의안, 조정안, 비교로 표기하고, 비교란에는 김토사항을 기재하기로 함.

■ 제4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4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가 지난 1월 8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안과 제3회 통합추진위원회(10.1.6) 때 논의된 조정안 및 3단체장 조찬회의(10.1.7)에서 건축가협회측이 제안한 안을 가지고 아래와 같이 측조심의하였음.
- 전체적인 이행규정의 큰 률은 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조정안으로 하되,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수정·보완함.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서의 공통되는 다음 용어를 수정함:

- 제1조에서

- 대한민국건축사협회에 뒤에 '(이하 '협회'로 한다)'를 추가하고, 관련조항 변경
- '2010년에'를 '2010년 10월이내'로 변경
- 통합창립총회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총회 이므로 임원선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통합창립총회'를 '협회창립대회(이하 '창립대회'라 한다)'로 변경하고, 관

현조항 수정

- 또한, '임원선출'을 '임원구성'으로 변경하고, 이와 관련한 세부조항의 조정은 제1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에서 논의된 제2차 합의안(09.9.1)을 토대로 변경
- 제2조(운영) 제2항에서 '대표단으로 구성된 통합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사항은 통합창립준비위원회에 위임한다.'를 '통합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변경
- 제2조(운영) 제4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되, 법인청산과 관련하여 법률적 문제 가 없는지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법률자문 이후에 차기 회의시 재논의해보기로 함.
- 제3조(임원선출 등) 제6항에서 '감사 중에 2011년에 임기가 남은 각 1인을 당연직으로 한다. '를 '감사 중 선임자를 당연직으로 한다.'로 변경

- 제4조(규정운영 등) 부회장의 업무는 합의안대로 둠.

- 제10조(업무별 분할결재)는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검토한안으로 변경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3단체 회장이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이행하기로 함.
- 제5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는 ' 10.1.11 (월) 07:30'에 개최하기로 함.

■ 제5회 통합추진대표자 회의

제5회 통합추진대표 회의가 지난 1월 11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통합이행 및 운영규정은 3단체가 당초 합의(09.2.9)한 안과 1차협의안(10.1.6) 및 제4회 통합추진대표자회의(10.1.8)에서 논의된 후 수정보완한 2차협의안(10.1.8)을 가지고 논란이 되는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측조 심의하였음.
- 통합원년이 끝나는 시점인 2012년 2월 28일이 운달인 관계로 2012년 2월 29일로 수정함.
- 제2조(운영) 제4항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나 기존 한국건축가협회와 새건축사협의회의 통합방침을 3단체의 재산, 권리, 실적 등을 모두 승계하기 위해서는 법인청산이 아닌 3단체가 합병에 의한 방식으로

(10.1.8 협의안)	(10.1.8 변호사 의견)	(10.1.11 협의안)
<p>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p> <p>④ 협회의 창립대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또한 통합원년에 모든 자산과 각종행사의 권리를 협회에 귀속시키며 서울특별시 서초1동 1603-55를 주 소재지로 한 법인통합에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을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신설></p>	<p>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p> <p>④ 협회의 창립대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한다. 위 통합정관개정과 동시에 대한건축사협회는 대한민국건축사협회(협회)로 명칭변경을 한다.</p> <p>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로 정하고 법인통합에 필요한 청산업무, 시기, 절차 등을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제2조(운영) ①~③ 내용생략</p> <p>④ 협회의 창립대회 이후 2011년 2월 28일까지는 건축3단체를 각각 운영하되, 이 기간동안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및 새건축사협의회는 통합정관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통합한다.</p> <p>⑤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03-55로 정하고 법인합병에 필요한 업무, 시기, 절차 등을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추진해 하므로 아래와 같이 문구를 수정하고 각 단체가 13일 이전까지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통보기로 함.

-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다음 회의시 합의서를 작성기로 하고, 만일, 각 단체의 의견이 분분할 경우에는 전문 M&A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함과 동시에 긴급회의를 소집한 후 변호사도 같이 동석시켜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검토기로 함.
- 제2조(운영)제7항에서 통합원년 이전에 는 통합원년 이사회가 구성되며 이전이므로 통합원년의 협회운영 및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통합원년 임원 회의에서 결정기로 하고 관련문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
- 예산안은 통합원년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를 '예산안은 통합원년 임원회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의결은 통합원년이 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방법에 따른다'로 변경
- 각 단체 임원의 임기를 똑같이 하기 위해 통합정관 부칙상에 '기존 3단체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기로 함.

2010년도 시무식 개최



대한건축사협회는 지난 2010년 1월 2일 오전 11시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서울시건축사회, 서울건축사복지회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최영진 회장은 신년사에서 "2010년 경인년 새해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협회 임직원이 되길 바란다. 협회발전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건축사회 회장과 서울건축사복지회 회장의 신년사와 우리 협회 역대회장의 녀답이 섞인 신년사가 있었다. 3개 단체 임직원은 새해를 험하게 출발하자는 구호와 함께 떡국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CEO과정 수료

우리 협회는 정부 지원을 받아 추진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CEO과정' 수료식을 구립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개강한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CEO과정에서 100명 중 96명이 친환경 전문가로 수료됨에 따라 개최됐다. 김광현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 원장(서울대 교수)은 축사에서 "이번 CEO과정에서 1기 수료를 받은 건축사들은 최초의 친환경 전문가다. 건축 실무에도 친환경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 제5기 수료



서울특별시건축사회(회장 김영수)는 지난 12월 17일 '글로벌건축 최고위과정(GAEC) 제5기 수료식을 건축사회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과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동기회 김윤수(주.태진 핸드레일 대표이사) 회장이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38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 문의: 서울건축사회 기획사업팀

02-587-7061, www.sira.or.kr

2009 사랑나눔 송년의 밤



서울특별시건축사회는 구립 17일 '사랑나눔 송년의 밤' 행사를 건축사회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건축사회의 회원 및 회원가족, 건축계의 대외인사 등을 초청해 2009년 한 해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무의탁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사업인 사랑의 집고치기 후원금을 마련코자 개최한 행사였다.

이날 송년의 밤에는 1부 기념식에 이어 회원 및 회원가족의 문화공연과 유명가수들의 열띤 퍼포먼스로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건축사 및 건축사협회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알리고 회원 간의 친목 도모 및 대내외 건축계 인사와의 교류의 장이 됐다. 서울건축사회는 모금된 후원금 1천만원을 해비타트 서울지회에 기부했다.

대구건축사회, 건축허가 관련 디자인 자문제도 시행

대구광역시건축사회(회장 신풍술)는 구립 1일부터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 자문을 받아 '자문결과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 건축물 '디자인 자문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제도는 지역의 건축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특색이 잘 드러나는 건축경관을 창출하여 쾌적 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 대구건축사회는 1년여 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통해 이번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 절차 등을 마련했다.

충북 청주건축사회, 사랑의 연탄배달



충청북도건축사회의 청주지역건축사회(회장 한재희)에서는 지난 1월 13일 청주시내 어려운 이웃 3가구에게 온정을 나누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건축사 회원 및 가족 18명이 참가해 50만원 상당의 연탄 1,000여장을 3가구에 직접 배달, 기부하는 온정을 베풀었다.

건축계소식

범건축, 연말행사 대신 소외계층 봉사 활동 열어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는 구립 21일 연말, 송년행사를 대신해 소외된 사회계층을 위한 연탄 기부 및 배달 봉사활동을 서울시 종로구 본동 서울연탄은행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명홍, 원형준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참여해 소외된 사회계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김명홍, 원형준 대표이사와 임직원은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범건축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 문의: (주)범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02-538-9966

「간삼파트너스→간삼건축」 사명 및 CI 개편

1983년에 설립,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적인 건축 설계 디자인을 해온 간삼파트너스(회장

Gansam
[Architects & Part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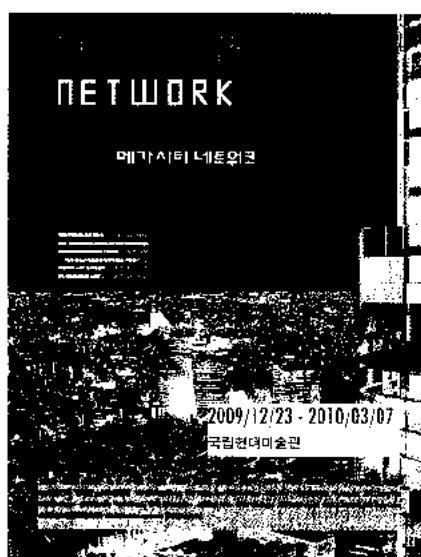
이광만, 대표이사 김태집)가 2010년을 맞아 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건축 문화인 양성 등 창업 제2기를 위한 비전 선포와 함께 새로운 사명과 CI를 변경했다.

사명은 기존 「주)간삼파트너스」에서 「주)간삼건축」으로 변경하고 새로운 CI는 「시간을 뛰어넘는 인간을 위한 공간 디자인」이라는 건축적 철학을 담아내면서, 간삼건축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전문화된 시각 언어로 표현하며 글로벌 브랜드로서 세계 건축디자인 회사들과 견줄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했다.

한편 간삼건축은 지주회사격인 (주)간삼(회장 김자호, 대표이사 오동희)를 설립하여 해외 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전념하는 등 글로벌 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 문의: 02-2250-6107

국립현대미술관, 메가시티 네트워크: 한국현대건축 서울 展 개최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배순훈)은 구립 23일부터 2010년 3월 7일까지 「메가시티 네트워크: 한국현대건축 서울」 展을 개최한다.

우리나라에서 기획한 최초의 한국건축 해외 그룹전인 「메가시티 네트워크」 전은 2007년 말 프랑크푸르트의 독일건축박물관에서 처음 열려 현지 건축계와 언론의 호평을 받았다. 이후 베를린의 독일건축센터, 에스토니아 탈린의 에스토니아건축박물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카탈로니아건축사협회 등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총 168일간의 유럽 순회전을 마쳤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간의 전시를

마무리하는 귀국 전으로 국립현대미술관과 (사)새건축사협의회(회장 이필훈)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전시 주제인 '메가시티 네트워크'는 초고밀도, 고층화가 주도하는 거대 도시의 네트워크를 추구하는 창의적 건축가들의 네트워크를 직중 조명한다.

현자 한국의 수도 서울은 인구 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명실상부한 메가시티이다.

전시의 총괄 기획자인 김성홍 서울시립대 교수는 "메가시티 네트워크는 한국의 거대 도시에 무질서하게 흩어진 건축이 엮어내는 잠재적 연결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김성홍 교수는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도시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건축은 그 중 간지대에 분산되었다. 그러나 서양이 갖지 못한 거대도시의 역동성과 건축의 이질성은 역설적으로 혁신의 가능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건축문화에 가려졌던 한국 현대건축의 혁신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동아시아의 건축가들이 직면한 문제가 서구의 것과 짙직으로 차이가 없음을 과감히 드러내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전시는 한국 도시의 현상을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세계 건축의 보편성과 연결시킨 지난 10년간의 완성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국내외적으로 활동이 주목되는 16인의 참여 건축가들은 신진 건축가에서 중견 건축가, 아틀리에 사무소에서 대규모 사무실에 이르기까지 각 영역을 대표한다.

이들은 한옥, 고층 아파트, 교회, 주상복합 건축, 사무소, 공공 건축, 미술관, 도서관, 병원, 경기장, 폐광촌 등 다양한 작품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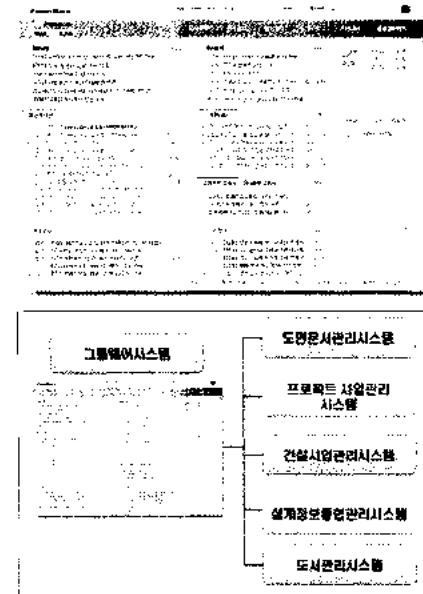
유럽순회전에서는 96개의 알부미늄 금속판 위에 16인의 건축가가 설계한 건축물 32점의 도면, 사진, 모형을 배치하고, 영상작가 안세권이 포착한 서울의 도시 풍경을 전시장 벽면에 스펙터클하게 투사하였다.

이번 귀국 전에서는 유럽전의 배치를 원형 그대로 유지하면서, 참여 건축가들의 최신작과 그들의 건축관을 보여주는 공간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별히 독일 건축박물관장인 피터 슈말이 내한하여 "유럽의

눈으로 본 아시아 현대 건축"이란 주제로 강연회를 가질 예정이다. 그리고 "건축가와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참여 건축가들이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본 행사에서는 매 회 참여건축가 3~4명과 건축비평가 1인이 자신들의 작품과 건축관을 소개하고, 도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토론을 전개할 것이다.

• 문의 : 국립현대미술관 02-2188-6000,
www.moca.go.kr

코스팩정보, 건축사사무소 전용 그룹웨어 시스템 'PowerWare' 개발



건축사사무소 정보화 및 BIM 전문회사인 코스팩정보는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최적화된 그룹웨어 시스템인 'PowerWare'를 개발했다고 알려왔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그룹웨어와 달리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되었으며, 주요 기능으로는 전자결재, 일정관리, 게시판, 커뮤니티, 공용설비예약, 자인관리, 주소록, 사우 정보, 쪽지, 메신저 등이 있다.

이번 개발된 그룹웨어는 코스팩정보의 건축사사무소 업무에 맞게 개발된 설계도면 관리 시스템(EDMS), 설계감리·프로젝트사업 관리 시스템(PMS), 건설사업 관리시스템(PMIS) 등과 연계 활용할 수 있어 향후 건축사사무소 IT화에 대한 일관성 및 확장성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격이 타 그룹웨어의 50~60%로 저렴하며, 구축 또는 임대 서비스도 가능하다.

• 문의 : 코스팩정보 신경수 이사,
011-9722-1486

KCC, 선박용 도료 'EH2350', 진공차단기용 세라믹 2009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



KCC는 자사의 선박용 도료 'Korepo EH2350'과 발전설비 진공차단기(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이 이 시장경제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여 선정하는 '2009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에 현재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됐다고 알려왔다.

세계일류상품이란 정부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유망한 수출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여 향후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할 수 있는 주력상품으로 육성해나가기 위해 기술력과 비전을 겸비한 제품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우수상품을 일컫는다.

KOC 선박용 도료 'Korepo EH2350'과 발전설비 진공차단기(Vacuum Interrupter)용 세라믹'이 선정된 '현재세계일류상품'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5위 이내이며, 세계시장 규모가 5천만 불 이상, 수출규모가 5백만 불 이상,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 세계시장 점유율이 10% 이상인 블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후보군 중, 발전설비위원회에서 경제성, 시장성,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선정된 것이다.

선박용 도료 'Korepo EH2350'은 에폭시 시장을 주성분으로 한 대표적인 방청 도료로서 내염수성, 내마모성이 매우 우수하다.

극심한 해양 부식 환경에서 장기간 보호가 요구되는 해수탱크, 파이프, 창고 등의 철 구

조물에 도장되며, 선박의 수명 및 안전성에 가장 중요한 부위인 벨러스트 탱크(선박의 운항 중 균형을 유지하여 운항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유지함)용 표준도료로 적용된다.

밸전설비 진공차단기(Vacuum Interrupter) 용 세라믹이란 중/고압 전기(10~70kV)의 정격전압 이상의 전기흐름을 차단해주는 안전 장치이다. 진공차단기는 진공 하에서 전류를 차단하고 과전압 시 스파크 발생을 소멸해주며, VI에서 세라믹은 절연 및 진공 소재 역할을 담당한다. VI용 세라믹은 94%의 알루미나를 원료로 가공하여, 양면에 금속 페이스트를 코팅하여 열처리한 후 니켈을 도금하여 완성하는데, 알루미나 매탈라이징은 알루미나 재질의 고온 소결 세라믹에 금속을 접합시키는 기술로 기술 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KCC, 전천후 배관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방수카바' 및 초속경화형 폴리우레아 도료 '하이퍼우레이' 출시



건축자재 전문기업 KOC가 출시한 '그라스울 방수카바'와 '하이퍼우레이'를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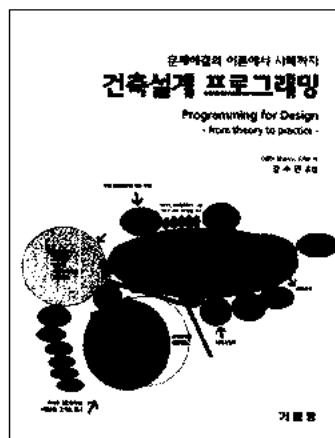
먼저 '그라스울 방수카바'는 투습 저항성과 취급 용이성을 모두 개선한 제품으로 심재 전면을 밟수 처리하여 배관누수 및 외부 습기 침투를 완전차단, 투습 저항성을 극대화하여 최상의 단열성능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다. 또한 취급성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그라스울의 섬유경을 줄여 피부 접촉시 따가워지는 현상도 개선했다.

배관 보온단열재는 배관을 피복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그라스울 방수카바는 그라스울만의 특징인 불연재료로서 화재안전성을



신간안내

건축설계 프로그래밍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고온에서도 단열성능이 뛰어나고, 배관부식과 습기방지 성능까지 겸비한 전천후 배관 보온단열재이다.

그래스울 보온통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요구되는 단열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며, 무기질의 불연자재로서 화재 발생 시 확산의 통로를 막아줌으로써 사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건축·산업용 배관 보온단열재이다. 또한 '하이퍼우레이'는 2액형 제품으로 주제(PTA : Isocyanate prepolymer)와 경화제(PTB : Polyamine)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분 이내에 경화되고 하루가 지나면 차량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특징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도장 장비인 롯, 롤러, 일반 스프레이 이로는 작업할 수는 없고 주제와 경화제가 스프레이건 끝에서 충돌 혼합하여 분사되는 방식의 폴리우레아 전용 도장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해야만 도장이 가능하다.

'하이퍼우레이'는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스프레이 분사 방식으로 바닥, 벽면, 천장 등 모든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출시 제품으로는 바인더 내에 우레아 결합만을 가지고 있는 순수 우레아 PU295A, PU285A 제품과 바인더 내에 우레이아와 우레탄 결합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HB195A 제품이 있으며 콘크리트 건축물의 방수, 바닥 방식재로 적용이 가능하다.

기존 우레탄 방수재에 비해 경도, 인장강도, 인열 성능 등 모든 기계적 물성이 우수하고 내수성이 강해 우레탄 방수재를 적용할 수 없었던 저수조 등 침수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탄성을 지니고 있어 콘크리트 소자와의 균열을 보완하여 탄성이 없는 에폭시 마감재의 단점을 극복했다.

- 문의처 : KOC 고객상담실
080-022-8200,
<http://www.kocworld.co.kr>

Edith Cherry, FAIA 저 | 김수안 역 |
392쪽 | 기문당

이 책에서 저자는 건물 이용자들을 위한 설계를 강조하면서 건축하는데 있어 목표설정, 정보수집과 분석, 콘셉트 개발, 프로그램통합 그리고 고객과의 소통에 관한 검증된 전략과 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실제 응용에 있어 큰 역할을 하는데, 내용 중에서 많은 사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해서 고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또한 각 단계마다 4가지 연구를 통해 여러분이 독자여러분이 선택한 프로젝트를 차분히 실행해 나가도록 돕는다.

이 책은 이미 건축설계의 프로세스를 대강 배운 건축학과의 고학년 단계나 건축프로그램을 배우지 않은 건축가나 계획가를 대상 독자로 하고 있다.

- 문의 : 02-2295-6171~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77-9494 · 강북구건축사회/9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2999 · 관악구건축사회/888-2430 · 광진구건축사회/445-5244 · 구로구건축사회/9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3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927-0503 · 동작구건축사회/14-8843 · 자포구건축사회/338-5556 · 서아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227-3236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익산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634-3109 · 용산구건축사회/719-5885 · 은평구건축사회/357-6888 · 종로구건축사회/25-3914 · 중구건축사회/2266-4904 · 중랑구건축사회/496-30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 출산광역시건축사회/(052)268-55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망우건축사회/(02)2884-55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32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3~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3-3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6 · 남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20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8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0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2)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3-0680 · 속초지역건축사회/(033)533-6651 · 동해지역건축사회/(033)637-6621 · 양평정의의건축사회/(033)372-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76-2906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62 · 청주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342-380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0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68-5110 · 도령지역건축사회/(041)932-8990 · 아산지역건축사회/(041)543-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08 · 쪽산지역건축사회/(041)662-339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3 · 연기지역건축사회/(041)866-221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세천지역건축사회/(041)662-2356 · 음성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56-0017 · 계룡지역건축사회/(042)841-5725 · 청양지역건축사회/(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근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낙동지역건축사회/(063)631-2228 · 육산지역건축사회/(063)852-16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6-68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46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9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0)744-7800~2

김천지역건축사회/(053)801-0396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5377-8 · 김해시건축사회/(054)436-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2-1412 · 상주시지역건축사회/(054)536-3856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6 · 영주시지역건축사회/(054)831-456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65 · 출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432-3613 · 군위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9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고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931-3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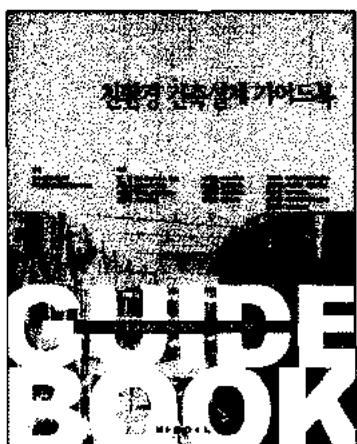
■ 경상남도건축사회/(056)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6)5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6)943-6090 · 고성지역건축사회/(056)573-0487 · 김해시건축사회/(056)334-5644 · 단성지역건축사회/(056)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6)38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6)832-1301 · 양산시건축사회/(056)384-8066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62-6434 · 진주시건축사회/(055)547-4530 · 황남시건축사회/(055)532-3913 · 창원시건축사회/(055)282-496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시건축사회/(055)833-4611 · 함양시건축사회/(056)585-058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시지역건축사회/(064)763-1010

친환경건축설계가이드북



김원외 13명 저 | 424쪽 | 도서출판 발언

이 책은 한국건축가협회가 지난 2008년 2월 '친환경건축선언' 후 3차례의 국제심포지움을 통한 연구의 성과물로써 친환경건축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축설계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발간됐다.

따라서 필진의 구성도 친환경건축 관련 학계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1장은 친환경건축의 개념 및 기후변화와 생태학 등 이론적 배경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을, 2장은 친환경건축재료와 에너지 그리고 자연자원 등 친환경건축 설계요소를, 3장에서는 친환경건축을 구현하기 위한 기법과 규제계획 기법 및 인증제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건축의 친환경 요소 등을 수록했다.

• 문의 : 02-929-3546

시간으로서의 건축



문정필 저 | 288쪽 | 도서출판 대가

신간 '시간으로서의 건축'은 부산에서 AK건축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문정필 건축사가 집필한 책으로서 현재 그는 '건축과 도시의 시간'에 관한 이론을 전개, 실무에 적용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은 근대건축과 현대건축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시간건축을 배경으로 시간개념의 생성과 발전을 그 주요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지만 건축에 개입된 시간은 난해한 점이 있어서, 책의 앞부분에는 건축을 둘러싼 환경적 시간과 지구의 생물에 따른 시간의 비밀을 흥미롭게 풀어가면서 건축의 시간에 서서히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풀어냈다. 또한 뒷부분에는 건축에 대한 시간을 넘어 도시에 축적된 시간으로 확장하여 건축과 도시가 연속되는 시간개념도 설명하고 있다.

• 문의 : 02-305-0210

PLAZA ARCHITECTS'

건축마당
통계
statistics

2009년 건축허가 현황(11월)

(단위 : 동, 제곱미터)

■ 용도별

구 분	당월(11월)			누계(1~11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16,995	19,321	13.7%	209,897	191,241	-8.9%
	연면적	9,023,562	10,293,186	14.1%	105,557,979	83,586,014	-20.8%
주거용	동 수	5,375	7,004	30.3%	70,415	65,193	-7.4%
	연면적	3,469,658	3,766,780	8.6%	30,647,685	27,206,081	-11.2%
상업용	동 수	5,269	5,569	5.7%	66,021	57,892	-12.3%
	연면적	2,276,028	2,586,161	13.6%	30,709,733	21,993,011	-28.4%
공업용	동 수	1,565	1,898	21.3%	21,738	17,396	-20.0%
	연면적	1,070,251	1,066,090	-0.4%	17,001,379	10,107,085	-40.6%
교육및 사회용	동 수	1,217	1,258	3.4%	12,741	13,295	4.3%
	연면적	917,736	926,938	1.0%	12,440,095	10,036,155	-19.3%
기 타	동 수	3,569	3,592	0.6%	38,982	37,465	-3.9%
	연면적	1,289,889	1,947,217	51.0%	14,759,087	14,243,682	-3.5%

■ 구조별

구 分	당월(11월)			누계(1~11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16,995	19,321	13.7%	209,897	191,241	-8.9%
	연면적	9,023,562	10,293,186	14.1%	105,557,979	83,586,014	-20.8%
철근 철골조	동 수	14,218	16,442	15.6%	77,494	159,891	-9.9%
	연면적	8,815,115	10,074,412	14.3%	102,934,935	81,162,874	-21.2%
조적조	농 수	1,856	1,791	-3.5%	22,376	20,656	-7.7%
	연면적	137,702	138,502	0.6%	1,821,899	1,622,407	-10.9%
목 조	동 수	873	973	11.5%	9,306	9,907	6.5%
	연면적	68,849	75,276	9.3%	758,143	751,279	-0.9%
기 타	동 수	48	115	0.0%	721	787	0.0%
	연면적	1,896	4,996	0.0%	43,002	49,454	0.0%

■ 시도별

구 分	당월(11월)			누계(1~11월)			
	2008년	2009년	증가율	2008년	2009년	증가율	
계	동 수	16,995	19,321	13.7%	209,897	191,241	-8.9%
	연면적	9,023,562	10,293,186	14.1%	105,557,979	83,586,014	-20.8%
수도권	동 수	5,544	6,829	23.2%	75,645	60,974	-19.4%
	연면적	3,337,208	6,160,423	84.6%	50,585,673	38,969,396	-23.0%
서 울	동 수	798	1,146	43.6%	13,010	9,297	-28.5%
	연면적	836,169	1,394,847	66.8%	14,202,938	7,346,595	-48.3%
인 철	동 수	617	632	2.4%	7,519	6,887	-8.4%
	연면적	218,832	511,967	105.7%	4,774,157	3,751,869	-21.4%
경 기	동 수	4,129	5,051	22.3%	55,116	44,790	-18.7%
	연면적	2,252,207	4,253,609	88.9%	31,608,578	27,870,932	-11.8%
지 방	동 수	11,451	12,492	9.1%	134,252	130,267	-3.0%
	연면적	5,686,354	4,132,763	-27.3%	54,972,306	44,616,618	-18.8%
부 산	동 수	631	589	-6.7%	5,509	4,957	-10.0%
	연면적	629,450	603,207	-4.2%	3,376,386	2,687,007	-20.4%
대 구	동 수	321	445	38.6%	4,785	4,065	-15.0%
	연면적	141,884	165,940	14.5%	2,923,342	2,093,306	-28.4%
광 주	농 수	240	300	25.0%	3,264	2,969	-9.0%
	연면적	215,537	119,534	44.5%	2,053,979	1,769,584	-13.8%
대전	동 수	382	362	-5.2%	3,483	3,102	-10.9%
	연면적	1,208,397	170,684	-85.9%	3,612,784	1,597,266	-55.8%
울 산	동 수	285	133	51.9%	4,562	3,846	-15.7%
	연면적	105,763	185,636	75.5%	3,209,621	1,663,705	-48.2%
강 원	동 수	219	1,143	-6.2%	12,821	12,597	-1.7%
	연면적	323,277	348,896	7.9%	3,603,697	3,795,877	5.3%
충 북	동 수	924	1,068	15.6%	12,550	11,879	-5.3%
	연면적	342,212	265,630	-22.4%	4,661,738	4,216,060	-9.6%
충 남	동 수	1,304	1,375	5.4%	15,841	14,398	-9.1%
	연면적	814,228	495,128	-39.2%	7,138,701	6,047,956	-15.3%
전 북	동 수	1,086	1,122	3.3%	12,578	12,562	-0.1%
	연면적	297,428	349,425	17.5%	3,971,111	3,950,922	-0.5%
전 남	동 수	1,442	1,542	6.9%	14,709	16,676	13.4%
	연면적	222,111	323,370	45.6%	3,587,997	3,669,449	2.3%
경 북	동 수	1,614	1,954	21.1%	20,459	20,666	1.0%
	연면적	447,004	436,298	-2.4%	6,576,079	5,640,948	-14.2%
경 남	동 수	1,689	1,870	10.7%	20,189	18,916	-6.3%
	연면적	809,136	597,462	-26.2%	8,899,330	6,212,027	-30.2%
세 주	동 수	314	289	-8.0%	3,502	3,634	3.8%
	연면적	126,927	71,553	-43.6%	1,357,542	1,272,511	-6.3%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9년 11월말

구 분 전체 사회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총 액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6인		9인이상		소계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회원	회원수	
합계	5,146	5,146	108	216	11	33	5,265	5,395	1,580	1,580	257	514	58	174	24	96	28	188	1,947	2,552	
서울	887	887	29	58	3	9	919	954	859	859	151	302	36	108	12	48	15	93	1,073	1,410	
부산	460	460	18	36	2	5	480	502	93	93	19	38	3	9	0	0	3	26	118	166	
대구	408	408	22	44	4	12	434	464	58	58	19	38	4	12	2	8	2	10	85	126	
인천	252	252	2	4	0	0	254	256	54	54	9	18	0	0	1	4	0	0	64	76	
광주	194	194	1	2	0	0	195	196	49	49	5	10	2	6	2	8	1	5	50	69	
대전	235	235	6	12	2	6	243	253	37	37	6	12	4	12	2	8	1	17	50	86	
울산	175	175	6	12	0	0	181	187	20	20	1	2	1	3	0	0	0	0	22	25	
경기	708	708	3	6	0	0	711	714	221	221	19	38	3	9	0	0	2	10	245	278	
강원	168	168	2	4	0	0	170	172	25	25	2	4	0	0	0	0	1	5	28	34	
충북	195	195	4	8	0	0	199	203	30	30	4	8	0	0	2	8	2	16	39	62	
충남	217	217	1	2	0	0	218	219	42	42	7	14	1	3	2	8	0	0	52	67	
전북	234	234	4	8	0	0	238	242	19	19	3	6	2	6	1	4	0	0	25	35	
전남	177	177	3	0	0	0	177	177	17	17	2	4	0	0	0	0	1	6	20	27	
경북	341	341	4	8	0	0	345	349	32	32	4	8	1	3	0	0	0	0	37	43	
경남	390	390	6	12	0	0	398	402	24	24	5	10	0	0	0	0	0	0	29	34	
제주	105	105	0	0	0	0	105	105	9	9	1	2	1	3	0	0	0	0	11	14	
																				116	119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건축사회	회원				비 율	증 가
	건축사	2급	3급	6인		
합 계	7,947	10	7,957	—	100.0%	23
서 울	2,364	3	2,367	—	33.9%	10
부 산	668	1	669	—	7.9%	9
대 구	590	0	590	—	7.7%	0
인 천	332	0	332	—	3.8%	0
광 주	265	0	265	—	3.7%	0
대 전	339	1	340	—	3.7%	0
울 산	212	0	212	—	2.6%	0
경 기	992	2	994	—	12.2%	2
강 원	206	0	206	—	2.6%	0
충 북	265	0	265	—	3.0%	0
충 남	286	3	289	—	3.1%	0
전 북	277	0	277	—	3.0%	0
전 남	204	0	204	—	1.9%	0
경 북	392	0	392	—	4.6%	1
경 남	436	0	436	—	5.0%	1
제 주	119	0	119	—	1.3%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分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전체사무소	합 계	증 가
회원 수	5,395	2,552	86	8,033	—
비 율	67.16%	31.76%	1.08%	100%	—
사무소수	5,265	1,947	—	7,212	—
비 율	73.01%	26.99%	—	100%	—